

오쇼

태어나지않고
죽지않는

오직 이 별을
방문한

1931년 십이월 11일
1990년 일월19일



신비한
장미의
눈물

라즈니쉬가 밝히는 오쇼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파노라마의 전경
광대한 위풍의 설봉우리 칸친장가 산맥
매 순간 펼쳐진 이 광활함을 볼 때마다
내 앞의 완전한 아름다움의 수형선을 응시한다
위대한 삶의 미래가 앞에 섰다...이를 수 있는 꿈
나는 꿈같은 신비로움의 놀라움으로 가득찼다
눈을 뜨고 있다...꿈을 꾸는 이...이 세상으로 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이 산맥으로 부터 내 삶의 모든 영감을 얻는다
떠오르는 태양은 황금빛 하늘을 만들고
저무는 태양은
산자락에 붉은 보라빛의 그림자를 그려 놓는다
앞으로 십년동안 나의 유년기를 보낼 히말라야
내 천국의 학습장소
집으로부터 떨어진 다르질링의 세인트폴 학교

나의 아버지는 막대한 성공을 이룬 사업가 집안의 유명한 기업가
나의 어머니는 첫 영화를 막 출시한 볼리우드의 영화배우
그녀를 스타계로 진출시키고 일순간 인도전체에 명성을 알린

와 무슨 영광...무슨 탄생인가...엄청난 행운을 타고 태어난 나
완벽한 유년기...완벽한 삶
나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아이

아이답게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다...그의 거만함
잘못된 권위의 남용...그의 유일한 관심사 돈과 권력
다른 이들을 조정하려 하는...이러한 그의 본성들이
항상 그에 반대하는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충고 또한 거절하게 만들었다
그처럼 되라는 억지는 더욱이 싫었다
학교에서도 그의 시험을 거친 아이들만 친구로 삼을 수 있었다
그들 부모들의 지위까지...이러한 문제에 극도로 비속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늘 그와 거리를 두길 원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가녀리고 순수한 품성의 매력을 가진 그녀
아름답고 겸손한 그녀는 항상 남들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스타 입에도 불구하고 하루일과인 부엌일과 손님대접 식사준비까지
소홀하지 않았다...항상 우리의 시중을 직접 들겠다며 우기기까지
빛이나는 그녀...만나는 사람들 마다 가득한 연민으로 대하며
결코 돈에 가치를 두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은 없었다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을 사랑하고 감탄했다...나의 우상이된 그녀
자라나면 그녀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되고 싶었다

아버지는 내가 최고의 기업가가 되기만을 원했고 그럼에도
어머니는 비밀리에 내가 자신처럼 영화배우가 되길 원했다
그녀는 오로지 나의 행복과 늘 나의 꿈을 위해 살아가길 바라며
항상 아버지와 같은 사업가는 절대 되지 말라며 속삭이곤 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라즈니쉬
왕 이란 뜻의 라즈와 밤 이란 뜻의 니쉬
밤의 왕
보름달의 왕

아버지는 쉬브라즈 어머니는 빔레쉬 또는 비미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그들의 이름자를 따서 나의 이름을 지었다

1961년 1월 20일 오전 3시 5분 나의 출생
1963년 1월 19일 오후 4시 30분 나의 여동생 쇼나의 출생

부모님은 우리가 같은 생일을 갖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잘못 계산하는 의사...8시간 늦게 태어났었어도
우리는 같은 출생일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우리 둘에게 큰 문제를 가져왔다...어느날에 우리의 생일파티를
할 것인지 항상 싸워야했고...많은 친척들 또한 이틀 연달아 파티에
올 수가 없었다...두개의 케익...그래서 한달 한개의 큰 케익의 양끝을
함께 자르게 하여 우리의 생일을 동시에 축하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1월 19일에

나는 칠개월 반만의 조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태어났다
보육기에 넣어져야 했던 3kg 미만의 미숙아
늘 마르고 매우 연약한 몸을 가졌다...창백한 얼굴
이로 인해 부모님은 번번히 의사에게 나를 데려가야 했다
체중미만의 연약한 몸상태와
많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나의 유년기 동안 고개들기 시작하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나는 그 경험들을 되살려본다
육상...마라톤...체조...콩후 를 하던 동안

달리기와 몸 단련 시키기를 너무 좋아한다...짜릿함의 경험과
민첩함은 나를 달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육체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다
학교 담당의사는 예상지 못한 나의 허약체질에 관한 주의 듣고는
깜짝 놀라했다...그러나 그는 나를 가까이두고 지켜본 후
내가 극한운동을 하는 도중 천지가 온통 하얗게 되며 기절을 하고
경련과 발작을 일으킴을 알아차렸다

신나는 단거리 경주...백 미터...일등으로 들어왔다...숨을 헐떡이며
끝까지...나는 뛰었고 잔디위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다
단거리 마침을 지켜본 담당의사...하얗게 질려
졸도한 나를보고...경주에서 제외 시키것을 권고했다
숨이 찼을 뿐 위험하지 않았다고 겨우 그를 설득했다
학교 대표로서 뛰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뛰었어야만 했다고
그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눈감아 주었다

올해 열네살
마라톤 시즌이다...다르질링 3마일 달리기
더욱 더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한다
올해의 상 의식행사에 어머니가 참가하는 이상 꼭 일등으로 들어와야한다

항상 같은 노선...이 지점이 2마일째
남은 마지막 마일...그 마라톤 최악의 코스
60도 각도 가파를 오르막길...거의 200미터 남짓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 부분...가장 고된 전력질주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이 지점 까지 달리고야 말겠다 다짐한다
여기서 부터...내리막 길인 마지막 마일...쉽다



늘 이 언덕 꼭대기에서 티벳 곰파를 보아왔고
매 번 이곳에 멈춰 몇 분의 휴식을 가졌다

최선을 다하고...오늘 기록을 세울 것이다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언덕 아래에 도착한다
휴식은 없다...반드시 오르막길로 돌진 한 후 그리고 휴식
오늘따라 다리는 천근 만근 그리고 경련으로 고통스럽다

오르막길을 달려 도착한 꼭대기
시작된 경련
오늘따라 몹시 지친다
나는 쓰러진다

곰파에서 울리는 종소리
소리가나는 곳으로 잡아끄는 듯한 강한 기운
몸을 일으켜 보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마치 돌덩이 같은
오늘 무슨일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느껴지는 거대한 빛의 볼
나의 몸 밖으로 나와 곰파를 향해 날아간다
나는 선명한 곰파를 볼 수 있다
바닥에 누워
엄청난 빛으로 빛나는 금으로된 곰파
전체는 마치 불길에 활활 타오르고
찬란한 푸른빛은 춤을 추고 부드러운 생기를 띄고
티벳 승려들은 곰파주위를 걷고 앉고
믿겨지지 않는다
혹 내가 서 있는가 아님 무의식에 바닥에 있는가
어떻게 이 머나먼 거리를 뚫고 볼 수 있단 말인가
이상하고도 취하게 만드는 이 상태의 완전한 혼란속에 있다

내 곁으로 뛰어가는 다른 아이들이 보인다...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들
나는 마라톤을 계속 뛰어야만 한다
그리고는 마치 마법에 의한듯 깃털같이 일어선다
마치 막 뛰기를 시작한 것 처럼 기운이 차고 생기가 넘쳐났다

바닥을 떠나 마치 날으는 기분이드는 두다리
땅에 닿지조차 않은 두다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의 마지막 마일을 질주를 한다...나는 슈퍼맨이 된 기분이다
모르고있던 비밀이라도 발견한양 그냥 마구 웃으며 달린다

3마일 마라톤을 끝내고...나는 다른 3마일을 더 뛰고 싶다
너무 빨리 끝나 버린 마라톤
오르막 학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마일 더 그리고 반 마일 더
깜짝 놀라는 친구들...내가 속임수라도 썼다고 생각하는 그들
중간 즈음에서 차를 탔거나 지름길을 탔다고

이 것에 대해 친구들과 의사에게 이야기 하고 싶지않다
이미 달리기를 제지한 의사

절친한 친구인 마쭈바를 기억한다
수학 천재

너무 친했던 그 였기에 나의 비상한 경험들에 대해 다 털어 놓을 수 있었다
언제나 귀 기울여 준 그는 그런대로 나를 이해하는 듯했다
어느날 아침 도망쳐버린 그...학교전체가 비상에 걸려 찾아나섰다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해 경찰들이 보내졌고
그가 티벳으로 도망친 사실을 알아내는데 몇일이 걸렸다
수도원에서 그리고 성직자가 되고픈 의향에 묻기까지
마침내 그를 학교로 데려왔고 그의 부모님으로 부터 전화걸려왔다
그의 확고한 결심에 성직자가 되고자 함을 인정한다는
몇 년동안 이 사건은 나를 쫓아 다녔고 그에게 대단한 경탄과
나역시 성직자가 되기를 결심할 만한 용기가 있었으면 했다





통갈루에서 숲속 캠핑
에딘버그공의 메달을 위하여

통갈루를 향해 걷는다
4시간째 걷고있는 뻑뻑한 밀림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너무 멀리 가버려 놓쳐버린 학교 캠핑 팀원들

나는 피곤해 이끼로 덮힌 바위 위에 걸터 앉는다
문득 혼자고 이 깊은 산중 길을 잃었음을 알아 차린다

점점 고요해 지는 대기
점점 커지는 울림을 듣기 시작한다
마치 수 천마리 별들이 꺾속으로 몰려드는 듯

무서워 달아나고 싶다
그러나 굳게 얼어버린
두려워서 인가 아님 그냥 움직이기에는 몸이 무거워 진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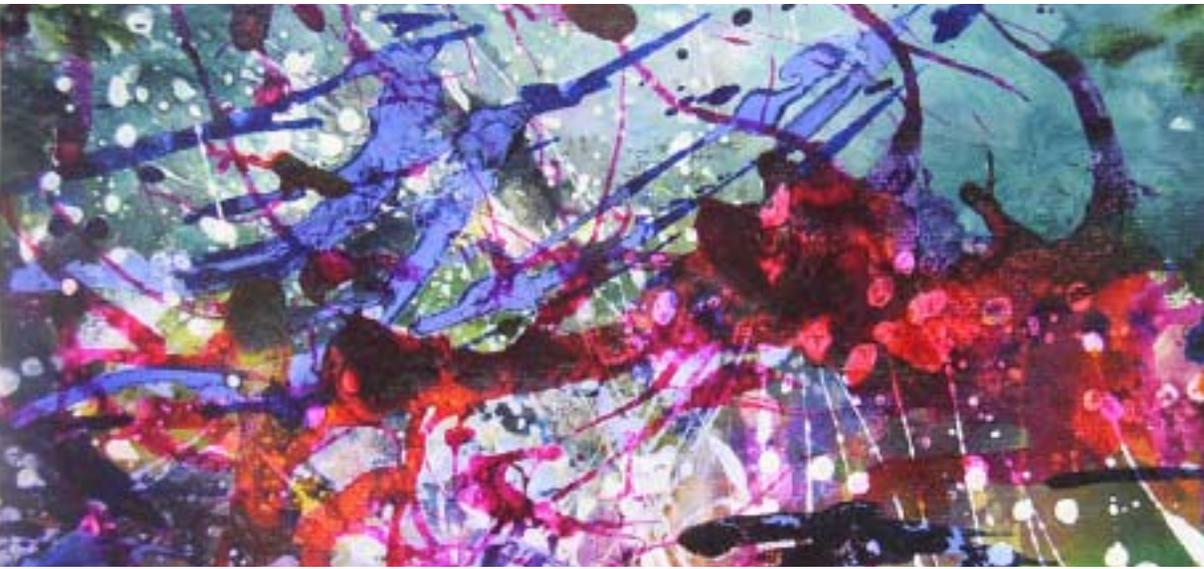
숲속 전체는 울려대고 살아나기 시작했다
더 푸르게 더 빛을 발하는 나무들
그들은 마치 살아 움직여 물 흐르듯 나를 향해 흘러든다
멀리서 나를 만져오는 그들을 느낄수 있다
그들을 향해 나를 잡아끈다

견딜수 없는 꺾속의 울림
고막이 거의 터질 듯
그리고는 갑자기 내려앉는 고요
어디서 부터인가 마치 구름같은 어둡고 큰 공간이 내위를 덮는다
더욱 어두워지고 완전하게 나를 감싸는 벨벳같은 부드러움

어두운 무의식의 공간속으로 빠져든다
움직이고 발버둥 치고 싶으나 완전히 마비되고
사지와 몸을 덮쳐온다
나는 쇠덩이 같이 무거워지고 무의식상태가 된다

몇 시간뒤 깨어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다...어두워지고 있다
숲 속의 울림은 더 커져갔으나 부드러워 졌다
달콤한 입속
소리에 취한 나

일어섰다...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고...공기중에 떠있는 듯
무언가가 일으켜 세웠다...그리고 날개를 단듯 걷는다
완전하게 가볍고 떠있다



봄베이로 석 달간의 겨울방학
나의 허약한 몸 상태를 늘 걱정하는 부모님
음식이면 질색하는 나는 낮동안 무엇을 먹는것을 몹시 싫어한다
그리고 하루 한끼만 먹는 버릇...저녁에
아침에는 스무잔 정도 또는 한 주전자의 맑은 차를 항상 마신다
아주 연하고 우유를 섞지 않은...다르질링에서 자라온 탓에
차는 우리의 최고 음료였다...아침은 물론이고 점심을 먹은 적이 없어
아버지는 늘 차빠띠 한 개 먹을때 마다 10루피를 주겠다는 미끼를 썼다

나는 항상 그릇에 먹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접시에 주기라도 하면
화를내며 집어던지거나 깨뜨렸다...굳세게 딱 한그릇의 음식만 먹고
더는 거절한다...매우 고집스러웠던 나
이렇게라도 하루 한끼를 나에게 먹이는 부모들의 유일한 방법이였다
한번도 아픈적 없었음에도 나의 건강은 부모님의 꿋이지 않는 걱정거리였고
단지 이상한 경험들로 인하여 힘들어 할때면 그들은 잘 안먹는 탓을 했다

생생히 기억하는 해변에서 보내던 어느 일요일
모래성을 짓고 더크게 지으려 다시 부수기를
길가 작은 상점들과 말타기

해가 저물고 있다
몸은 피곤함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 잠을 청하고 싶다
그러나 어두어 질 때까지 놀자고 하는 친구들

나는 피곤해 모래위에 눕는다
느껴지는 저물고 있는 태양...차오르는 공기
지는 해로 인해 내 배에선 이상한 묵직한 진동이 일어난다

온 종일의 파도소리는 내 안으로 녹아내린다
집에 가고싶다...그리고 다시 나를 움켜쥐는 이상한 무서움
바다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기분이 든다...파도속으로

나는 수영 할 줄 몰라...눈물을 터트리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자는 친구들

집의 내방 피곤하고 졸립다
어둡다...그러나 귓속을 가득 메우는 파도 소리
더 깊이 더 깊이
빠져드는 두려움이 나를 깨워 놓는다

갑자기 더 어두워지는 방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나를 느낄 수 있다
끝없는 떨어짐으로 나는 재빨리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
두려움으로 땀을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저 계속되는 떨어짐
나는 이 상태에 익숙해 져야만 한다

관의 끝자락에 보이는 푸른빛을 쳐다 보아야 한다
적어도 보이는 그것에라도 지탱하도록

어마한 공포 그러나 완벽한 무력함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끝나기를 내버려 두던지
무의식 상태가 되어 잠들게 내버려 두던지

모든것들의 갑작스런 고요함 그러나 완전히 깨어있는 나
단 한번도 이 같은 부드러움의 살아있는 침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점 점 커져가고 밝아지는 푸른빛

천장을 올려다 본다
빛으로 가득하다
푸른빛의 점들
수천만의 춤 추는 푸른 은빛의 점들로 가득찬 공기

전체가 진동하는 방 그리고 움직이는 벽
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나의 숨통을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일어선다
날개를 단듯한 가벼움
떠 있는
완전히 나를 놓아버린 중력

나는 집 밖으로 뛰쳐 나간다
부모님들은 마치 나의 뛰는 소리라도 들은듯 밖으로 나왔다
경원이 큰 나무로 향해 뛰다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끌리는 힘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다
나에게로 쏟아지는 멋진 평화로움과 차분함

오전 2시일 것이다...부모님은 내가 침대로 돌아가길 원한다
나무 주변의 뱀들을 걱정하며
소리지르고 싸우며 버텼다...이 나무 아래서 자고 싶다고
오늘 밤은 집 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전 6시까지 하인이 나와함께 하게했고
다음날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가야 한다며 집을 주었다

나의 유년시절을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로 보낸다
내안의 무언가가 그건 평범한 것이라며 말해오나
이는 나에게 이상한 두려움을 심는다
나의 이상한 경험들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했고
아마도 나에게 대해 평범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속세를 버리고 외톨이가 될 것임도
혼자서 운동장을 한참을 걷는다
다른 이들로 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숨긴채...혼자 침묵 한 채

우리만의 비밀 쿵후클럽
어마하게 끌렸다...금지된 쿵후 연습
사내아이는 어쩔 도리없다...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쿵후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붙이는 이소룡...잠겨진 체육관 안의 비밀모임

나는 아버지의 희망을 저버리고 체조를 하고 있었다
다칠지도 모르는 말위로 재주넘기 맨손으로 평행봉위 걷기
바닥에서 연습하는 위로 손집고 돌기
위험과 사고는 남자의 힘...불 붙은 링 통과하기
딱 우리에게 어울리는 인생...모험과 웃어넘기는 위험천만

그러나 금지된 쿵후...이는 더 흥미롭게 한다
우리 최고의 비밀 클럽...위험을 무릎쓰는 형제들의 모임은 형성되었다
영화배우의 아들로...나는 특별 지도를 받고
무리에서 나의 위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한다
모두가 나를 쳐다 보고있는 이상 최고로 잘해야만 했다
집중 훈련의 결과는 완벽하게 작용했다

집에 가는 길 들른 우리 철강공장
강철 스테인레스 막대 한쌍을 몰래 준비했다
치명적이고도 금지된 쌍절곤
철 체인과 함께...가죽으로 감싸 귀운
가장 멋진 쌍절곤으로 탄생
다른 친구들의 것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였다
획 획 획...이소룡같이 연습...맹렬함으로
통제력을 잃고 내려치는 소리가 머릿 끝 뒤 아래에서 울린다
완전히 얼어 기절하며 쓰러진다
잠결에 신성한 친구들과 외우는 티베트 기도문
무슨 이상한 소리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놀라 소스라치는 친구들
나의 이상한 전생의 기도문을 두려워한다...나는 티베트의 승려였다
소름끼치다

나에게 한 편의 동화같은 다르질링 세인트 폴의 10년간 생활
나는 활동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다...마라톤 체조
체스 드라마 미술 거의 모든분야에서
늘 우승상과 상점을 따냈다
항상 주목의 대상이었고 달성의 흔적을 남겼다
끝으로 교장 상과
다음해 1977년 학교 대표가 되는

나의 마지막 시험이 있던 1976년
갑자기 산산조각나는 나의 그 모든 꿈
영화 잡지와 신문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설 기사가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의 합의 이혼
나는 황폐해졌다...마지막 시험이 있는 해
그리고 그것들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설계해 나아갈
나의 새로운 인생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매년 겨울 방학 석 달 동안 만 보아온 힘들어 하던 그들
특별 허가를 받아 부모님을 보기위해 학교를 떠난다
바로 마지막 시험 삼주 전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살며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칠 것을 알고 있었다
독재자...그 즉시 그녀에게 나는 그녀의 편임을 알렸다
이해한다고 그리고 완전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들의 결별에 아버지는 어머니 탓을 했고
어머니를 복돋우는 나에게 분노하며
다시 한번 가족들과 어머니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금전적 지원을 자를 것이라 위협했다

가난한 집안의 네 자녀사이에 태어난 어머니
순박한 학교선생인 그녀의 부모님...나의 외할머니 마타지 외할아버지 피타지
너무도 정직하며 겸손한 사람들
기품있고 차별하지 않으며 늘 높은 가치의 삶을 살아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업가 집안의 일곱 자녀사이에 태어난 아버지
모두가 유명하고 인도내서 그들 나름의 분야에서 부자들이었다

어머니를 지지하며 반항하는 나의 평판이 나빠져
삼촌들과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조부모와도 나를 갈라놓았다
힘있고 돈있는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평판에 흠집 내는 소리따위는
듣기 싫다했다...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들 모두는 말하며
어린 나이에 당돌한 배짱으로 어른에게 반항하는 전례없는 행동은
이 전통적인 기업가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의 부모님들은 입을 다문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수용했다
그런 힘 있는 자들을 반대하며...가난하므로 한 마디 끼어들어
차라리 그들의 딸이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도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거들 수 도 없었다

우울함을 앓은채 학교로 돌아와 몇장의 시험지도 놓치고
시험공부도 전혀 하지 못하고 앉아 하는등 마는등 시험을 치른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큰 싸움이 일었다
매일 밤 취해 장래유망한 아름다운 영화배우들과 향락을 즐기는 그
새벽 2시 그날 밤도 양쪽에 여배우를 낀 채 달큰히 취해
나에게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며 소리쳤다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도 했고 계속되는 그의 음주와
수많은 여자들과의 바람에 이미 신물이 나있었다
아버지의 심부름꾼이 아니니 원하면 직접 가든지
배고픈 그의 여자들 중 하나가 가면 되지 않느냐며 대꾸를 했다
아버지는 내가 뒷사람에 대한 예의없다고 소리치며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 때 내가 손을 올려 있는 힘껏 그를 내리치자 충격에 뒷걸음질을 쳤다

이때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귀를 때릴 정도의 배짱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는 이 집에서 다시 나를 발견할 경우 혼썰을 내줄 것 이라며 나를 내쳤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집을 나가리라 맹세했다

그는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겠노라며 돈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며
내발로 구걸하며 집에 기어들어 올 것이라 장담까지 했다
나는 길에서 굶어 죽을 지언정 빌면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다시는 그를 이 생에서 마주하는 일은 없으리라 했다

그 이른 새벽 나는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열 여섯살...등에 짊어진 청바지와 티 셔츠 몇 벌 뿐
돈 한푼 없이 선 새벽 2시의 봄베이 거리

이젠 더 이상 사업가가 될 필요가 없었다...혐오하는 그 단어
이젠 더 이상 영화배우도 될 필요가 없었다...혐오하는 그 명성
부자가 되고싶지도 않았다...혐오하는 부류의 사람들
나는 그저 자유롭고자 했고 유랑하고 싶었다

여섯 살부터 열 여섯 살까지 산에서 자라왔다
매년 3개월의 방학때 반짝이는 도회지에 있는 집에가는 것을 제외하곤 말이다
미끈한 사람들이 살며 매일밤 파티를 즐기는 동네

여전히 히말라야의 순결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여전히 몽상가였으며 내 앞에 놓여있는 거친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고지식한 반항아 였다

부모님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 기간 동안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금지 당했다

봄베이를 떠나 나의 사랑하는 고모 라제쉬와리 풀이 있는 델리로 향했다
나는 다정하게 그녀를 소니 고모라 불렀다
그녀는 나에게 부모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때부터 쭉 나를 돌보아 주었다
고모는 나를 조부모가 있는 뽀잡주의 잘란다르로 보냈고
조부모는 세상의 현실감을 나에게 심어주려 무척이나 노력했다
이의 일환으로 가족 사업인 철강과 조물 사업에 참여해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영위하는 그런 삶에 전혀 관심조차 없었으므로 그곳 생활은 길지 않았다

1977년 십이월의 어느 날 아침
신문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의문사
그리고 홀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녀
아버지와 그 친척들이 법적으로 어머니와의 만남을 금지시켰기에
불행히도 우리중 아무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없었다
쓸쓸히 화장터로 옮겨졌을 그녀의 시신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
몇몇의 사람들만이 참석한 한 유명 여배우의 장례식

그녀의 갑작스럽고도 비극적인 죽음은 두말 할 필요 없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나는 인생에서 뭔가를 해내리라
그리하여 그녀를 그러한 방식으로 기리리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인생에 무엇을 어디로 왜 향해야할지 이해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인생에 대한 여러가지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삶의 의미와 이 삶을 한 인간으로서 어찌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과 이 사회에 대한 가치들과 중요성
여러 밤을 지새며 알아내고자 애를 썼다
의논할 사람이나 조언자라 할만한 사람 없이 철저히 혼자였다



나는 모든 가문을 상대로 싸워 낙인이 찍혔고
그들의 인생관이나 생각에서 벗어나게끔 스스로 만들었다
조언을 듣기에는 내가 너무 거만하다고 여긴 그들은
나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상관하고싶지 않아했다

이제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방향을 찾아내야 하는 중압감...무엇을 또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 혼란감
길을 잃었음에도 자유롭다는 것이 행복하게만 했다

오후 12시나 1시까지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한다...일어나 한시간
차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아무것도 하지않으며 게으름 피운다
할 일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일도 없고
그저 게으름의 순수 그 자체와 이방식에 몰입

내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 바로 옆의 공영 묘목원
그곳 정원사들에게 하루 몇 시간씩 이곳에 있는 나무들에 물을 주고 싶다 요청했다
정원사들은 곧 굉장히 친근하게 굴며 유명 배우의 아들인 나와
매일같이 정원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나는 이런 순박한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즐겼다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돈을 묘목원의 식물을 사는데 쓰기 시작했다
정원사들은 가격의 일부만 받고 나에게 비밀리에 팔았다
가끔은 훔쳐다 주기도했고 선물로 그냥 주기도 했다
나의 옥상 발코니는 곧 200개가 넘는 식물들로 가득 찼다
화분에 물을 주고 그것들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친구였고 나는 그들을 이해 할 수도 느낄 수도 있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에 관해
읽고 배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내 인생에 방향을 찾고 싶었기에
독서를 하는데있어 특정한 분야에 한정을 두지 않았다



소니 고모는 비밀리에 고모부의 거대한 서재에서 책을 빌려 주었다
그의 방대한 책들 중 한번에 한권씩 조심스레...
그는 모든 분야의 걸작들과 다방면에 걸쳐 독서를 해왔으므로
거대한 서재는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종교에 관한 책들
바가바드 기타 나 우파니 샷드 같은...부다 크리슈나 마하비르 간디
카일 기브란 이나 타고르 같은 작가들...책들 하나같이 지루하고 뻔해 보였다

나는 모든 종류의 이상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한다
미래 죽음 생후 신비주의 종교들에 관한 어떤 것이든
특히 티벳 사람들과 라마들 그리고 승려가 되기 위한 불교적 삶의 방식
이러한 분야들은 나를 사로 잡았고 자석처럼 그것들에 끌렸다
매일밤 하늘과 맞닿는 옥상에서 읽어 내려갔다...나의 식물들과 함께
새벽 3시 4시까지...내 삶이 완성되어감과 충만함을 느낀다

학창시절 미술과 공예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였다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열정 그림을 그리는 것
혹 창조적 일 또는 예술에 폭빠진 화가나 예술가가 될지도 모른다
곧 미술의 역사와 위대한 예술가에 관한 책을 사기 시작했다
램브란트 모네 고갱 반고흐 세잔느 미켈란젤로 피카소 달리 두 참프
몇달에 걸쳐 읽은 그들의 삶과 작품들



아홉 달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지난 넉 달 동안 나는 옥상 위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놀라 깨어나 보면 온몸이 땀에 젖어있었다
점점 생생해져 가는 이 꿈들
긴 수염과 거부할 수 없는 끌리는 자석과 같은 눈을 가진 그 사람
이것이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나 기억 할 수 있는 전부다
많은 양의 도화지를 침대 옆에 놓아둔다
그리기 시작하는 눈과 수염...눈 그리고 수염
곧 내 방의 벽은 오십 장이 넘는 스케치들로 가득찬다
나를 마주하는 이 자석같은 눈들과 수염

학창시절 읽던 책들 중 하나 기탄잘리
나의 이상 라비드라나트 타고르가 지은책...늘 그의 삶과 일에 끌렸던 나
아마도 그의 얼굴을 보아온거라 짐작한다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 사업에 뛰어들기도 싫다
고모부 서재에서 고른 거의 모든 책들을 읽었다
고모는 음식 사먹는데 용돈을 쓰지않고 책과 화분들만 산다고 화를 내셨다
어쩔거나 나는 계속해서 외상으로 책을 샀고
결국 근처의 서점에 큰 빚을 지게 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고모는 다달이 빚을 갚아갈 것 이라며 일을 마무리 지었다

책을 읽고 싶어하는 의지가 완강하고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자 고모는 제안한다
주 서재 지하에 잠겨진 비밀서재의 책들을 읽어보는것이 어떠냐고
잠겨있는 캐비닛의 열쇠를 고모부로 부터 몰래 손에넣기란 쉬운일이 아니였다
그래서 내 독서벽을 채워줄 몇권의 잡지를 줄테니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했다

그 날 오후를 분명히 기억한다
4시쯤 일어났을 때 고모네로부터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하인
나의 간식과 한 주전자의 내 차를 가지고
나는 고모가 약속한 잡지 꾸러미를 요구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산야스 잡지를 집어든 바로 그 순간 표지속 그분의 얼굴
그 눈과 그 수염
마치 시간은 멈춰버린 듯
빨라진 심장박동
빙글 빙글 돌기 시작한 방안에 모든 것
나는 충격에 기절 할 것 같았다
와...대체 내가 무엇을 본거야
꿈이야...생시야

지난 녀 달 밤을 쫓아다니던 바로 그 눈이
내 앞에 놓인 잡지에서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
무수한 영상들이 스친다
수 많은 이미지들이 스친다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이었다
그 동안 찾아 해매던 것을 발견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분이 바로 내가 찾던...나의 삶...나의 삶의 의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완성된 퍼즐
그분을 위해 태어난 나...드디어 그를 찾았다

그 순간 나의 미래를 알 수 있었다
드디어 의미를 찾은 나의 경험들...그 모든 것 들이 이 탐색의 일부였던 것이다
버둥거림은 이제 그만...내 생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안다

눈물로 그의 사진에 공손히 절을 했다
깊은 애정을 느끼며 천천히 잡지의 첫 장을 넘겼다
다시 홍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한 모든 이미지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
이 모든 사람들조차도
마치 가 본 듯한 그 곳 조차고
그리고 첫 글귀를 읽는다

범상한 이 자는 도이다

여전한 충격속에 흐르는 기쁨의 눈물
울음과 떨림
멈춤 없는
그저 멈출 수 없는
텅 비고 가벼워지기 시작한 머리
그리고 시작된 압력은 점점 강해져 터질듯한 고통을 주었다
흔들리기 시작한 방
지그 재그
무슨 일이 일어 났던거야
지진이라도 났던거야

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혼수상태로 빠지고 있었고
일꾼에게 나를 잡아 달라고 집 앞 공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소리쳤다

머리는 폭발할 듯 했고 배는 고통에 타 들어 갔다
걸을 수가 없었고 떨고 있었다
천천히 일꾼의 부축으로 공원에 닿자
나는 잔디위에 쓰러져 누웠고 곧 진정을 찾았다

곧장 발코니로 달려가 다시 읽고 싶었지만
다시 찾아올지 모를 폭발할 듯한 두통과 복통으로 계단 오르기가 두려웠다
나는 바닥에 누워 대지를 느껴야 했다...이 모든 것이 진정되도록
윗 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산야스 잡지에 푹 빠져 들기 시작했다

한장 한장 내 심장으로 파고드는 바그완의 사진
기쁨의 눈물을 그리게 하는 이 모든 이미지들
단 세 네 권의 잡지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산야스 라는 단어...그분의 말라...그분의 산야신들...뿌네 아쉬람

어떻게하면 지금 당장 그 곳에 있을 수 있을까...어떻게 가야하지
이 밤이 지나기를...그리하여 뿌네에 닿는것 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
그날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고모부가 아침 8시 30분 출근하는걸 알고 있었고
그때까지 고모집 가기를 미루었다
고모는 한번도 나를 아침에 본 적이 없다...항상 오후 2시에 일어났으므로
나는 빨리 고모를 만나 돈을 얻어야 했다
집 근처 라즈요가 센터의 주소도 읽어 놓았다
그 날 당장 뿌네로 갈 수 있는 돈을 얻어야만 했다

고모는 아침에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아했다
수척한 내 모습...그러나 거기에 스며있는 평화로움
그녀는 그것을 바로 눈치 챌 수 있었다
더듬거리며 무슨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에게 살며시 고개를 숙여 표하는 그녀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던 것이다
내 생의 위대한 여행의 시작...그녀는 알아챘지만 걱정이 앞섰다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내 미래에 대해...내가 너무 어리다는 것에 대해
겨우 열 아홉의 나이에 부모님도 없이...돈도 없이...보장된 미래없이

고모는 내 성향이 걱정적이고 완고함을 알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굶기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가지않는 것이 어떠하냐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뿌네로 보내줄 돈이 없으니 몇 년 정도 기다리면서 자리를 잡고
그러는 동안 바그완 라즈니쉬에 대해 읽으면 어떠하냐고

나는 뿌네로 가야함이...산야스를 받아야함이 얼마나 시급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
라즈요가 센터로 향했다...거기엔 스와미지 움 프라카쉬 사라스와티라는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그에게 먼저 절을 올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배가 미친듯이 아팠으며
죽을 것만 같아 뿌네에 꼭 가야한다고 설명을 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돌아가서 잠을 푹 자고 밥도 먹고
천으로 머리를 감싸라고 했다...이 상태로 뿌네는 무리라며

나는 다시 고모에게가 제발 뿌네로 갈 돈을 마련해 달라 부탁했다
고모는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이며 몇 달동안 그 돈을 모아보겠다 하였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갈 수 있다며

일을 미루며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방편으로 하는 말임을
나는 눈치 챌 수 있었다...나이 든 사람들은 다 한 통속

텅 빈 주머니...오늘 안에 꼭 가고말겠다는 굳은 결심
나는 코넛플레이스에 있는 여행사 하리쉬 부드라이에게 달려갔다
그는 내 가족들에 대해 잘 알았지만 외상으로 표를 줄 수는 없다고 했다
나의 유일한 재산인 냉장고를 제안했다
새 냉장고...반값에...한 장의 편도 티켓과 얼마의 현금으로
그는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냉장고를 가져 오기 위한 작은 트럭을 보냈고
다음 날 출발하는 뿌나행 편도 티켓을 끊어 주었다
집으로 보내진 트럭을 막아선 하인...직접 가서 돈 얼마를 찢어주고
냉장고를 파는 사실을 고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했다

나는 다시 시내로 가 오렌지색 천을 사 나의 첫번째 승복을 만들었다
옷이 만들어져 가기를 침착히 기다리던 그 두 시간 동안
나의 영적인 인생이 시작 되었다
그 날 밤이 깊도록 나를 열 두권 산야스 잡지에 쏟아 부었다
갑자기 머리가 찌를 듯 아파왔고 배가 쓰리기 시작했다
위로 아래로 마치 요요 같이
밤 새도록 강해져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내면의 압력을
무언가가 그들의 조화를 돕고자 애를 썼다

다음날 아침 곧 뿌네에 있을수 있다는 사실에 하늘을 날을 듯 했다
구름이 끼기 시작한 하늘...내려오는 빗 줄기
그 구름들 사이로 비추는 햇빛...와 이것은 꿈이겠지
가득한 주머니로 앉은 택시
천국으로 가는 길

뿌나 1981년 2월 천국에 도착
오렌지 승복을 입고 즉시 아쉬람으로 향한다
저녁이었다...나의 걸음이 아쉬람으로 향하는 길목에 섰다...세상에
얼굴에 기쁨과 축복을 머금은...놀랄만큼의 아름다운 수 많은 산야신들
거리는 그들로 가득 가득 차 있었다
솟구쳐 오르는 나의 에너지...이 모두의 일부가 되어 남은 삶을 살고 싶었다
복통이 진정 되고 두통이 마술같이 사라졌다...
남아있는건 입안 한가득 완전한 도취의 달콤함과
온몸을 휘감은 따스한 꿀 같음의 흐름...코를 간지럽히는 자스민의 향내뿐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양의 상태로 나는 주위를 떠 다니고 있다



방문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아쉬람 주위를 그저 걷고 또 걷고
아름다운 산야신들을 바라보며 밤 새 그 길을 걸었다
거리의 모퉁이 마다 춤을 추고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로 가득 했다
그리고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의 강연 테이프
그분의 신성한 목소리는 부드럽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산야신들은 모여앉아
흘러 나오는 감로수와 같은 그의 단어 하나 하나를 마셔대고 빠져들었다
그의 목소리 끝 숨자락 조차 놓치지 않으며

오...그분의 발 아래 세상 전체라도 가져다 놓을수만 있다면
이것은 겨우 시작일 뿐
나는 바그완이 세상 전체가 되는 것을 상상한다

만일 사람들이 오직 그의 마법적인 음성을 듣고 느끼고
이 장소 전체에 스며있는 신의 축복을 들이마시기 위해 여기에 온다면
대기는 신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고...이곳이야 말로 천국 그 자체이다
이들이 이 땅위의 가장 축복 받은 자들이다

나는 바그완 곁을 지켜온 산야신들을 부러움으로 바라본다
몇 년만 일찍 이곳에 올 수 있었더라면
그분의 발 아래 앉아있는 축복받은 이들
나는 왜 일찍 태어나지 못했을까...이곳에 좀 더 빨리 왔었어야 했는데

보이는 모든 이들과 사랑에 빠졌다...이곳에 존재함으로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에게 느껴지는 일치감
나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다

밤 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근처의 싸고 간소한 게스트 하우스를 찾았다
모기장이 쳐져있는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인 개방형 방
손바닥 만한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다
다른 곳은 다 만원이기도 했지만 가진 돈도 넉넉하지 않았다
10일 정도 머물 수 있는 돈과 산야스를 받을 만큼만
나는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을 만한 돈을 마련해야 했다
바그완으로 부터 산야스를 꼭 받아야만 한다
그분의 눈을 보고...곁으로 그리고 더 가까이
절을 올리고 그분의 발에 존경을 표하리라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생기로 가득찬 대기
이곳은 새로운 전체 우주이고 온통 흡수할 것 들뿐
사방에서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피부어 댄다
숨을 쉴 수가 없다...그의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어찌 숨을 쉬고있을까
헤어날 수 없는 행복한 충격



그 문이 없는 문에 도착한다
마침내...완전히 정지
나의 스승의 수행처로 향하는 바로 이 문
고요함으로 그 자리에서 깊은 절을 올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자체에 감사를

경비원들이 나를 가로막았다...여기에 왜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기가 막혔다...뭘 원하냐니...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는 산야스를 받고 내 남은 평생을 여기서 살길 원한다

이 모든 것에 압도당하여 입을 다물어 버린다
혀가 얼어버리고 할 말조차 잃었다
완전히 하얗게 질려 바보처럼 보였고
겨우 우물거리며 산야신이 되고자 왔노라 내뱉었다

나의 이름을 묻는다
여전히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라즈니쉬라 웅얼거렸다
그들은 마치 내가 열간이 인양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킬킬거렸고
다시 진짜 나의 이름이 라즈니쉬인지 계속해서 묻는다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을 요구하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 빈 손이라 했고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라즈니쉬가 맞음을 설명했다
그들은 나를 한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마침내 조용히 기다리는 나를 본 그들 중 한명이 크리슈나의 집으로 데려간다
아쉬람출입 허락을 결정할 사람을 만나기위해

문을 통과한다...그러자 사라지는 대지
나는 약 삼 미터 정도 대지로 부터 떠있다...날개로 미끄러지듯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내가 걷는 방법을
나는 문득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걸어 본적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무언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내 손안을 벗어나 조정할 수 없는 새로운 상태
크나 큰 축복으로 크리슈나 집을 향하여 천천히 계속하여 걸어간다

삼십분 앉혀져 있었을까...오렌지색 천으로 머리를 감싼 여자가 보인다
사람들이 드나 들며 그녀와 함께 앉곤 한다
산야스 잡지 속 그녀의 얼굴을 기억났다...그녀는 락쉬미
그녀는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그녀의 발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이들이 신성한 바그완의 여신들이다...축복받은 사람들

락쉬미는 나즈막히 나의 이름을 묻고 나는 철없는 아이처럼 라즈니쉬라 대답한다
나를 이곳이 쳐다보고는 결의 다른 산야신과 의논을 한 뒤
다시 나의 이름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는다
나의 아버지가 준 그 이름을 반복해서 대답한다
이번엔 성을 묻는다...집을 나온 후 더 이상 아버지의 성을 쓰지 않는다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바보 얼간이같이 보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내 자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순진하게 대답했기에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듯 미소 띄며 여기서 뭘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말할 기회를 기다렸던 나는 그녀의 발에 존경을 표할 수있게 허락해 달라 했고
부디 바그완으로 부터 하루 빨리 말라와 산야스를 받게 해 달라 간곡히 청했다
산야신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어떻게 해서든 남은 생을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온화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하루 전 바그완은 침묵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다이내믹 명상과 쿤달리니 명상을 한달 동안 권했고
그러는 동안 나의 성장을 지켜보겠노라며
그런후 산야스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 했다



사실 한 달 동안이나 여기서 지낼만한 돈은 없으나
매일 성실히 명상을 할 것이고 돈을 들고 다시 돌아올테니
부디 몇 일안에 말라와 산야스를 받게 해달라 간청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테니 명상을 시작하라 권고했고
그녀의 승락이 떨어지자 출입권을 살 수있는 입구로 데려다 졌다

정문에서 출입권을 사는 동안 갑자기 락쉬미가 바그완이
침묵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순간 무너져내리는 심장
대체 무슨 의미인가...바그완을 만날 수 없다는 말 아닌가
죽을 것만 같았다...주위에 있는 몇 몇에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 생각에는 언제쯤 바그완이 침묵에서 나올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마치 이곳에 돌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모를수가 있냐는 눈으로
나의 질문에 황당해했다
나는 그저 바그완을 만나고 싶은 열정만으로 가득 찬 신참이었다
그냥 긴장 풀어...진정해...내버려 둬...그분만의 방식이 있어
곧 나오실꺼야...이런 냉정하고 태연한 사람들
그 즉시 나의 긴장감과 초조함을 보았다
나는 새로운 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그저 어울리고 태연하게
삶의 여유로움과 조화...상황이 흘러가는데로
나는 배우는 것이 빠른 아이였다

매일 아침 첫번째 나의 질문은 바그완이 나왔는가였다
언제 침묵에서 나올까...언제 산야스와 말라를 받을 수 있을까

매일 두 세번씩 수 천개의 바늘이 머리를 찔러 댄다
달콤한 고통...걷는동안 떠다닌다...쿤달리니 명상을 무척 좋아한다
이는 어찌하여 찌릿 찌릿한 고통을 정돈 시켜주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취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 본다는 것을 곧 눈치채었다
이는 미끄러지듯 느리게 걷는 나의 걸음과 연관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다가와 포옹을 해주었고
또 다른 이들은 수근거리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너무 이상한 일이었다
그저 황홀함 속에 순수함 그 자체로 모든 이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사랑했다...사랑 그 자체인 대기
깨달은 자의 대지에 존경을 표하며 그 위를 부드럽고 암전하게 걸었다
바그완이 대기에 식물들에 나무들에 그리고 대지 그 자체에 스며있는 듯 했다
이 곳은 그의 절...대지는 그의 심장이며 대기는 그의 사랑이었다
나의 발걸음에 더욱 더 민감해져 갔다

적어도 이 주가 흘렀고 바그완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나는 아쉬람의 대기속으로 거대하며 나무만큼 높이 자라났으나
나의 심장은 그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매일밤 운 좋은 내일을 빌며 눈물을 흘린다



결국 오지 않은 그 내일

부다 홀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산야신들에게 공표가 있었다
바그완이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기쁘냐고
모든 이들에게서 쏟아져 나온 요란한 환호...이것은 비밀이었다
다음날 바그완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며
미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앞이 캄캄했다...멈출 수 없는 눈물
바그완은 더 이상 이 아름다운 오아시스 뿌네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생기넘치고 절정을 치닫는 이 곳
갑작스런 떠남...모든 산야신들에게 새로운 시작
그들은 미국으로 가기위해 가진 것들을 팔러 뛰어다니고 있다

다시 충격에 속에 남겨진 나...울고있는 가슴
지출을 재정비 해야 했다
여권을 얻고...미국 비자를 얻고
가진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바그완이있는 미국으로 가야했다
무엇을 해서든지 나는 그렇게 하고야 말 것 이다

돈이 없었으므로 삼등급 기차를 타고 델리로 향했다
새로운 문제를 안은 채
일자리를 잡고 미국으로 갈 돈을 벌어야 한다
여권과 불가능하다는 미국 비자를 손에 넣기 위해

돌아온 이 곳 델리...내가 그리워했던 단 한가지 나의 화분들이었다



내가 처음 한일은 나무 공예점에 가는 일이었다
뿌나의 말라와 똑같이 나무 사진케이스를 만들고 말라 구슬을 구하고
바그완의 흑백사진을 자르고
로디정원에 있는 나무에 내 산야스를 두었다

바그완의 발이 그려진 사진을 사 매일밤 나의 말라를 그 아래 둔다
나의 머리위에는 바그완의 발과 말라가 놓여있다
그분의 발 아래서 편안히 잠이 든다
매일 아침 마치 그분이 산야스를 주는 듯
목에 조용히 말라를 걸고 세번 절을 올린다

스승의 발아래 바치는 절

공동체의 발아래 바치는 절

궁극적 진리의 발아래 바치는 절

이것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을 그리는 방법이다

고모를 만나러 간다...그녀는 내가 냉장고를 팔아치운 일에 화가 잔뜩 나있었다
시작된 여름에 나의 옥상 단칸방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고모가 준비해 줄 음식들은 상할 것이다

내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과를 했고 그녀의 어깨에 기대 울음을 터트렸다
미국으로 갈 돈을 벌어야 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녀는 돈을 벌고자 하는 나의 열정에 깜짝 놀라며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 직장파 일의 가치를 알게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캘커타에 있는 조진달 삼촌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삼촌은 그의 텔리 사무실에 근무할 정직하고 믿을만한 매니저가 필요했고
만약 내가 일을 잘 하기만 한다면 임금을 인상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1600루피의 월급과 나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기로 하고 나를 고용했다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
오로지 내가 벌어야 하는 금액만을 생각하며
많은 돈이드는 여권발급
인도사람에게 까다로운 절차의 미국비자
따로 모아야 하는 오리건 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
나는 바그완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가문의 권력과 영향력 안에 있었다
내 몫을 벌기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 또한 배워야 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다...돈이 필요할 뿐

라즈요가센터에서 한번에 3권정도의 바그완 책을 빌렸다
낮에는 일을 하고....밤에는 그의 책을 읽고
나는 이 열 달 동안 적어도 200권 가량의 바그완의 책을 읽었을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내가 그들 서재에 있는 책들을 몽땅 읽었다고했다

나는 결코 무언가를 배우거나 해부하기 위해 책을 읽지않는다
그분을 읽는 것은 순결한 시 그 자체...완전한 축복
마치 그분이 이곳에 존재하기라도 한듯
단어 속에서 숨결을 행간에서 침묵을 느낄수 있었다
그의 모든 말들속으로
단어속 침묵이 전달하고 있는 진정한 메세지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엇을 읽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를 감싸고 있는 침묵의 울려퍼짐
그 계속되는 리듬과 흐름...그것은 진실의 고리이다
나의 존재는 그분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풍성해져 갔다
아득한 거리임에도 그분과 점점 가까워 짐을 느끼기 시작했다
뿌내에 갓있음에도 실제로 보지못하고 온것이
애타는 불꽃으로 남아 그분을 더욱 탐구하게 했다
내가 읽었던 모든 위대한 사랑이야기들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달콤함과 순박함을 엿볼수 있던

나는 처음으로 스승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열정에 타 들어가고 소비되는 것
불나방이 불을 갈망하듯

나의 가치를 증명해 감에 따라 회사에서 책임은 중요해졌다
판매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관리체제에 대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사무실은 곧 여덟 단계의 판매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삼촌은 이것에 매우 만족해 하였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나를 더 경험할 수록
나를 손에 넣으려는 삼촌...월급을 3500루피까지 올려주었고
회사의 모든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어찌된 일인지 그 몇 달 동안 할아버지 역시 무척 만족스러워하면서
나에게 돈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주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삼촌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했다
내가 고수입을 벌어들인다는 서류와
유망한 회사로부터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
서류에 합당한 집 주소...몇몇 회사의 서류들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말이다

여권을 만드는 데에만 여섯 달이 걸렸다
힘든 부분은 여기서 부터다...미국 비자
여행사에서는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했다
어느 한 곳 여행해 본 적 없는 인도인...깨끗한 여권
고작 열 아홉의 나이....불가능한 비자

이때가 바로 내 인생의 격언을 만들어낸 때이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라즈니쉬에 한해서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 삼촌의 특별 허가를 얻어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준비했다
어머니의 명성과 아버지 사업의 경황이 언급되었고
월급은 16000루피로 기재되었다
가족 사업의 파트너로써 업무 영역은 넓어졌고
나의 개인 신상 명세서는 극도로 부풀려졌다
많은 양의 저축 액이 나의 이름으로 표시되었고
타이에 들러 휴가를 지내고 미국으로 갈 일등석 티켓을 손에 쥐었다
가장 좋은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값비싼 서류 가방을 들고서 미국 비자부에 섰다
유명하고 부자인 나의 부모님이 휴가로 보내주기로 약속한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내게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의향인지 물었을 때
그저 외국으로 자주 여행할 계획일 뿐이고
어디 내가 하인처럼 보이냐 응수했다
그걸로 충분했다...난처해하던 면접관 여자
미국식답다...겉모습으로 판단해 버리기

1982년 1월...드디어 갖게된 첫 삼개월 미국 출입국 자유비자
십개월 간의 그 노력이 드디어 성과를 이룬다

축제를...손안에 든 티켓
나의 미국 비자...800달러

바그완 내가 갑니다

나의 미국비자에 대해 내기를 했던 여행사 직원이 말한다
라즈닉쉬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고

스무살...세계로의 첫 여행
도착한 방콕
팻 풍의 밤거리 문화에 노출된 것은 당연히 처음이었다
밤거리로 유행을 앞서가는 사람들...한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자유로이 춤을 추고 마셔대는 사람들
이런 광경을 구경하기는 좋았지만
부끄럽고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기분이었다
물 밖의 물고기
가진것은 800달러
게스트 하우스로 돌아갔다
방콕에서의 삼일 밤

도중 하차지인 도쿄에서의 하루밤
12월 31일...새해 전날
호기심에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비쌌다
항공사는 나리타의 근사한 호텔을 잡아 주었다
그들은 옥상 바에서 샴페인을 모두에게 제공했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다는걸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잠을 청했다

로스엔젤레스로 향하는 아침 비행기
날짜 변경선을 넘어 날아간다

또 다시 맞는 새해...좋은 징후인가
두번의 새해축하

미국땅에 대 딛은 첫 발걸음...너무도 자연스러움에 스스로 놀랐고
20살에 미국에 도착한다는 것이 아무런 흥분을 주지 못했다
로스엔젤레스의 그 광활함에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당황스러웠다
오로지 차들과 고속도로만이 가득한 이 도시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이곳은 나에게 외계 도시였다
정말 끔찍했고 보이는 모든것에 단절감을 느꼈다

샌디에고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있었다
미국에서 도움을 주고 오리곤으로 가게끔 해줄 친구

그레이 하운드를 타고 샌디에고에 도착했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도시로부터 제법 접근이 쉬운 해변가
해안 산책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친구는 오리곤으로 갈 방법을 알아봐주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았고
곧 아파트 지출을 분담할 단지 누군가가 필요했던걸 알 수 있었다
그 지출로 내가 갖고 있던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으므로

오리곤으로 전화를 했다
그들은 내가 무슨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인으로서 얼마나 머물도록 허락되었는지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짜고짜 묻기 시작했다
그곳 공동체에서 살기 위해서는 50,000 달러가 필요하다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차갑고 거리감 느껴지는 사람들...실행되지 않으리란 예감의 오리곤 여행
나는 공동체와의 단절을 느꼈다

내가 순진하고 바보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세상과 돈의 가치에 대한 무지
나는 미국 문화와 이 환경에 이미 질린 상태였다
채식주의자가 먹을 것이라곤 없는
나의 껍질 안으로 움츠러 들었고 가능한 한 빨리 여기를 떠날 수 있길 원했다
음식과 생활 그리고 여행에 드는 경비에 관해 배웠던 샌디에고에서의 두 달
손에 닿지 않는 오리곤
원치 않는 불법체류와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는 잃게되는 모든 가능성
인도로 돌아 갔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해 다시 돌아온다

일년이 걸렸다

이번엔 친척들과 의논해 시카고 근처에 사는 우샤 이모네로
바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나를 보살펴 주며 함께 지내기로 약속을 했다

일리노이주의 워키션에 있는 그녀의 두 모텔에서 일을 하게 해 주는 것과 함께
그렇게 하면 적어도 오리곤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다

공동체의 거주민이 되기 위한 돈은 감당할 수 없으므로

1983년 1월 9일 나는 뉴욕에 도착

우샤 이모는 친절했고 내가 일하는 단 한가지 이유를 이해했다

밤과 낮을 가리지않고 그녀의 모텔에서 일하여

석 달에 한번 오리곤으로 가기위한 돈을 모으기 위함임을

그녀의 구자라뜨 출신 남편은 내가 일만 하기를 원했고 그 사실을 곧 알아챈다

그는 청소부와 매니저를 해고하고

얼마 안있어 열 여섯 개의 방을 가진 모텔의 관리는 나의 독차지가 되었다

방과 화장실 청소 빨래 그리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완전한 한사람 쇼...한 시간의 휴식도 없이

옆친데 덮친 격으로 그 모텔은 근처 훈련소의 해군들이

자주 들리는 곳 이었다...항상 시끄럽고 취해있으며 다루기 힘든 그들은

늘 엉망진창으로 방을 뒤집어 놓았다

다시 청소하고 다음을 위해 준비하기 바쁘고

취한 또 다른 해군은 다시 어질기 바쁘고 그러면 다시 청소하고 다시

때로는 영하 30도의 얼어붙는 새벽 2시에도 청소를 해야 했다

나는 그들이 축제기간인 10일 동안 오리곤에 가도록

허락하는 한 불만 없이 만족해 했다

내가 가진 첫번째 기회인 7월의 축제에 전화를걸어 준비를했다

이에대해 이모부는 나의 휴가동안 모텔은 누가 관리하냐며

언성높이며 분개했다

한달에 오직 300달러씩 쳐 주기로 했던 약속된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는 그가 주는 돈으로 섹스 구루 바그완이 있는
오리곤으로 당장 달려가 그 돈을 모두 낭비하고 말 것 이라했다
이 모든것들이 너무했고 감당할 수 없었다...짐을 싸고 시카고를 떠났다
뉴욕에 있는 다른 삼촌을 만나기 위해
이모가 나를 황급히 쫓아 나오며 녀 달 동안의 월급으로 800달러를 쥐어 주었다
이모부의 그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그는 언제나 돈을 적게 벌며 열심이 일하는
최고의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내쳐버린다고

오리곤에 갈 운이 아니었다

다시 그레이 하운드를 타고뉴욕에 도착했다
으리으리한 맨하탄 아파트에 있는 비재이 삼촌과 키키숙모
그들은 나에게 지극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고 아마도
나의 모든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알아 들어준 첫 번째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직업을 권고하며
장래를 산야신으로 단정짓기 전 어른이 되라 하였다

삼촌은 뉴욕 오브로이 그룹의 부사장이었고
내가 무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인도로 가 텔리에서 일을 하도록 준비해 주고 있었다

그들에게 런던으로 가야한다고 했다...유명하고 부자 삼촌이 있는
그가 나에게 일자리를 줄 지고 모른다며

그들은 친절하게도 런던행 비행기 티켓을 사 주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실지로 무언가를 받았다
나는 반드시 갚겠다 약속했고...몇 년 뒤에야 마침내 그리 할 수 있었다

런던 1983년 5월

런던의 백만장자 삼촌 수라지 폴은 지금은 바쁘니
삼 주 뒤에 다시 전화해 비서와 약속을 잡으라 말한다





런던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인도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는 나를 도울 수 있어 무척 기뻐했다...그 스스로도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최근에 이혼을 했고...항상 여행중 이며...집은 아수라장
그의 개인 의류사업으로 팔아야 할 엄청난 양의 의류 재고들로
나는 그의 계획에 완벽하게 어울렸고 나에게도 이상적으로 들어 맞았다

그의 집을 청소하고...어지러운 사무실을 정돈했다
의류를 팔기 시작한지 몇 주 만에 재고들은 말끔히 정리되었고
내가 판매와 개인회사 운영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
친구는 무척이나 즐거워 했고 우리는 이상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다
결과를 본 친구는 관대했다
나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00 파운드를 벌고 있었고
런던과 의류 사업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금적 공황의 끝에 보이기 시작하는 빛
생산 공장과 인도수출회사를 경영하기위해
런던 가게를 청산해야 하는 친구...연이어 터지던 운은 끝이난다

지금 런던에서 일 년 정도 지내고 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값진 경험을 했다
그리하여 판매목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돈버는 것이 불법이었으므로
어머니의 사촌이름으로 판매목적 설립법인을 개설하고
고유의 상표를 단 디자인을 런던으로의 수입하기 시작했다
나의 회사는 여성을 위한 이브닝 드레스를 팔았다
레네이라는 상표를 단 나의 디자인...인도에서 생산되었다
그리고 곧 하비 니콜스의 크리스마스 진열장에도
셀프리쥬즈 디킨스 그리고 존즈에도 나의 물건은 놓게 되었다
런던 본드거리의 나이트다리 그리고 옥스퍼드가에 있는 모든 잘 나가는 매장에서
금속 편으로 장식한 이브닝 드레스가 히트를 치게 되었다

나는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명성을 얻었다
내 디자인은 영똥하고도 현대적이며 저렴한 가격대였다
첫 출자금과 약 12번의 인도 왕복 비행기 티켓 값을 빼고도
25000 파운드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35000달러 점점 현실화 되어가는 오리곤의 꿈
50000달러만 있으면 나도 거주민이 될 수 있었다

약 2년간 런던에서 지냈고 인생은 아름다웠다
매일 아침 일어나 그분의 발아래서 말라를 목에 걸고
스승의 발아래 바치는 절을 한다

유명한 국제 브랜드로부터 이태리의 밀란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들의 제품 개발을 돕고 인도로부터 의류 주선을 위해
이것이 돈을 벌기 위한 마지막 여행이 되리라
그리고 인도를 다녀온 후 오리곤으로 가리라

나의 회사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촌에게 이를 알렸다
나의 레네이 상표를 거래하는 백화점들과의 연락처에서부터
수입서류...은행 계좌...촌장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간소하게 살며 오직 음식과 지하철을 타는데 돈을 썼을뿐
다른 지출은 전혀없었다
그의 집에 살며 방세를 주는 것 외에는

밀란으로부터 받은 주문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세관에 붙잡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영국에서 여행비자 약정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 말했다
순간 멍해졌고 곧 나의 사촌이 돈에 눈이 멀어
신고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그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루한 공무원 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익을 내는 내 사업에 언제나 흥미를 느껴 했었다

정신을 차리고 수습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회사는 인도의류 회사이고 영국으로 수출만을 하며
나의 사촌이 의류를 외상으로 수입한 뒤 갚지를 않아
미 결제금을 받으러 왔노라고 했다
세관 직원은 나의 이야기를 받아 들이고
평소의 3개월 비자 대신에 2주 입국 비자를 주었다

공항에서 사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실제로 런던에 돌아왔다는 것에 놀라는 눈치였다
그동안 그가 나를 속이려 해 왔다는 걸 알아챘다
결국 공항에 나타나지 않은 사촌...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핑계로

집은 잠겨있으니 이 삼일 후에나 만날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갔을 때는 나를 강제로 집에 침입하려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인도회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내가 밀란에 있던 그 주에
그가 인도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의 레네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공급자들과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비니콜스와 셸프리퀴즈의 소비상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나의 사촌이 그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며 나는 오직 디자이너였고
이미 해고되었다고 그들에게 연락을 전했다고 했다



다시 길거리에 나 앉는다

나의 피와 땀이 서린 35000달러를 불한당 같은 도둑에게 빼앗긴채
회사 전체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도로 돌아 왔고 내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두들 내가 산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았기에
내가 일거리를 주던 제작자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다
내 디자인은 모두 인기 상품이었다...지금쯤 나는 밀란과 뉴욕 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이태리 그리고 그리스와의 성공적인 협정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로부터 나에게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다
프리랜서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비를 받고
다섯 달 안에 나의 주 의류 수출업자들이 20000달러를
신용으로 나에게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나는 런던으로 갈 수 없었다...영국 이민국은 지금 민감해져 있었다
특별한 이브닝 드레스의 꿈은 사촌에게 빼앗겼고
그는 공무원 직을 구만 두고 내 회사를 경영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큰 시장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오리곤과 가까운 곳으로

인도에 있는 동안 미친자의 비망록을 읽었다
그 책은 바그완의 책들 중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책이 되었다
바그완이 경청자 없이 그저 그 자신에게 평이하게 말하고 있기에
다른 모든 책을 포괄하는 책이었다
그의 존재 그대로의 순수한 표현과 축복의 경험들
최소한 열 번은 읽었을 것이다
한번에 50권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유일한 선물로 전달한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책이란 책을 읽게 되었다
거기서 언급한 모든 책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델리에 있는 피커 딜리가 서점으로 갔다
주인장인 늙은 노인은 나중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코넛 프레이스에 있는 그의 작은 서점에 명작들을 수집하는걸 좋아했다
거의 모든 출판물로 가득 채운 서점은 그의 대단한 자부심이었다
그는 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책들을 찾아내 주었다
아흔권 정도의 목록을 정리한 뒤 또다른 독서 여행을 시작했다
미르다드 도덕경 크리스나무르띠 라마나 마하리쉬 라마크리슈나 구르디지프
리차드바흐 헤르만헤세 레오 톨스토이 그리고 폴 헵스의 책들

1985년 10월 25일 미국에 돌아온다

20000달러에 상당하는 의류 화물이 미국 세관에 도착했다
예약판매를 위한 최신 디자인 샘플을 운반하는 동안
의류에 대한 나의 지식과 신용으로
친구와 함께 수입 방법들 개척 하고 있었다
나는 두석달 안에 판매를 해 돈을 다시 찾을 것이다
모든 상품이 100퍼센트가 넘는 이익을 내며 팔렸다
이제는 간단한 일...그저 판매를 확장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것



1985년 10월 29일 아침을 기억한다
아침 9시 30분쯤 받은 전화 한 통
로스엔젤레스 패사디나에 있는 친척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일어나...TV를 켜봐...뉴스를 보라고

바그완이 체포되었다

공동체는 해산되었다

믿을수가 없어 응접실에 있는 TV를 켜다
뉴스에서 수갑이 채워진 바그완이 미소를 지으며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총을 겨눈 에프비아이 요원에 둘러쌓여

세상에 이런...악몽을 꾸는게 틀림없어

탁상 스탠드를 집어 TV를 후려친다
그 순간 누구든 죽여 버릴수도 있을만큼 격분했다



어떻게 감히 바그완에게 이런짓을
수갑과 몸을 감은 체인이라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가녀린 신성한 존재에 체인이라니



도대체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그들은 알거나 할까
도대체 그분의 신성한 자태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분의 우아함과
그분의 섬세함을 감은 체인
그분을 애워싼 층

미소짓는 바그완
환하고 우아하게
철저한 고요함과 생기를 띤 얼굴
빛나는 그의 두눈

그날 아침의 가장 첫번째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한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내 인생의 끝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오래곤도
쫓아갈 바그완도
돈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눈 앞을 막아선 벽
그리고 그분의 모습
체인과 수갑이 채워진



나는 불을 뿜어대는 용
어디든지 난폭한 것을 해대는
이 화를 분출할 곳을 찾아 헤매는
굳어 붙은 마음
도대체 어찌란 말인가



극도로 격정적인 화
나는 처음으로 눈을 감는다
그리고 침묵의 소리를 듣는다

너의 깨달음이 나에게 줄수 있는 전부이다

너의 화는 긍정적으로 승화 될 수 있다
초의 양끝 모두를 밝혀라

전체가 되라
내면 들어가라

너의 해탈이 나의 유일한 방패이다

바그완을 부터 받은 명료하고 강한 메세지

내면 들어가라...그저 내면으로

공동체로 전화한다
정확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앞으로 어찌될지 자신들도 모른다는 말뿐
공동체의 끝이 보이는듯 하다

나는 미국을 떠나 인도로 돌아가고 싶었다
미국이 싫었고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이 싫었다
공동체에게
내가 사랑하고 동경하는 나의 산야신들에게
살아있는 부처를 위한 이땅의 가장 고귀한 오아시스를
짓기위해 몽쳤던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까지

그들은 그 수많은 구도자들의 미래를 파괴한 것이다

시내에 있는 수입상에게 달려간다
도매상에게 원가로 모든 의류를 한번에 무더기로
팔 수 있는 일괄 지급거래를 알아봐 달라하여
외상 잔여분을 처리하고 인도회사로 돈을 갚은 후
미국을 떠난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걸린 이십 오일
그들의 돈을 갚고 나니 2000달러가 남았다



무거운 가슴을 안고 인도로 돌아왔다
눈앞의 과제에 열중한 채
가득 찬 화염...저항으로 가득 찬...안으로 양갓음 하리라 굳은 결심
화를 돌리자...안에서 태우고...완전히 소비시키자
할 수 있다...계몽은 나의 본능이다
그저 완전한 몰입과 진지한 수행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지금 이 때...나를 던지자

어디에서 나의 내면 탐구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히말라야 산맥 즈음이 아닐까
아님 네팔 포카라의 휴양지가 아닐까
여행사에 있는 친구 하리쉬 부드라즈를 찾아간다
그리고는 바그완과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깊은 명상을 시작할 예정이고
산속 어딘가 적절한 장소를 물색 중이니
카트만두로 가는 티켓을 구해달라 한다

이상하게도 그는 뿌나 아쉬람으로 가보기를 권했다
바그완의 미국행 뒤 아쉬람의 폐쇄를 들어던 나는 무척이나 놀랐다
그는 곁에 놓여진 가장 최근의 라즈니쉬 타임즈를 건내주며
친구 사달 구루다얄 싱이 항상 한권씩 보내준다 덧 붙였다
뿌나 아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십명의 산야신들로 다시 운영되고 있었다
완벽해 딱 내가 찾고 있던 거야...모든 명상이 일어나는 조용한 장소
뿌나행 편도 티켓을 부탁해 하리쉬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 같았다
사명을 완수 해야만 된다는 단호한 결의
전체가 되고 집중하길 원했다...무익한 친선 관계 없이...모두에게 침묵한 채
오로지 명상하기 위해 있을 것이고 그 외 것은 절대 없다...그결로 끝

모든 소유물을 뒤로 한 채 떠난다
단순한 바느질로 된 한벌의 오렌지 승복...곧고 간결한
한 켄레의 슬리퍼...신문에서 발췌한 수갑과 체인으로 묶여진 바그완의 사진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말라...그분의 발이 담긴 사진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용납 할 수 없다
단순해지고 단순하게 살며 집중만을...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반드시 계몽에 도달해야만 한다...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다시 뿌나 아쉬람의 문 없는 문에 선다
그리고 완전한 고요함...이것이 나의 스승 수행처로 가는 문이다
내가 이 아름다운 나무 문을 지날 때 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대기가 바뀌어간다
고양되는 대기...나는 또 다른 세계로 옮겨진다
바그완의 비밀 수련장...그분의 축복 받은 깨달은 자들의 대기

문 없는 문...그들은 다시 내가 누군지 왜 왔는지 물었다
이런식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란 말인가...언제나 의심스러움으로

딱딱하고 엄격해 보이는 스와미 스바브에게 보내졌다
그는 즉시 설교를 시작하며 나는 조화롭게 삶을 사는법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조르바 그 깨달은 자...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다
이 곳은 오직 일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며 일 이 곧 수행이고
그것만이 내가 여기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입을 허락 할수 없다며

나는 바그완의 책을 200권이 넘게 읽었고
조용히 앉아 오로지 명상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알렸다
일 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명상만이 나의 유일한 일이라 했다
그는 내가 일 이 곧 수행이라는 바그완의 전갈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성을 냈다...일하지않고 하는 명상은 게으름일 뿐이라며

그의 접근은 편향 되었고 나는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언급시키며
다른 이들과 거주지를 요구하지도 원치도 않는다 했다
그저 한달 치 출입권을 구입하고 음식값을 지불하며
명상만을 위해 오고...밤이 되면 다시 가고...아쉬람 밖에서 생활하리라며
그는 내가 아쉬람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다른 힘없는 인도인들과 달라
지배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1981년 뿌나에 왔을때 바그완으로 부터 말라는 커녕
공식적인 산야스도 받을수 없었다고 이야기 한다
슬퍼진 나는 손을 모아 그에게 산야스를 받게 해달라 간청했고
그는 부드러워지며 미소를 짓는다
마침내 내가 복종하여 어쨌든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함을 기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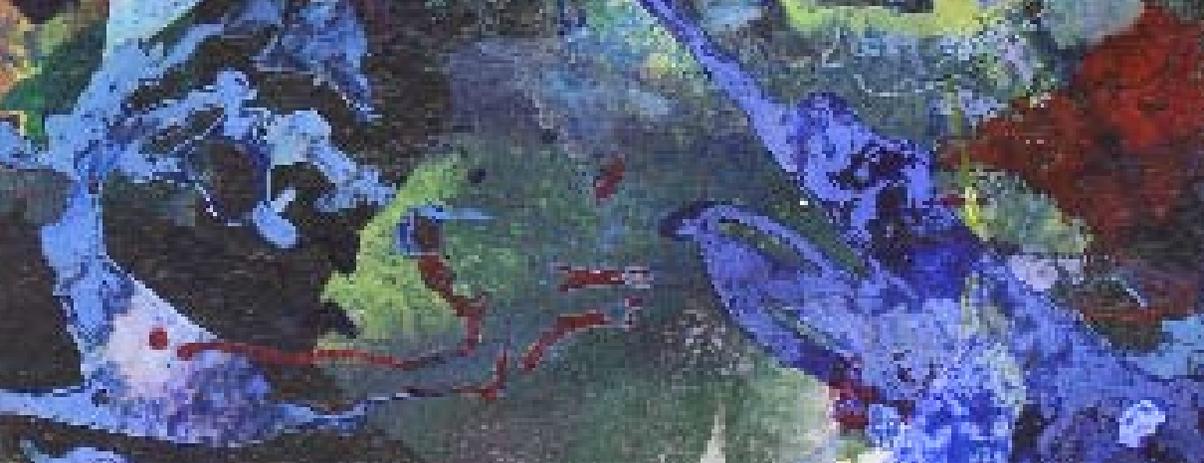
나의 경험 속에 그는 언제나 딱딱했다
하지만 사실 그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진실하며 바그완에 대한 꾸밈 없는 사랑을 지닌 것을 엿 볼수 있었다
오로지 산야신들의 명상수련과 혹 아쉬람에 그냥 놀러 오는건 아닌지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의 권위를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있었다

몇 일이 지난 뒤 내 이름이 문제로 제기 되었다
그때쯤 스와미 스와바브는 내가 정말로 순박하고 부드러우며
단순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내 이름 라즈니쉬가 나와 잘 어울린 다며
말라와 함께 산야스 이름 라즈니쉬 바르티 를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나를 라즈니쉬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전히 바그완의 존재로 짙은 대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존재로 진동하는 아쉬람 이곳은 다시 찾아온 나의 천국
방해 받지 않고 그곳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어디든지 가도록 허락 받았다
부다 그로브 뒤를 걸을 수도 있고 말이다

바그완이 머물렀던
성스러운 라우 트주의 문은 언제나 나의 가슴에 아로 새겨져 있었다
내가 이곳에 다 다를 때면 모든 것들이 멈춘다

라오 트주의 문이 열려 있었고 이는 나에게 충격이었다
나는 1981년 그 문 앞을 지나갔던 때 순간을 기억한다
점 점 낮춰지는 숨 그리고 고요히 멈추고 내면으로
나의 스승에게 깊은 절을...멈추는 시간
이것이 영원한 나의 방법...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 문의 기억만으로도 나는 고요해진다...내 수행처로 향하는 문



그 문이 열려 있다...하지만 걸어 들어갈 수가 없다...너무 거대한 일이다
내가 자격은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문을 걸어 들어가리라 생각한다
조용히 지나간다...정지된 끈계 선 문
가장깊은 통찰의 순간

지금까지는 그저 읽고 또 읽었다
바그완의 곁으로 가기 위한 발버둥...그를 볼 수있는 날을 꿈꾼다
수많은 감정들의 순간들...몇 일의 쿤달리니 명상...실제 정좌는 없다
이제 진실되고 힘든 부분은 실지로 명상을 하는 것이다

근처의 선더반 호텔로 간다
불친절한 경비원이 호텔은 문을 닫았고...방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일년 동안 지낼 방을 원하니 주인을 만나게 해 달라 간청한다
그때 차가 지나가고...주인 탈레나가 호텔로 들어온다
그를 찾아가 방을 줄 것을 요청하자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나같은 사람은 본적이 없다고한다...나만의 방식
웃으며 유명들이 사는 방이 하나 있는데
나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며
한 달 1200루피에 방을 하나 내어준다
나는 방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면 충분한...빈 방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정원...출입구를 따라 길게 뻗은 장미들
정원을 마주고 보고 있는 크고 편안한 배란다
아쉬움을 이웃하는 나의 호텔...나는 준비되었다

1986년 삼월 나는 이제 스물 네살이다
누구나 그러했을 법 영적인 목표를 정해야 했다
달성과 스스로를 위한 마감 일
나의 계몽을 위하여

바그완의 계몽일이 3월 21일 이라 들었다
심취하기에는 너무 빠듯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7월의 스승의 날은 어떨까
바그완에게 선물할 완벽한 날이다
제자는 오직 스스로의 계몽함 만을 스승에게 줄 수 있다
이리하여 나의 마감 일을 정한다...구십일

내가 읽어온 그의 책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한다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소위 말해 간단하고 쉬운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실행할 수 있고 진보의 척도로 삼을 만한 출발점을

모든 것을 머리 속으로 그려냈다
고체...액체...기체...계몽으로의 세 단계

한 달째 흔들고 고체의 기반을 녹여버리자
두 달째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흘러 액체가 되자
석 달째 섬세함을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빠져들어 증발하자

간단명료...복잡하게 만들지 말자...이 방법만 따르자
매일 과정을 지켜본다...만일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방법을 강화하자

아침에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다...항상 오후 1시 2시
이때가 딱 좋다...밤 늦도록 하는 명상으로 보충 할 수 있다
늘 새벽 3시까지 깨어있는 나

명백히도 다이나믹 명상은 내 목록에 없었다
증명할 수 있듯 내몸은 이미 매우 가냘팠다
그리고 흔들려 녹일만한 단단함을 어디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쿤달리니 명상을 진지하게 그리고 완전함으로 매일 임한다

쿤달리니의 시작
흔들기...완전함으로 그리하여 그 스스로 일어나도록
음악이 몸을 고조된 리듬속으로 이끈다...달콤함에 흠뻑 젖는다
춤...발을 댄 수가 없다
상체는 마치 키가 큰 대나무의 흐느적임과 같고
무언인가 나를 위로 끌어 올린다
정좌...바늘로 찌르는 듯한 정수리
강한 힘에 의해 정수리는 당겨지고 목이 늘어난다
눅기...죽은듯한 고요...사방이 하얗게 변한다...무 기억
종 치는 소리에...나는 돌아온다

정좌를 시작한다

곧 고요히 앉아 있기가 매우 힘들음을 깨달았다

마음의 동요는 많지 않았지만...몸의 여러 곳 으로부터 고통과 피로가
안정되지 않아 매우 아팠다

단 한번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본적이 없었다...불편함 그자체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것도 하지 못한다

십분마다 눈을 뜬다...그냥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

시간이 가질 않는다...십분조차 너무 길다

일어나 움직이려하고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몸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몽을 한단 말인가

나의 90일 목표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같이 느껴졌다

눈을 뜬다...바그완의 사진이 나를 응시한다...체인에 감겨있는 그
다시 감정이 격해진다...내 자신에게 화가 난 채 다시 눈을 감는다
결단력 없고 약해빠진 나...제대로 앉지도 못하다니

그리고 화가 나 몸에 대고 소리쳤다

그저 입 다물고 고통에 익숙해져

다른 방법도...다른 선택도 존재하지 않아

고통을 무시해...나를 훈련시켜...죽어야 한다면 그저 죽어

힘든 몸부림과의 전쟁이 나의 몸 과 마음을 엄습한다

패할때 마다 체인에 감겨 있는 바그완을 보기 위해 눈을 뜬다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눈을 감고 계속하는 잠수...깊이...깊이...깊이...깊이

이십일 즈음...오직 쿤달리니 명상

그리고 남은 날들은 집중적인 정좌

내가 앉아 있는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곧 짧게 느껴지는 한시간...그리고 세시간...그리고는 여섯시간

완벽한 양의 정좌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취감 같은 것도...어느 정도의 내면의 의지가 마음을 통제했다

의식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하며 정좌 인도한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저 눈을 감고 앉아 몸의 내부를 느끼고

안으로 부터 죄여움을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내면은 척추 속 쿤달리니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면은 배꼽 근처 깊숙히 존재하는가

또는 호흡을 압축한 상태로 내면으로 뛰어들어야 하는가

또는 호흡을 내면으로 뛰어 들기 위한 지시와 인도로 이용해야 하는가

수 많은 의문들...내면으로 들어가라...어디가 내면이란 말인가



이 의문들은 나를 끊임없이 따라붙는다
매일 밤을 여러가지 시도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강력한 것들
이 모든 탐구들의 매 순간들을 즐겼다
내면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더욱 더 깊게 더 넓은 범위로
가능한 이 모든 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과학자의 내면탐험이 필요하다
이 모든 내면경험의 다차원적 관점들
오 이 무슨 기쁨인가...절대적 기쁨...점점 흥미롭고 시간은 날개돋인 듯 하다
나는 아마도 많은 새로운 층을 향해 날고 있다...깊어지는 신비
더 이상 결과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나를 사로잡는 이 탐험

나의 단순한 이 방법이 먹히고 있다
쿤달리니의 대 개편...고체성의 쇄신
그리고 세 시간의 저녁 정좌
이제 평온한 저녁 정좌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밤으로 향하는 여섯 시간
매일 총 아홉 시간의 정좌

깨달은 자의 대지가 활동하고 있음이 어떻게 해서든 분명해지고
내가 경험하고있는 많은 휴면의 내부 공간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산 속에서 학교를 다니던 어릴 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나는 이것에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냈었다

매일 아홉 시간의 집중적인 정좌를 하고 있던 이 시기에
내가 열 한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잠 자는 시간에도 명상을 이어 가야만 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누우며 잠을 청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마치 정좌가 계속 이어지듯...그 상태를 유지하며 매일밤 잠에 든다
나는 곧 거대한 당김에 의해 아침에 일어나고
광대한 에너지장이 나를 감싸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의 방향 감각과 정좌에 대한 통제력을 얻고 난 후
고체성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좀 더 유동적이며 액체적으로 되었다...일상이 바뀌고있다
이전의 걸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시도하기 시작한다
더욱 느려지고...가볍고 떠 있는 걸음
어린 시절 경험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이전 가벼운 걸음의 경험들은 그 강도가 짙어진다
그리고도 미끄러지는 듯한 움직임쪽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아쉬람의 산야신들이 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전에는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부다 그루브 뒤를 매일 걷고 있다...나에게 쏠린 모두의 시선
특히 스와미 스와바브...언제나 나를 지켜보는 그
나에 대한 수근거림이 사람들로 부터 시작됨에 따라 나는 그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바그완과 꼭 닮은 나의 걸음 방식
바그완과 같은 이름 라즈니쉬
내가 바그완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
그의 눈에 경보등이 켜졌다

침묵...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 그들은 나를 병어리로 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그들은 나를 귀먹어리로 안다...말그대로
곧 그들은 내가 교만해 찻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내가 깨달은 자를 흉내낸다 한다...성인이체 하는 자

완전 열중한 나는 관심이 없다
너무나 짧은 밤과 낮...이 경험들에 깊이 잠겨있다
매일의 실가락은 다음날로 이끌어 간다
내앞으로 깊어지고 밝혀지는 이 자국을 따라가야만 한다

누군가의 이꿈을 느낄 수 있다...그래서 혼자가 아닌 나
내 위를 떠있는 나의 안내자...그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견지않고도 견고있는 나의 육체...누군가가 옮기고 있다
나로부터 조금의 노력없이 옮겨진다...미끄러짐이 시작되었다
수직의 빛줄기가 된 나...그것이 나를 움직인다
육체의 부재를 경험



느리게 걷는 것에 대한 경험들을 생각해 낸다
이 경험에 대해서는 무수한 페이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의 몸 전체의 움직임 느끼며 걷는다
눈 앞의 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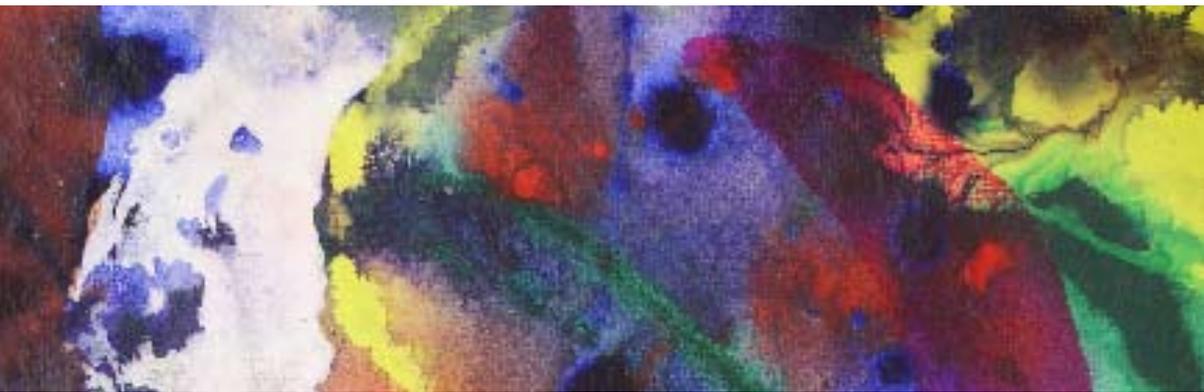
걸음에 완전한 집중
걸음의 단순한 움직임

몸이 늦춰짐으로 호흡 또한 늦춰진다
새로운 내면의 호흡이 시작된다

이는 신선한 향내로 달콤하며
이는 나의 머리를 위로 끌어당겨 생각들을 멈춘다
그저 나와 나의 걸음들
무념
그저 빈 공간

머리로 바늘이 뚫고 지나간다
고통스러움에도 여전한 황홀함

이는 나를 취하게 만든다
질어지는 대기
새로운 온화함과 함께
그리고 온 사방에서 나를 붙드는 것들



스와미 스와바브에게 불려갔다
그는 성인군자인체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라며 주의를 준다
내가 바그완을 흉내내며 계몽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참아 줄 수 없다며
자아를 버리고...위빠사나 명상은 그만 두라고
내가 미쳐가고 있거나 곧 미칠 것이라며
다른 이들처럼 아쉬람에서 일을 시작하라고 한다...평범하게

내가 부다 숲 뒤를 걷고 있을 때 그가 나를 노려보는걸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크리슈나 하우스의 사무실에선 산야신들의 잘못된 소문을 말하곤 했다
나렌다는 교활하고 계산적이다
마이뜨레야는 아쉬람의 정책 밖에서 맴돌며 입을 다문다
나에 대한 거대한 반대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매일 두 세시간 정도 부다 그루브 뒤를 걷는다
부드럽게 솟아오른 언덕...부드럽게 내려가는 언덕...완벽한 길

거대한 기둥이 몸을 통과하는 듯
그리고 같은 시각 경험하기 시작한
머리 위를 떠있는 큰 볼
머리 위에서 바람에 의해 굴러지고 있는 큰 볼

몸 아래에서 물결치는 커다란 기둥 같이
계속해서 이상한 움직임으로 걷고 있는 내발
발이 땅에 닿아 있음을 느낄 수 없다
그저 땅 위를 맴도는 감각만이

하나가 되는 두발
왼발을 움직이는 오른발과 오른발을 움직이는 왼발

이는 이상하고도 느린 동작
그러면서도 균형잡힌 느린 리듬의 동작
반드시 이의 속도를 따라야 한다

크고 가느다란 기둥은 아래에서 걷고 있는 몸을 흔든다
위로 떠있는 커다란 볼은 앞 뒤의 움직임을 균형 잡는다

아주 천천히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볼은 균형을 잃을 것이다
기둥이 규칙을 잃으면 나는 멈춰서야만 한다

곧 사무실로 스와미 스와바브의 피할 수 없는 부름이 있다
느리게 걷는 것을 그만 두라고 이미 충고했고 바그완이 다이내믹 명상과
수행으로서 일을 함께 하지않고서는 위빠사나를 금지했다고
나는 미쳐가고 있으니 이는 현실을 인식하게끔 도와줄 것 이라고 한다
조심하라...그러지 않으면 곧 추방 당 할 것이다
그에게 산야스를 받은 이상 내 에고를 헤아리는것 또한 그의 의무라 덧붙인다



실제로 나는 누구로 부터 산야스를 받았는지 몰았다
산야스를 건네줄 때 그 자신이 존재하여 주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건 그의 예고 일 뿐이라고
산야스를 대신 건네주는 그 누군가는 순결한 빈 대나무 같아야 하며
산야스가 이루어 지는 동안 비어있음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오직 바그완 만이 나에게 산야스를 줄 수 있으니
말라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나는 아쉬람 으로부터 출입금지 당했다

계속하여 더 깊은 걸음만을 수련했다
지금부터 밤에 호텔 정원을 걷기 시작한다
경험을 증폭시키시 위해 눈을 가리고서

정수리를 뚫고 지나가는 바늘 그리고 팽팽한 당김
걸음은 완벽한 리듬을 찾았다...너무나 완벽한 조화
하늘을 가로질러 걸린 외줄 타기를 하는것 같이
완벽한 균형...옆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 따위 없이
온전한 우아함...온전한 하모니...온전한 기쁨과 황홀경
그저 느리게 속도에 맞춰 걷는다...오르가즘의 정상에 도달하며

나를 둘러싼 모든 움직임은 느린 운행을 하기 시작한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
멈춘 대기...멈춘 호흡
주위의 모든 것이 얼어 붙는다
내 눈 앞에 직면한 크게 벌어진 구멍이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그 깊은 구멍으로 빠질 것이다

완전히 얼어 붙은 나
발 밑의 땅은 깊고 깊은 구멍을 연다
아래로 쳐다 볼 수가 없다...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돌진하는 소리가 나를 안으로 밀어넣는다...더 깊이 더 깊이
충격속에 움직임 없이 서있다...여전한 어둠속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그리고 갑작스런 빛의 폭발
주변의 모든 것이 빛을 발한다
수 만 개의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관 속으로 떨어졌나
아니면 하늘로 솟아 올랐나
길다란 관 모양을 한 빛의 기둥이 나를 위로 잡아준다
땅으로부터 떠 있는 발
나의 몸을 벗어난 중력

나는 곧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

그 불은 내 위에서 회전하는 듯하다
점 점 커져가는 듯
빛 기둥의 경험은 더욱 강해지며 더욱 땅으로 뿌리를 내린다
정적속으로 깊어 질수록 선명해지는 반영을 창조함을 알아차린다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이...아래의 나를 내려다 본다
사람들 위로 떠있는 빛의 불을 보기 시작했다
몇 몇 사람들로부터 뿔어져 나오는 광채

바그완이 여러 번 예기해 온것을 읽어왔다
네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내면의 의문으로 다시 들어간다

어디가 존재의 중심인가
수직의 축이 중심인가...배꼽의 중심인가
정수리 꼭대기의 중심 말인가
모든 내면의 통로로 빠져들기를 시도한다
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깊숙히 안을 드러다 본다

너무나 혼란스럽다
쿤달리나의 경험이 길다란 기둥의 수직의 빛이라면
수직이 중심인지 아니면 내 위로 떠있는 빛의 불이 나의 중심인지
어쨌든 언제나 나의 추측은 배꼽이 중심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육체가 아니라면...마음도 아니고...감정도 아니다
나는 단지 바라보는 목격자
만약 중심이 육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중심은 바깥에 있는 그 목격자에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만약 중심이 원의 한 부분이라면
구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고
그러므로 중심을 바로 그 구의 중심을 의미할 다름 아니다

내 걸음의 경험들은 본질적으로 이중적 이었다
길다란 수직 기둥의 빛
위에서 회전하며 떠있는 커다란 불
이 질문을 깊게 파헤친다
둘 다 맞는 것 같았다
수직 과 구
하지만 어느 것

곧 나의 중심으로서 구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이는 떨어져 있는 목격자 였으므로 더 정확해 보였다
육체마음의 감각적 경험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리고 시작되는 새로운 방법
머나먼 수평선으로부터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 보는 방법
주위 사람들은 백지상태의 나를 보기 시작한다
열정이 실종된 표정...생기 없고 죽은 듯한

이 죽은 듯한 얼굴에 더 하여
밤의 칙흑 같은 어두움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저 자석에 끌린 듯 어둠속의 밤으로 빠져든다
내 방 전체를 새까만 검정으로 완전히 어둡게 만든다
나는 검정을 아주 좋아한다
밤의 어둠속을 응시하던 그 밤을 기억한다
많은 빛이 대기에 존재하는 듯 하여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깊은 밤을 향해 앞기로 했다

이는 점점 강렬해 지고
더욱 더 자극적이었다...활기를 더해가는 이 모험
나는 그것에 빨려 들어갔다

한밤의 어둠으로의 정좌는 새롭게 열리는 출구를 보고
실제 육체의 내면은 어둠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는 살아 숨쉬고 흐르는 청색의 생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 생기는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질은 검정으로 둘러싸여 보호되어 지고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 나를 감싸오는 고요함을 느낀다
더욱더 살아 숨쉬고 질어지는 내면의 청 빛
나는 빛의 폭발 같은 것을 향해 다다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두 달이 지났다

나는 산야신 한 명을 통해 스와미 스와바브에게 사과했다
그의 반응은 멋졌고 미소를 띄며 나를 환영했다
그의 밝고 따듯한 면을 보자 그를 그 순간부터 사랑 할 수 밖에 없었다
산야스와 말라를 반납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 느끼고
사과하며 나의 말라를 다시 돌려줄 것을 부탁했다
이쯤에서 스와미 나렌다는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내가 새로운 이름 아캄 바르띠로 산야스를 받아야 한다며
스와바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이는 나에게 교훈을 주기위함이고
라즈니쉬라는 이름에 대한 예고를 떨어뜨려 주려함이라 했다

라즈니쉬란 이름에 대한 집착은 없었다
진심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받아들였다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스와미 아캄 바르띠가 되었지만
모두가 나를 오직 라즈니쉬라 불렀다

7월이 되었고 마감일이 촉박하게 다가왔다
반드시 스승의 날까지 계몽해야만 했다
이십일 남짓 남은 시간

나의 일상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모든 발걸음을 의식하며 걸었고
모든 손동작을 의식하며...서있을때도 앉아있을때도 깨어있음으로
모든 행위와 몸의 움직임은 나로인해 관찰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느린 동작의 사나이로 알려지게 되었다
느리게 걷는 남자
이는 나에게 쉽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이는 또한 나를 각성시키고 황홀경에 빠지게 했다
모든 움직임을 지켜봄이 기쁨을 선사했다...이것이 선사하는 그 우아함
바로 그 우아함의 경험은 압도적이었다
축복...이것은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명상적 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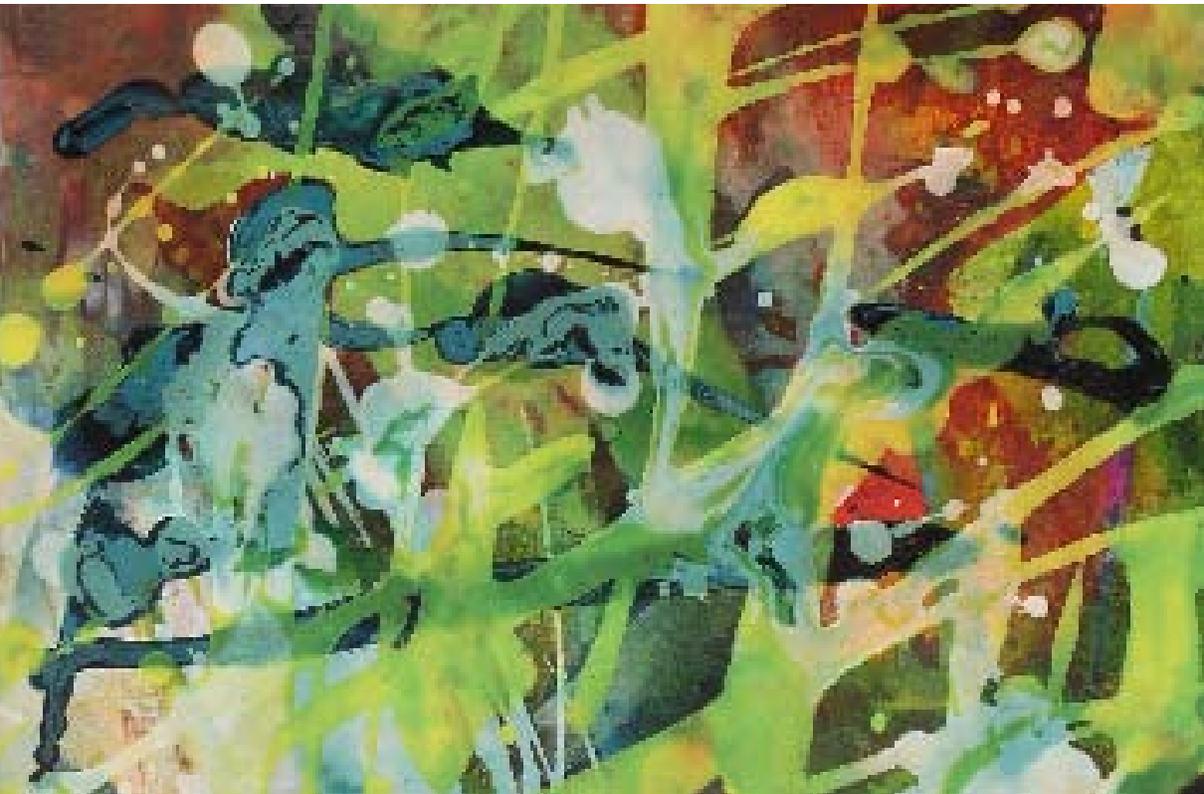
집중도는 증가했다

나는 노력하는데 있어 거의 미치광이 같았다
충분히 안으로 들어가지 않음에 스스로를 질책했고
하루에 아홉시간씩 오직 명상만을 하였다
잠을 자는 시간이 거기에 더해진다...열 아홉 시간
중요하지 않은 것에 5시간이나 소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종이에 열 두시간 명상을 해야한다 라고 적었다
아홉시간 취침...두시간 아침 샤워와 차 그리고 한시간의 저녁 식사

더 많은 문들을 두드려야만 한다
내 마음과 친숙하지 않은 더 많은 방법들로 시도하라

나의 밤 명상에 또 하나의 차원을 더 하기 위해
매일 밤 마치 죽은 듯 잠을 청한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깊고 깊은 상상속으로 빠진다
누군가는 내 몸을 태우려 옮겨 간다

나의 잠은 알아지고 대부분의 밤에 온건히 깨어 있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잠을 잘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다
완전히 기운 차고 편안한 상태...더 깊이 밀어 붙이기로 했다





많은 층의 경험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이해 같은 것을
이제 어떠한 더 큰 열림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어렴풋한 느낌
그럼에도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음을 확신했다
나에게 안심하라고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 무언가에

마감일까지의 십일

칠일 동안 움직임 전혀없는 침묵의 정좌를 결심한다



선더반 호텔의 작은 정원에는 자그만한 레몬 나무가 있다
눈에 띄지 않게 정좌하기에는 완벽한 곳
방해 될 만한 것이 전혀 존재않는

최종적인 칠일 간의 잠수를 시작했다
확고하고도 더욱 강렬한 집중

이 모든 것이 이 칠일 최후통첩과 함께 시작되었다

몸이 매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식은 땀...잠결에 고열로 인한 신음
다음 날은 몸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떨림 그리고 떨림...딱딱 마주치는 이
모든 것이 이상했다
하루는 강렬한 열...다른 날은 강렬한 추위
혹시 너무 밀어 붙였나
이대로 가다가는 아프기만 할 것 그만 밀어 붙이고 내버려 두기로 한다

몸속 무언가가 주저앉기 시작했다
투명한 기체들에 의해 둘러싸인 느낌
시원하면서도 영양을 주는...침묵의 안내자

강렬한 집중은 육체마음이 희망에 순응하게 만들었다
모든 희망과 욕망을 받쳐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놓아주었다

정지해 앓기...그저 정지해 앓기
이 밖의 공기들은 비어 있음이 아닌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깊은 에너지로 싸여 바깥쪽에서 나를 잡고 있고
어떤 깊은 에너지는 안쪽에서 나를 잡고 있다
아마도 그 둘이 만났다면...안과 밖은 하나가 될 것

그래서 완벽하게 멈춘다
그리고 고요함에 집중
숨 들이쉬고...내쉬고
틈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들이쉬고 틈...내쉬고 틈
나의 새로운 초점이된 이 틈

숨 쉬기를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한다
틈속의 긴 멈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어디론가 빠져들고 있는 듯한 느낌
틈 속 터널같은 곳 안으로 미끄러졌다
처음으로 느끼는 이것들에 인해 극도로 겁이 났다
나는 호흡 사이의 틈위 아주 복잡한 초점 안에 존재했다
호흡의 멈춤에 대한 공포는 여러 번 나를 실신 상태로 끌고 갔다
마치 청소기로 빨려 들어 가는 것 같은 터널 파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공포스럽기는 했지만 여전히 흥미로 왔다

정적이 점점 농축 되어감에 따라
정적의 팽창 또한 경험한다

새로운 경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의 몸에서 나기 시작한 자스민 향
너무나 압도적인 그향은 나를 황홀하게 만든다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
극도로 격렬하고 깊은 황홀함
최면과 같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나를 감싸도는 무거운 잠

나는 정해진 하루 일과에 대한 정신적 제어를 놓치고 있었다
너무나 압도적인 이 황홀감
이 축복 안에서 자체를 잃었다
더 이상의 일과는 없다
그저 이 최면상태에 부속되어 그것이 우세하게 내버려 둔다

소리에 대한 경험이 이상하게 변한다
마친 온 사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 속에 앉아 있었다
나를 중심으로...원을 그리며 퍼지는 잔물결처럼
더 경험할 수록 더욱 더 침묵을 알아차리게 된다

나를 둘러싼 잔물결...귀를 멍멍하게 만들고 있다
깊어진 침묵...흙 소리 안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었다
마치 수 많은 벌들이 머리 속을 웅웅 거리는 듯
이는 때때로 너무 시끄러워...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일 이라고는 없었다

팽창하기 시작한 나의 촉감
내가 앉아있는 바위는 마치 거의 깃털같았고
손은 깃털 같은 촉감으로 생생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이제 항상 위를 쳐다보고 있다
눈썹 사이 그 지점은 최면상태에 있다
드릴 같이 힘으로 짓누르고 벤치 바이스 같이 이마를 움켜 죄어온다
아래를 쳐다 볼 수가 없다
항상 하늘을 향해 있는 눈
마치 무언가가 내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듯

나의 내적 감각들이 외부로 향하는 동안
그것들이 내부로도 향하여 움직임일 느낄 수 있다...융합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자라나는 예민함...더 이상 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증발하고 있었다

몸은 마치 풍선처럼 팽창하고 늘어나기 시작한다
공기의 흐름이 나와 융합되는 것을 느낀다

미지의 장소에서부터 그리고 온 사방에서
하늘 땅 잔디 나무 바위 그리고 공기로부터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라진 내 몸
나는 완전히 투명하고 저항력이 없었다

많은 층들이 갑자기 내 앞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이 경험들을 견뎌내고 통제하느라 무척 애쓰고 있다
수 많은 이 모든 경험들이 나에게로 쏟아 붓고 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장에 많은 것을 내 보내야 함을 느낀다
모든 것이 밖으로 빠져 나왔다
몸은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듯 했다

피부의 모든 땀구멍들은 몸 밖으로 무언가를 배출하기 시작한다
꿀 같이 짙은 것이 온 피부에서 흘러나온다
끈적 해진다...크림같은 몸...아기같이 부드럽다

큰 쿨달리니의 열림같은 것을 경험한다
하늘로 뻗쳐가는 수직 움직임의 거센 급류
머리는 갑작스런 압력을 받는다...갑자기 사라지는 압력
두개골 안의 누름은 아주 고통스럽다
속으로 울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든 멈췄으면 하는 기원으로
너무 엄청나다...제발 누군가가 이를 멈춰줬으면...나는 폭발하고 있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호흡은 깨끗해지고 훨씬 트여간다
몸 전체가 호흡을 하고 스며들고 있다
나는 숨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우산을 발견한다...이는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지를 앓는다
오른쪽으로 거칠게 움직였다
머리 위로 다시 가져오려 애를 쓰자...이번엔 왼쪽으로
우산을 내위로 둘 수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비가 쏟아져 내린다
이상하게도 내 머리 위에서 비가 갈라진다
나에게 내리지 않는 비
그 수직 급류의 힘이 강우를 나누고 있다
나는 마치 불가사의한 꿈속을 걷고 있다

나무들과 녹수는 환각제가 되었다
빛으로 가득차고 찬란함으로 차오르는 대기
빛 방울과 함께 춤을 추는 무지개 같은 색들
내가 보는 것들 마다 점점 더 밝아지고
온 사방으로 각기 다른 색들을 방사한다
변화의 신선함과 함께 모든 순간이 살아있다
내 감각의 경험들이 흡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
너무나 빠른 흐름
이 모두가 너무 컸고...너무 갑작스러웠다

처음으로 내 위를 덮치고 있는 크고 검은 무언가를 본다
사실상 너무나 겁을 먹고 있었다

아쉬람으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리고는 스와미 스와바브에게 몇 일만 아쉬람 안에 머물 수 있게
허락해 달라 간청한다

지금 이곳은 7월 축제 준비로 한창이다
사람들은 아쉬람 안의 숙박 시설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받아 들여지지 않은 나의 요청
그들은 내가 미칠 거라고 항상 경고를 해왔다며
나는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했다
스스로 해결해

스와미 마이트레야에게 간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며
잘 아는 스와미 나렌다에게 물어보아라 했다
나의 상태를 본 나렌드라는 어떤 식으로도 나와 관계되고 싶지 않지만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음식을 챙겨 먹고 머리를 덮는 것이
어떠냐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충고 한다
그에게 사의를 표하고 그의 충고를 따랐다

지난 몇 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쉬람의 음식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린다
손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다는 산야신들
취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나의 눈
나를 쳐다보는 어느 누구나 나의 눈에 시선이 고정된다
제 삼의 눈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한 산야신이 따라오며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게 뭐 없냐 했다
무엇이든 가져다 줄게... 무엇이든
고정된 그의 눈...최면의 상태...나의 공간안에 감금된 그
나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를 이 결합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가 공경어린 마음으로 나를 따라 다니자 쳐다보던 사람들은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선더반으로 돌아 갈 수 있을것 같다
어두운 길...더 이상 땅을 인식할 수 없다
허공에 있는 어두운 구멍으로 발걸음을 내 던진다
균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나의 왼편이 기울어 짐을...오른편이 기울어 짐을 느낀다
빛의 길다란 수직 광선이 나의 길잡이
열린 터널...쿤달리니가 뿌리를 풀었고 몇 백미터 높이의 하늘로 향한다
아쉬람의 나무들을 넘어서



이제 그 무엇도 이 경험을 멈출 수 없는 듯했다

심지어 호텔에도 들어설 수 없다
복도 입구에 들어서자 으스스함을 느낀다
그 길 전체를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멀찍이 열려있는 창문도 인식한다
몸은 정확히 복도 중앙으로 이끌려 간다
왼쪽으로 돌아야 할 지점에서 정확히 돈다...모두 그 스스로
어떠한 힘에 의해 중앙에 놓여짐을 알아차린다
어떠한 새로운 완벽함이 경험되어진다
오른손을 움직이면 왼손이 자연스레 따라가 화합하고
오른발이 왼발을 움직이며
상체의 움직임이 하체의 움직임을 균형잡는다
앞부분이 뒷부분을

완벽 그 자체
순수한 우아함의 동작들
우아함은 새로운 신성의 발견이다

머리를 덮은 것은 일시적으로 두개골의 찌름을 안정시켰지만
음식은 다시 새로운 에너지의 돌진을 가져왔다
밤 마다 폭발하는 머리
밤의 끝없는 버둥거림

기억으로는 오후 8시
한면의 나는 완전한 축복 속
다른 한면의 나는 완전한 고통 속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호텔로 들어갈 수 가없다

오늘밤은 정원의 레몬나무 아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갑작스런 변화들로 피곤하고 지쳐있다
나무 아래 앉아 위를 올려다 본다
내 위를 떠다니는 그 신비의 검은 홀은
이제 겨우 몇피트 위에서 방향중이다

나를 압도하는 강한 자스민향
이 모든 자극들이 나를 완전히 녹초로 만든다

나를 감싸는 암흑
그리고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끝없는 떨어짐

검은 구멍 속으로
블랙홀

이는 몇 시간 지속 되었을 것
그러나 곧 깨어났다
나는 볼 수 있다
빠져들었던 그 어떠한 것의
안 으로부터

여전히 계속되는 하강
하지만 부드럽고 완화된
부드러운 것털이 하강하듯
통과하는 터널

나는 새로운 우주를 보고 있다
모든 것이 빛
나를 스치는 수직선 경험들의 번쩍임
밀려오는 전생들이 보인다

찰나
몇 초
어찌된 일인지 모든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해 낼 수 있다
농축된 그리고 강렬한
모든 것이 6차원의 세계로 변해간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 모든것을 한번에
마치 현세마냥 모든것이 살아있으니
현세가 상상인냥 하다
부처와 함께한 나의 삶이 보인다
티벳 승려의 삶
보이는 눈 앞에 펼쳐지는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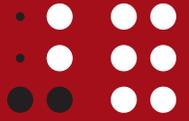
이 기억들과 살고있는 내 육체를 본다
내 몸이 이 기억들을 다시 살아내는 것을 본다
움직이고 풀어내며
부드럽게 이 경험들 속으로

몸은 신음하며 부드럽게 안으로 움직인다
근육들은 긴장을 풀고
이 모든 생들의 자물쇠를 푼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상들
살아있는 동물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
수영을 즐기는 물고기

대양에서





불멸의 시간이 지난 듯 하다

얼마나 더 오래 이것이 계속될지 모른다
블랙홀 안에서 잃어버리는 시간 감각들

블랙홀 안에서 무의식의 상태
내 위를 떠있는 거대한 존재에 대해 의식해 가고 있다

지금 막 내려와 나를 감싸고 있다
이것이 방문임을 나는 안다
내가 전에 알던 그 누군가로 부터



듣고 알아차린 그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나의 전생으로 부터

눈부시게 빛을 바라는 존재

가우트마 그 깨달은자
강림했다

나는 무력한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다
그저 무력하게 무의식의 상태

내부로 부터 틀림없이 보았다
나를 향한 그의 축복
나의 훌륭한 도착에 대한

그분의 축복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의 일을 계속해주길 기원한다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그분의 언어를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승고한 약속으로 가득 찬 그분의 언어
그분의 실현

하늘로 향해 당겨올려 짐을 느낀다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전해지는 각각의 표현들
그분의 존재의 완전무결함
그분의 존재의 힘
그분의 인류를 향한 약속

부다의 약속된 귀향
2500년 후
나는 그의 선택된 매개체
나는 알려질 것이다
메트레야
그
친구

빛과의 동화가 일어나고있다
내부로 부터 변함을 느끼는 나의 육체

허리가 넓어지고...강건해 지고
턱이 팽창하고...손이 커지고
손가락이 움직여 새로운 무드라로 표현한다
내 발은 넓어지고
내 몸은 인계를 받았다

여전히 반 혼수상태
깊은 층의 수술이 일어나고 있다
깊은 도취 속
나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
축복...축복...축복

거대한 빛의 폭발과 함께 깨어났다
마치 태양이 머리위로 내려 앉은 듯
그 곳에는 두개골이 없다
나의 정수리를 깨물고
쳐다 볼 수 없이 눈부신 빛이
머리 속으로 쏟아 부어짐이 보인다
나는 눈이 멀었다
완전히 눈이 멀었다

눈을 뜰 수가 없다
마치 돌덩이 같이 무거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손가락 하나 들 힘 조차 없이
나무 아래 부동으로 누워있다
하지만 나는 깨어있다

저 멀리에서 부터 옥상이 보인다...아쉬람의 나무들
정원 레몬나무 아래 누워있는 내가 보인다
제발 누군가 와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줬으면
내 몸은 바위 같다...무거운 바위...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일어날 수 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소망과 함께 기묘하게 내 몸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마치 수술 후처럼 고통과 무기력을 느낀다

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기억이 없다
단지 블랙홀로 떨어지던 기억
바다속 물고기에 대한 기억

스스로 어색함을 느껴함을 느낀다
변한 내몸을 알아보지 못한다
다르게 걷고...다르게 서고...내 손이 다르다
얼굴이 커지고 변했다
안과 밖으로 다름을 느낀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곧게 앉는 순간
거대한 소용돌이가 다시 나를 삼킨다
나를 침투하기 시작하는 빛

안돼...제발 다시는...충분해
높은 수직 빛의 기둥이 다시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거센 요동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느낀다
다시 그 안으로 빨려 든다
다시 떨어진다

안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
지난 밤 도달했던 그 지점임을 곧 알아차린다
터널속으로 원의 열림을 뚫어지게 응시한다
그 끝의 눈부신 빛
나는 배꼽 뒤 내부에 존재한다
나는 이제 몸을 떠난다
준비되었다
이는 반드시 끝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강
나는 지금 배꼽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겁이 난다
들어내려 애를 쓰는 나의 생각들
나는 틀린 문에 와 있다...반드시 배꼽으로 떠나야만 한다
내 앞에 있는 블랙홀은 아니다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한다
높은 수직 빛의 기둥을 흔들기 시작한다
앞 뒤로 움직이며
다시 이 블랙홀 안으로 빠져서는 안된다
의식을 유지해야만 한다
반드시 배꼽으로부터 몸을 떠나야 한다

앞 뒤로 흔들며 나의 의식을 깨워놓고 있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깨어있기 위한 큰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거센 발버둥거림
단단히 나를 붙잡고 있는 쿤달리니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두개골
두개골 안에서 가벼운 으깨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치명적으로 치닫고 있으며 몹시 위험하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되는 이 발버둥

마침내 무언가가 길을 연다...안정되는 쿤달리니

또 다른 존재가 내 위를 선회함을 인식한다
그리고도 또 하나가 더
내위로 세 개의 거대한 빛 덩어리

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들 모두는 나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기력증을 느낀다
아마도 이 모두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엄청났었나 보다
나에게로 그런 하강은 아직 무리였다
너무 허약했던 몸
준비되지 않은
의지는 강했지만 경험이 없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해야만 한다

부처가 연민과 이해로
다시 나를 축복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의 준비를 기다리겠다는 그의 말을 느낄 수 있다
평온한 미소
그리고 우아하게
그분의 위 다른 존재 속으로 스며든다

나는 깨어있으나 망연과 무아경 속이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일어나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곧장 확 트인 앞 뜰로 나간다
지난 몇 시간의 벅거림으로 완전히 지쳐있다
움직이고 숨을 쉬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열린 곳에서 걸으며 조화를 찾자

뜰로 걸어 나아가자 다시 위로 당겨지는 나
내 눈은 위를 치켜본다
구름 낀 하늘
구름이 갈라지고
파란 하늘은 폭발한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눈부신 은빛 하얀 터널

충격에 휩싸인다

가장 눈부신 빛의 불을 본다
내려오는 다이아몬드의 빛

손을 합장한 바그완
그윽한 미소를 머금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를 향한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와 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이 광경을 보고있음이 믿겨지지 않는다
신성한 천상의 장관
지상은 운행을 멈춘다

잔디에 엎드려 그분에게 절을 올린다
멈출 수 없이 흘러 내리는 눈물
위를 올려다 본다

웃으며 부드럽게 나를 달래주는 그분

터져버린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눈물을 훔쳐내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여전히 맴돌며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분

핑핑 쏟아지는 기쁨의 눈물
위를 다시 올려다 본다
웃으며 떠있는 그분

그분의 손가락이 우아하게 가리키는 내 옆의 붉은 장미
나는 천천히 열리는 장미의 봉우리를 본다

미소 지으며 그분이 말하길
니가 장미 꽃잎에 맺힌 그 이슬이다

너를 축복하노니
너는 집에 도착하였다

나는 너를 축하하노라

다이아몬드 처럼 반짝이는 그분의 눈
미소지으며 내 안 깊은 곳으로 바라보는 그분

그리고 천천히 터널로 올라간다

두손을 합장하고
파란 하늘 속으로

나는 계속해서 하늘을 응시한다
스승의 궁극적 신비가 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스승은 제자가 준비 되었을 때 나타난다

단번에 알아 차린다
나의 이 모든 시련을 그가 지켜보고 있었음을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한다
그리고 울고 다시 웃고
그리고 울고 다시 웃고

깊은 침묵이 내 심장으로 내려 앉는다
이해를 넘어선 평화로움

나는 알았다
나는 보았다

깨어난 선각자

날은 흐리고
대기는 안개가 자욱

활짝 핀 장미가 나를 본다
바람에 흩날리는 이의 향기

그 신비로운 장미



나는 축복속에 존재 한다...축복속의 나
온 주위를 적시는 축복의 소나기
이같은 엄청난 황홀함을 어떻게 혼자 다 담을수 있을까
이 어마한 축복으로 죽을 것만 같다...터져 나가는 심장

하늘로 부터 하강한 바그완을 보던 그 순간
그분 스스로를 드러냄으로...모든 것은 전달되었다

그것은 연금술이었고
드넓은 비약적 도약
완전히 새로운 케슈탈트가 내 의식으로 들어왔다

내가 읽어온 모든것이 명백해 졌다
증발해 버리는 모든 궁금증들...사라져버린 모든 그림자

내가 가지고 다니던 씬 없던 오래된 육체의 마음
경험의 새로운 동화속으로 모든 것이 녹아 내린다

관찰함으로써
육체의 마음은 이해하고 알아차린다
많은 층을 스며들어 통과한 이해의 빛

관찰함이 존재함이다

사라지는 구도자와 구도

보는 자가 있었다

우주와 함께 춤을 추고...바람과 함께 미소 짓고
아름다운 황홀경의 이 모든 존재물에게 부드럽게 속삭였다
빠짐없이 기뻐하는 이 모든 순간

그 짧은 찰나
존재의 또다른 면에 살고 있었다
우리모두가 존재의 다른 면들에 살고있음을 깨달았다

위대한 이해의 극치로부터 전해지는 간결한 말
그리고 그들이 알아채는 깊은 곳으로 부터
의미가 변화하고 다르게 이해를 했다



하고자 하는 말조차 어떻게 표현 해야할지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

그것은 말해져야 한다
침묵을 지킬 수 없다
그 침묵 역시 무의미하다

그것은 절대적 장엄함...아름다움...우아함...순수 사랑...빛
그것은 오르가슴 그리고 끝없는 하늘보다 방대한
그것은 모든 곳에 닿는다

진리는 모든곳에 있었다
내가 본 모든 본질들 속에 존재
공간 전체 그리고 그 빈 공간에도 충만한
모양에서 그리고 모양이 없는 것에도

와 이 무슨 기적인가...무슨 기적
바다속의 물고기와 같은 인간
자신의 생명인 물을 눈치채지 못하는

진리는 열려 있는 하늘
이미 공개된 비밀은 보는 이들에게 숨겨져있다

무한한 기쁨

나는 집에 왔다
이것이 나의 우주
삶을 위한 진리를 찾았다
모든 방향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어왔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바그완에게 한 나의 약속을 지켰다

1986년 7월 스승의날 축제
눈물이 어린 나의 두 눈

나는 침묵해야 한다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우주의 그 막대함을 흡수해야 한다
나는 침묵해야 한다
그 암시의 무한함을 이해하고 흡수해야 한다
진정되고 모든 것이 안으로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이상 앓을 있을 수가 없다...춤을 추고 싶다
대 발견의 어마한 기쁨을 퍼뜨린다
산야신들에게...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단 구십일 만의 이 도착
혁명의 불꽃이 될 것이다...그들 안의 불씨
매일 그들 사이를 걷고 있다...보통 사람처럼
내가 그들 역시 도착할 수 있다는 자극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들 역시 곧 이 오르가슴의 황홀경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내 심장은 그들에 닿았다...자격있는 그들 모두
각각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에 자격이 있다

나는 새로운 우아함의 미끄러짐으로 문없는 문을 걸어나간다
축제의 스승의날...그들의 축제에 함께하고 싶다
그들과 바그완을 축하

스승의 발아래 올리는 절
공동체의 발아래 올리는 절
궁극적 진리의 발아래 올리는 절





모두들 창트쭈 홀에 있다...라우쭈 문으로 들어간다...어머한 기쁨으로
이제 바그완이 사는 이 신성한 곳의 일부분 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홀날리고 있는 비...마술의 대기...넘쳐 흐르는 새로운 에너지
축제가 열리는 창트쭈로 차분히 걸어들어 간다
키르판에 맞춰 춤을 추고 또 춘다 바그완의 부르는 노래로 가득찬 대기

라우쭈...이 지구상의 천국...이 연꽃 천국

언젠가는 이와 꼭 같은 침실을 가질 것이라 소원했었다
정원으로 둘러 싸인 큰 원의 공간
황홀함으로 빠져든다

나에게 꽃히는 많은 시선
산야신들은 나를 감싸는 새로운 존재를 느낀다
완전한 자유로 춤을 추는 나에게 화가 난 듯한 그들
그들은 내가 춤을 추는 것을 본적이 없다
늘 심각하게 느리게 걸으며
앞의 발걸음만을 주시하던 나
그들의 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꺾속말을 나누며 내 근처에 오길 두려워했다

늘 이방인 이었던 나
천천히 나를 묵인하며 익숙해 진 그들
비웃음과 나의 느린걸음을 가지고 놀면서

그러나 지금은 더한 이방인...이것은 뭔가 색다르다
웃음을 던지는 그들
그들의 농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공간과 맞질 않는다
이제 나의 계몽은 비아냥거리로 바뀌었다

완전한 축복에 할말을 잃었다
그러나 나의 존재...나의 행동
떠다니는 나의 걸음...퐁기는 향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바그완을 연상시켰다



그들은 내가 깨달은 자로 착각 한다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바그완을 흉내 낸다고

놀랍다...그들 모두는 무슨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 라도 되었나
이렇게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 들이라고 떠벌인다

이것은 닥쳐올 더 추한 행동들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것이 내가 내딛은 진짜 세상

영적 자아들의 세상...힘자랑
경쟁...판단...질투...박해

어느 누구도 내 근처에 올 생각조차 않는다
눈을 감고...무슨일이 일어 났는지 나에게 물어봐
인간답게...구도자들 답게
그들은 스스로 모든것을 결정해 버린다
판사...배심원...재판없이 유죄...처벌
그리고 그들의 판결은 알린다...모두에게

진리를 찾는 아주 훌륭한 구도자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갑자기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었다
쉬지않고 나에게 와 나의 에고를 논하고
나의 병...그리고 치료법...내 에고를 버리라고 까지

내가 묻지 않았는데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잣대는 나를 시험한다
내 주위에는 온통 스승들 뿐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사실 그들이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이것은 뻔히 보이는 그들의 질투
이것들과 침묵의 연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살아가는 것을 볼 수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나서든
좋은 나쁜든...옳든 그르든
그들 모두는 진리를 찾는다



진리는 모든 삶의 원천

탄생 죽음 그리고 다시 탄생
발전함으로 나아간다
진리 그 속으로
원은 완성된다

이 오르가슴의 우주
그 높은 자각으로의 발전이
스스로 볼 수 있다...스스로 인지한다

나는 이 깨달음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닿았으면 했다

드 넓은 바그완의 존재를 본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그저 아끼 같다...갓 태어난

내가 막 깨달음을 경험했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더 남아있다...훨씬 더

나로써는 제자의 존재에서
헌신하는 제자로 한걸음 나아감 이었다

헌신하는 제자로써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아 보았을때...나의 눈은 떠졌다

눈을 뜬 그의 진정한 헌신자가 된다
그분의 깊은 뜻을 안다
항상 그분을 본다

내 깨달음의 경험을 그분의 발아래 놓는다

더 깊이 가야할 것이다...그 경험을 깊히고 넓히고

1952년 21살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은 바그완
그러나 침묵을 지키고 1970년 되어서야 산야스 일을 시작했다
모든 여행을 마치는데 18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아차리야에서 바그완으로
신비론자에서 스승으로

아차리야에서...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된 사람
바그완으로...내면도 없고 외면도 없는...하나속으로 녹아버린 사람

아차리야...그의 안으로부터 도와주며...너의 존재를 들여다 보는 분
바그완...그의 밖으로부터 도와주며...그의 존재를 너에게 주는 분

그가 다섯번의 사마디를 격은 것이 선명했다
18년의 기간
사마디 사마디 사마디 사마디 그리고 마지막 사마디
폭발 폭발 폭발 폭발 그리고 마지막

사마디 그것은 이슬방울이 대양 속으로 미끄러져...대양이 되는것

이슬방울 이기를 단념하고
대양으로 사라져 그의 광대함을 깨닫는다
잃는것 하나 없이...대양 만큼 넓어 진다

그러나 그 대양은 이슬방울 속으로 사라진다
이 완전한 아름다움
대양이 이슬이 되는
위대함이 작은것에 고개를 숙인다

오직 동양에서 알려진 그 완전한 깊은 경험
그 이해와 경험만으로도 뛰어들어 볼만 하다

바그완과 사랑에 빠졌다
내가 찾던 바로 그것
그의 발아래 헌신하는 제자로
누가 깨달음에 관심 있는가
바그완이 나와 함께있다

엄청난 기쁨을 찾았다...어마한 사랑...나의 스승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실제로 보고싶다
꿈만 같다...그분을 본다...기뻐 어쩔줄 모를 것 같다
무슨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무엇이 발생할지

완전한 호화
뜻밖에 찾아온 진정한 스승을 찾은 어마한 행운
스승의 스승인 바그완
이 지구상에 거쳐간 적 없는 가장 진화된 존재
모든 세기의 사람

그저 그분의 발에 존경을 표하고 눈물을 떨구고 싶었다
떠있는든 걸어 나오는 그분
앉고 그분의 말에 귀기울인다...그분의 고요함속으로 젖어든다
우아한 그분의 몸짓을 보고...그분의 눈을 드러다 보고
대기에 그분의 마법을 걸어 놓는것을 보고
목격하는 그분의 카리스마와 끌어당기는 힘의 존재함
구도자를 빠뜨리는 환희의 파도

지금 뜨인 눈으로 보고있다
바그완을 보는것이 세상에서 가장 장관의 파노라마 일 것이다

왜 마하카샤이 침묵으로 남았는지 이해한다
나 또한 그와 같을 것이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나의 비밀을 간직한 채 과묵히
욕심스러운 나
나의 경험 깊숙히 심취하고 즐기고 싶다
무명의 자유로움으로

바그완은 지상 최대 최고의 쇼...그분을 보라



우주의 새로운 경험속으로 자리 잡는다
여전한 충격상태...경험의 층들을 차례로 흡수한다
육체마음이 총체되게 만들고 신비스런 연금술의 변화가 일어나게 두자
내 몸은 안쪽에서 다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가를 요구했다
더 더욱 필요한 잠...깊은 고요함과 휴식

늘 혼자 였다

나를 적대시 하는 아쉬람
꺼리낌 없이 나를 욕하기 시작한 산야신들

그들의 공격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론 비수나 화살 같이 날아와 쫓혔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열려있고 부드러우며 저항력 없는 나의 몸
여전히 증발하는 상태
열린 공간에 모든 것들의 드나 들을
공기의 미세한 움직임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보고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전생과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에 대하여 아는것이 나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저 스침으로 밝혀지고 심리의 문은 열려졌다

투명한 내 주위의 모든 것들
그 신비함을 나에게로 드러낸다

쏟아지는 무수한 앎으로 이미 넘쳐나고 있었다
문을 닫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알아채지 못함 같은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양의 잠을 즐기게
더 이상의 명상 없이...그냥 내버려 두고...긴장을 늦추고
잠과 시간이 해결하게 끔

이것은 지나칠 것이니



1986년 7월 나의 첫 사마디
1986년 7월 바그완 봄베이로 돌아옴

나의 사마디 이후 딱 19일
그분이 돌아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신기루가 일어 날 때...모든 것이 함께 일어난다

미국의 호된 시련
재앙 그리고 범죄 공동체의 파괴
17개국의 세계여행 어리석음과 모순
거부당한 비자...그분의 추방...혼란속의 산야신들

충격은 깨워 일으키며 때로는 오를 수 있는 사다리역활을 한다
모든 상황을 이용하는 선의 스승
마치 빈틈 없음과 자각을 만들기 위한 계획

오직 그분은 제자들의 영향만을 고려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이 필요했다...지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다시 모일 수 있는

그분은 곧 새로운 자극이 될 나의 도착을 보았다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그분의 제자들에게 불씨를
평범한 사내...단 90일...자살행위방법...집에 도착

그분의 도착에 관한 소식을 얻기위해 매일 아쉬람으로 간다
봄베이 수밀라 센터에서 그분을 볼 수 있는 특별 출입권을
거주자들에게 나눠주고 준비한 개인버스로 그들 모두를 그곳까지 데려간다
나도 출입권과 그들과 함께 버스를 타게 해달라 요청했다

벌써 넉달째 아쉬람에 있었으나 출입권은 거절당한다
원치않는 목록에 이미 올라있는 나
나같은 사람은 허락않으며 바그완을 볼 수 조차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나는 미친 사람이며 그분에게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다고

침묵했고 나의 사마디에 대해서는 비밀로 했다
악몽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내가 바그완을 보지 못하도록 애를 쓴다

택시를 타고 봄베이의 수밀라로 떠난다
산야신들의 무리는 그 곳에 도착해있었다
그 누구도 나를 모른다...뿌나의 산야신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조용히 통과를 위한 시도를 하기로 했다

수밀라 문 앞 줄을 이루어 서있는 사람들
그리고 간절함으로 네 시간째 서있는 나
줄의 세번째로 문 가까이 서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멈춤으로 기다린다
이것은 나에게 살아있는 라우 주 문

완벽한 멈춤으로 가장 깊은 고요함을 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첫 만남
완벽하게 멈추어야만 한다
첫 대면을 위한 나의 가장 깊은 순간

사람들은 줄을 서 있고 네 시간의 기다림 끝에
알림 없이 살며시 열리는 문으로 안으로 입장을 허락한다
순간 뒤에서부터 거대한 떠밀림이 온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밀어내고 있다

옆으로 밀쳐졌다...연약한 상태의 나...떨 수가 없다
밀쳐오는 사람들의 지나감을 쳐다보고 있을 수 밖에
힘에 의해 밀려진 문은 완전히 열어 젖힌다
안으로 부터 문을 닫으라는 외침...문을 닫아
화가난 한 산야신이 나오고 그곳엔 나만 서 있었다
그리고 밖에 남겨진 몇 명의 사람들
나에게 소리치며 말한다...이게 옳은 행동이냐고
당신들 모두가 그분의 일에 해를 끼친다...이런 식을 아니다...모두 떠나라

나는 차분히 예기했다...줄의 세번째에 서서 네 시간을 기다렸고
모두가 앞다투며 나를 밀쳐냈다...내 탓이 아니다...나는 오히려 멈추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소리치며 그와 말다툼 하길 원하는냐며
나의 얼굴을 기억할 것이니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

무슨 농담인가...이것이 우주의 이치인가
세상은 그렇게 미치지 않았나 보다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

나의 첫 만남은 결코 오지 않았다
길 옆 정원을 걸으며 침묵해 잠졌다
그리고 저녁 늦도록 움직임 없이 앉았다



다음날이 찾아오고
새 법칙을 배운다
모든 입장권은 명상센터 성채근처 명상센터에서 판매한다...거기로 가라

문 밖에 서 있는 동안...밖으로 나오는 마 락쉬미를 본다
그녀가 언급한 어제의 사건들에 대해 변명을 했다

미소로 고개를 끄떡이며 다 지켜보았다는 그녀
좋아...그리고 건네주는 특별 하루 입장권
고마워요 마 락쉬미...오늘이 나의 특별한 날
우리는 안으로 안내된다...앞는 구역...곧 윗층으로 차 올라간다

매우 천천히 걷는다...다른이들이 먼저 옆으로 지나가도록 둔다
나선형의 계단까지 다다른다
계단 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마 비베크를 본다
나를 쳐다보며 천천히 계단을 오른다

또 다른 선물...그녀를 향한 끝없는 감사를 느낀다
바그완을 돌보는 그녀...여신인 그녀가 내 눈앞에 있다
공손히 합장하고 깊은 인사를 그녀를 향해 한다
미소짓는 그녀...그녀로 부터 따스한 환영을 받은 기분이다
적어도 바그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이 넘친다
나는 혼잣말을 한다

아쇼 바르띠가 노래한다...길고 흰 수염
열정과 사랑이 담긴 그의 목소리...사랑이 넘쳐 흐르는 리듬
이것이 내가 속한 곳...다시 이 사람들과 함께...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
우리를 안내하는 바그완...그의 영원한 순례

완전히 멈추는 대기...모든 눈이 돌아간다
밝은 미소로 들어오는 바그완
그분의 걸음에서 황홀에 취함과 자각이 동시에 보인다
반짝이는 눈으로 우아한 나마스떼를...그의 의자로 미끄러지듯 앉는다
이것이 그분과의 첫 만남이다

육년이란 긴 기다림의 시간이 걸렸다

바그완의 실재 존재함은 압도적이다
꿀에 젖어 있는 대기의 모든 입자들...길고 넘쳐 흐른다
한번도 이렇게 취해본 적이 없다
한달전 나의 사마디도 이렇게 달콤하진 않았다
이것이 진짜이다

흘러나오는 눈물

그분을 바라본다...그러나 수줍음으로...다시 눈을 감는다
그분의 눈을 똑 바로 볼 수가 없다...본다면 억지일 것이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저 흐르는 눈물 그리고 그저 흐르는 눈물
사라지는 시간

같은 블랙홀로 이동된다

보다 깊게 보다 부드럽게 보다 달콤하게

그분의 말이 들린다

어느날 이 순간이 역사 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너의 도착에 축복을
더 깊이 가거라...그곳에 더 있다...그곳에 더 있다

그분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분의 축복속으로 빠져든다

움 움 움 움 모든곳에서 울려퍼진다



다시 시작한 아쇼 바르띠의 노래가 들린다

여기가 어디지...내가 어디에 있는거지...나는 누구지

그분은 기쁨의 춤을 춘다...왜 인지 나는 안다...그분도 내가 왜 아는지 안다
나는 그 비밀의 날개가 자라날 때 까지 간직할 것이다
기뻐하며 그분의 노래를 부르고 그분의 춤을 출 수 있는 세상으로
그분이 나를 날려 보낼 것이다...넘쳐 흐르는 그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쁨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모든 존재에 감사한다

불멸속으로 빠져드는 그분의 존재
단 한번 만남의 영원성

오늘 저녁 나에게 쏟아내린 그분의 모든것들을 흡수해야 한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 버리자

더이상 바그완을 방해 하고싶지 않다
경외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분을 향한 존경을 표하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싶지않아 내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쏟아 붓는다는 것을 안다
이를 담을 더 깊은 우물을 파고 더 들여 마셔야 한다

목이 마른 다른 순례자들도 마시게 두자
작은 공간...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파 한다
다른 이를 위해 자리를 만든다...그들에게도 기회를...모두에게 필요한 그분

이곳에 있게 해준 마 락쉬미에게 무궁한 감사를 간직했다

나는 평온함으로 뿌네에 돌아온다

마지막 욕망이던 그분을 직접 만나고픔도 이루어졌다
이제 더 깊이 반듯이 들어 가야하고 그 귀한 순간들을 만들어야 한다
수밀라에 허락되었던 행운의 나
안으로 들어가 스승의 더 깊은 하사에 대한 준비하자

홀로 앉는다
많은 층들이 열려있고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해 속으로 녹아 내리고 안으로 자라나기 위해
마주하는 고결한 경험들
무엇이 발생하는 암시에 전혀 알아채지 못함
영혼의 어두운 밤 동안

위대한 부다의 강림의 연민과 기쁨
고타마 붓다...그의 축복
두려움에 발버둥거림은 부족한 경험과 자각하지 못함이었다
바그완이 나의 안내자 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메트레야로 알려진 붓다가 약속한 영체

준비없이 모든일들이 갑자기 벌어졌다
정신적 심적 육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으면 했다...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육체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보는 그들이 있었다
깊은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고작 연약한 인간

이것은 지나칠 것이니



다시 준비할 것이다...다음번에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다음번 블랙홀로 빨려들
기다리는 죽음...그 블랙홀...다시 태어남

고요속으로 자리 잡는다
서서히 선명해져 가는 것들
일곱개의 층...높고 높은 의식의 면
경험의 면으로 이끈다
그 순수 목격자

그것은 몸도 아니고...마음도 아니고...감정들도 아니다
영체도 아니고 육체와 연결된 육감의 육체 또한 아니다
형태가 자유로운 것...순수 목격

첫 다섯개의 센터는 성장을 돕고 구체화한다
깨어있음으로 이끈다
경험자와 경험이 있는 곳으로...이중성

여섯번째 센터에 도달
처음으로 그스스르가 깨어 있음을 자각할수 있는 곳
경험의 맛을 알게된다...이중성 아닌

그 일곱번째...센터가 없다...경험의 상태
순수 의식 속으로 빠져든다
무죄...텅 빈

나에게 열린 신비속으로 깊이 더 깊이 빠져들어 갔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나타나 축복을 하는 바그완
신비스럽게 그리고 짓궂게 내위를 맴돌며
마치 내가 깨어있는지...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지 지켜본다

그분의 밝음과 재치가 즐거운 웃음으로 나를 킬킬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경쾌해 진다...내안에 새로운 유머 감각이 자라난다
불합리한 인간성을 보기 시작한다
그것의 순박함과 아름다움이 나를 감싼다

모든 것을 보는 그분의 눈
이 열린 하늘 아래에 내가 살아간다

바그완은 나의 옳은 개인적 자유를 이해를 한다
그리고 다른이들의 개인적 자유도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와 마주했던 그들로 부터의 심적 경험들도
무엇을 보았건 간에 입을 다문 채로 있다
그리고 절대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았다

바그완은 극도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했다
자유 그것이 그분의 황금 열쇠
만일 내가 깨닫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나의 자유이다
나만의 편안한 속도로 자랄 수 있다
서두름 없이...더 이상 자살행위로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는다
그저 완화하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즐겨라

여행은 결승점
사실 결승점은 없다
여행 절대적 아름다움 그 자체 만이 있다

고타마 붓다 강림의 증발에 대한 내면의 죄의식과 고통
바그완의 인도로 동정적이며 사랑이 깃들므로 존재한다
그의 지혜와 이해의 명료함
그의 애정스런 손길로 나를 낮게 한다



한번에 깨달음을 얻는 법과
차츰 깨달음을 얻는 바그완의 방법에 대한 이해

바그완이 확실히 옳음이 분명해졌다
그 갑작스런 깨달음
이 갑작스런 첫 초의식의 경험이 없이는
그 어떤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후
초의식에서 우주 의식으로 단계적으로 각성
마지막 단계로 녹아드는

깨달음의 단계적인 방법은 단순히 말도 안된다
미루어 둬
그는 껍질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산야신에 대한 나의 이해는 깊고 선명해졌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 수는 6조
그 중 그의 산야신들 수는 단1억
바그완이 선택한 제자들
그분은 각 산야신들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
훨씬 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분의 방대한 비전

이 용감하고 드문 귀한 개개들
각자의 방법으로 그들이 속 한 틀을 부수고 나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로 부터 분리됨의 고통을 겪는다...경제적 어려움

바그완의 사랑을 위해 이곳에 모인 이들
그분의 발아래 엎드려 산야스를 받을 배짱을 가진 그들은
나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존경을 얻었다

그들을 나의 사랑스런 친구이자 동행 여행자로 평가 하겠다

더 가깝게 나를 지켜보기 시작한 바그완
도사리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그분의 통찰력을 감지한다
어쩌면 나의 영적 에고가 자랄지도 모른다

바그완이 내 존재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음을 안다
그분은 내안에 자리한 모든 영적인 가능성을 안다

그러나 마음...인간의 에고 그리고 의지에서 힘으로
그건 또 다른 문제였다

이 모든 것이 개개 상태...개개의 태도 문제
누구든 언제 돌아설지 그리고 계몽을 서명할지 결정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내 자유
혹은 깊이 가기를 멈추고 경험을 발표해 버리는 것 또한 내 자유
에고는 어떻게 무의식의 바닥 깊숙한 곳으로 숨는지 안다

나는 자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완료에 대한 그분의 배려도 자각했다
이것이 가깝게 보호하고 사랑스럽게 인도하는 그분의 동정이다

나는 성숙한 열성 제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그완과 사랑에 빠진
나의 계몽함을 어디 놓아두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안으로 더 빠져들어야 할 거기...더 발견해야 할 거기
따뜻하고 아늑한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었다

그에대한 나의 사랑은 훨씬 위대하다
나는 또다른 마하카샤 이었다



블랙 홀 속으로 더 깊이 갔다
이것이 궁극의 미 개척지
찾고있다
그 궁극의 진리

무엇이 전능함...편재 널리 존재함...전지 모든 것을 앎
불멸...모두 충만함...모두 앎
맛 볼 수 없고...냄새 맡을 수 없고...만질 수 없고...들을 수 없고...볼 수 없고
늘 존재하여 창조할 수도 없고...늘 잔존하여 파괴 할 수도 없다
공간을 넘어선...시간을 넘어선
헤아릴 수 없는...무한한
고유한 빛의 원천을 가진...불멸의

그 블랙 홀...그 알수 없는 것...궁극적 신비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빛은 오직 어둠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다
그 빛의 강력한 폭발의 경험
모든 곳으로 폭발하는 빛
블랙홀 내부로부터 보여진다

내면의 어둠의 경험...외면의 빛의 경험
해탈...그 불꽃의 정지...그 외부의 불멸의 불꽃

그 블랙 홀...그 내부 제일의 존재의 핵심

여동생 쇼나와 그의 남편 라메쉬가 봄베이에 도착했다
결혼식 참석을 위해 홍콩에서 온 그들은 타지마할 호텔에 머무르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지금은 바닥이 낮지만 얼마 안되는 남은 돈으로 뿌네에 왔었다
내가 가진 단 한벌의 승복을 매일 씻고...말려서 다시 입고
색이 바래서 비치게 된 나의 유일한 소유물 승복
부드럽고 가루같은 느낌의 이 승복을 무척 좋아한다
나에게 사마디 승복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가늘고 닳아 헤어진 바타 슬리퍼

나의 가여워 보이는 외면에 대하여 알아차리지 못했다



타지마할 호텔 로비로 들어서 매니저를 만나게 해달라 했다
그는 앉기를 권하고 왜 호텔에 왔는지 물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나며 그에게 되물었다
내가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혹은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느냐
무슨 이유로 그는 이 이상한 질문을 한 것일까
그것이 나를 거지로 생각한 것임을 알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태도와 유창한 영어를 듣고 조용해졌다

이 호텔에 머물고 있는 여동생과 그의 식구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그들이 누군지 물었고 쇼나와 라메쉬 준준왈라 라고 말하니
놀라 입이 떡 벌어졌다...갑자기 예의를 갖추고 환영을 한다
그 준준왈라 가족...쇼나가 당신의 여동생

그들의 방으로 전화를 했고 곧 로비로 달려나온 쇼나
나를본 그녀의 눈에 고이는 눈물...도대체 뭘 한거야
웃은 또 왜그래...너무 야위어 졌잖아...가난해진

여동생을 쳐다 보았다...다이아몬드에 비싼 옷
오히려 내가 부자이고 내눈에 비친 동생이 가여워 보이고 창피하다 했다

우리 둘을 빤히 보는 메니저...세상에 이게 무슨 일
이상한 오빠와 동생...완전한 대비
타지마할 호텔 안에서

그녀는 다음 몇달을 지낼 수 있는 넉넉한 돈을 주었고
이 새로운 상황속에 여동생과 그의 가족들을 만난 것이 이상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뿌네로 떠났다

한달이 지났다...그분의 부름을 들었다

이것이 지금부터 바그완과 함께하는 나의 방식이었다
21일간 깊은 준비
7일간 액체 식이요법
보름달이 뜨는날 정상에 이르고서 바그완을 본다

그분의 이름 바그완 쉬리 라즈니쉬 나의 이름 라즈니쉬
진실이 가진 아름다움...시적임...우아함
보름달과 초승달과의 만남

봄베이로 가기로 결심했다
도착한 9월 16일을 기억한다
그분은 강연을 하고있고 나는 입장권을 구하러 간다
그런데 17일 이상하게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는 그분

18일이 보름달
그분 다시 시작한다...멋지다...나의 첫 보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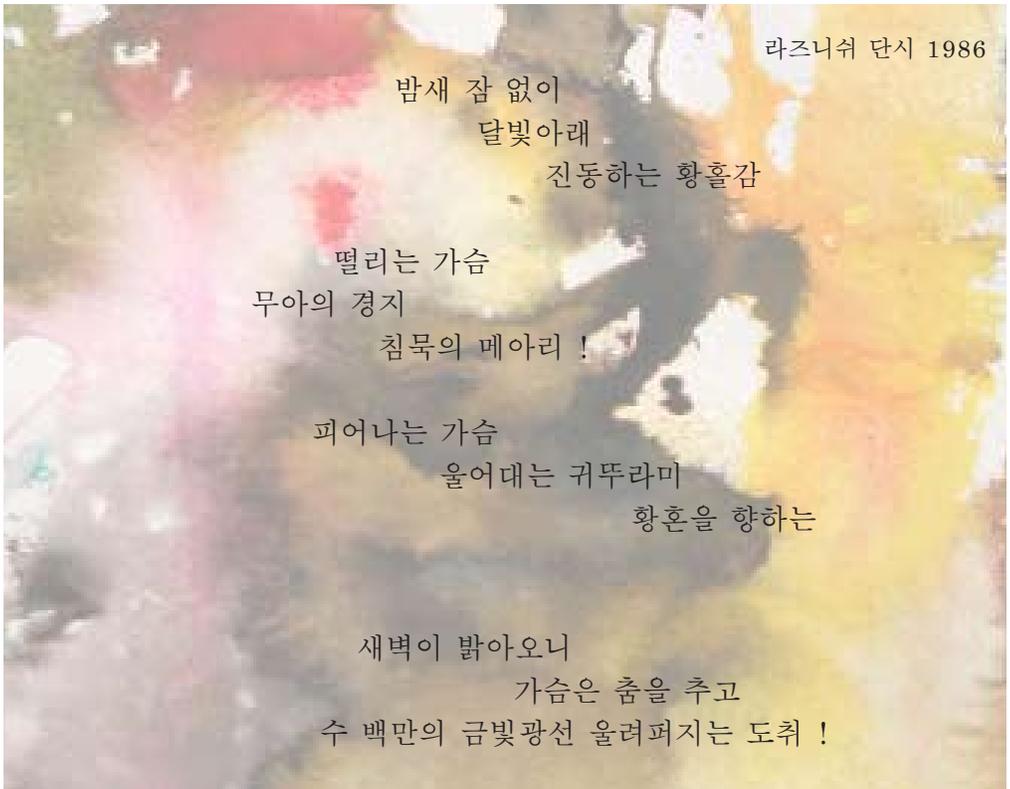
나의 길 헌신적 사랑은 더 깊어진다
등장하는 그분의 춤은 더욱더 나에게 드러나고
나의 진척에 그분 역시 기뻐한다
진리와 도착에 나의 침묵과 초점을
부단하고 성숙한 나...위대한 비밀을 지키기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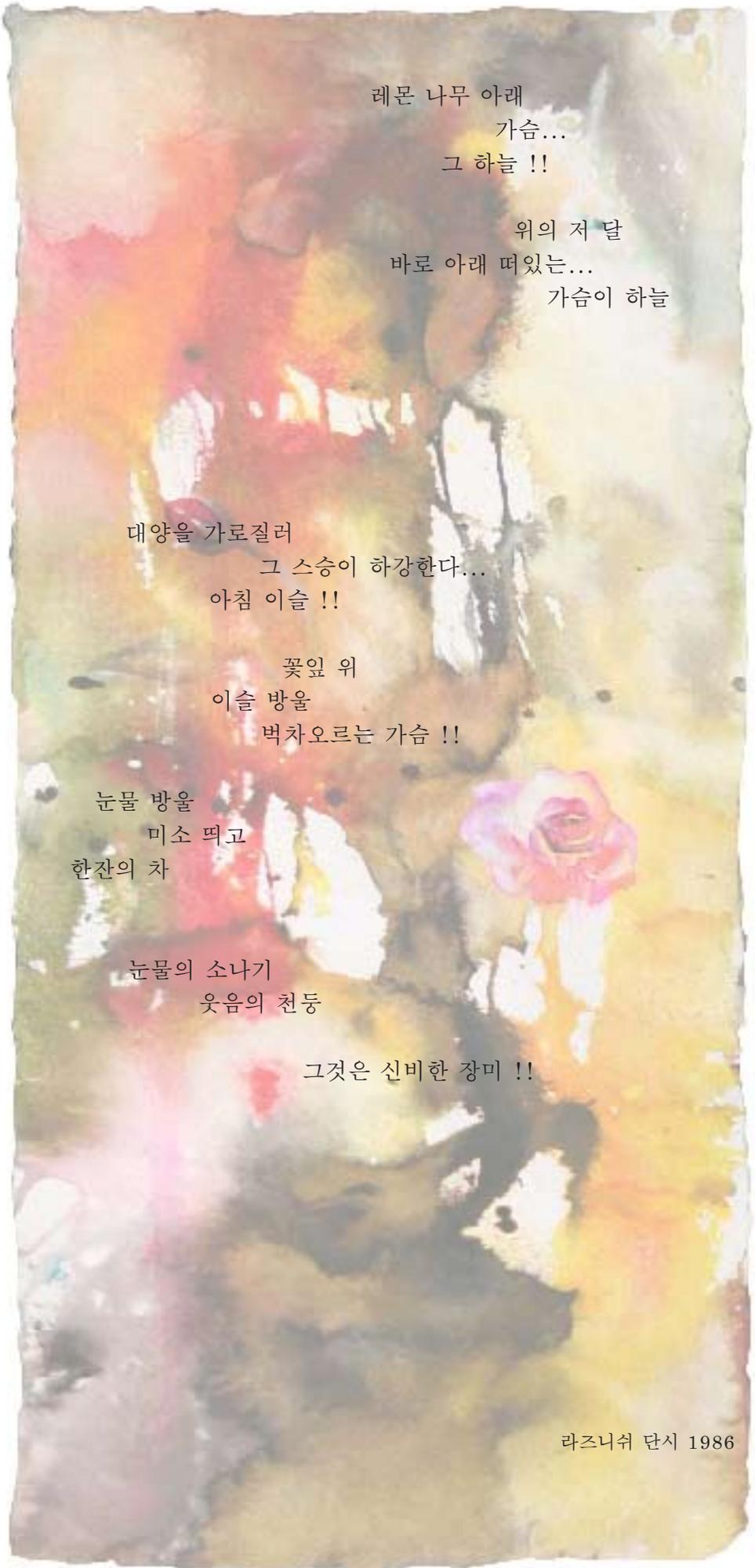
더욱 더 입 밖으로 내지 않은채로 남는다
절대 뺄어지질 않을

신비한 우주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제자가 자라듯...스승이 드러난다
끝없는 여행...끝없는 시작
깊이 깊이 자란다...드넓게 드넓게 자란다

스승은 기꺼이 끝까지 간다
이미 열고 더 무한히 안다

제자는 열린채로 있어야 한다...모든 것을 내 맡기고 저항력 없이
항상 모두를 위해 열어 둔다...절대 어디가 끝이라고 결정해선 안된다
모든 수평선이 서로 엇갈리듯 그곳에는 더한 것들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





레몬 나무 아래
가슴...
그 하늘 !!

위의 저 달
바로 아래 떠있는...
가슴이 하늘

대양을 가로질러
그 스승이 하강한다...
아침 이슬 !!

꽃잎 위
이슬 방울
벽차오르는 가슴 !!

눈물 방울
미소 띄고
한잔의 차

눈물의 소나기
웃음의 천둥

그것은 신비한 장미 !!



바그완은 라즈니쉬 우파니샤드 라는 강연을 시작했다
깨친 이의 발 밑에 앉아서 듣는 이 강연
이는 곧 새로운 상이 되어간다
그들이 어디로 향해 이끌지 이해할 수 있다
이 강연에서 밝혀질 신비로움 위의 신비로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 주에 봄베이에 머물렀다
고빈드 싯다르따에 의해 열리는 비밀의 문

그 칠월의 밤에 내가 겪었던 전체 경험중 어떤 부분이
고백과 같이 고빈드 싯다르따의 질문 속에서 답출되었다

이는 그 밤의 나의 경험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나머지 반을 그도 보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였다...그리고 그 버둥거림도
이는 그의 통찰력과 자각으로부터 숨겨져 있다

바그완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너에게 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이 자리에 두 사람이 더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경험을 겪은
그들 역시 이 사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언은 너무나 큰 것이므로 그 방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작아짐을 느끼겠지만 이는 숨겨질 수 없는 일이다
배가 불러오는 임신부와 같이 얼마나 오래 그 사실을 숨길 수 있겠는가
결국 어느날에는 아이를 출산해야 하듯

누구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 당혹함을 느낀다

회의적인 세상을 향해 내뱉어야 하는 것
진실에 관한 한 귀머거리가 되어버리는 세상
아름다움에 관한 한 장님이 되어버리는 세상
감수성에 관한 한 얼어붙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 엄청난 것을 선언하기에는 혼자라는 약함을 느낄 것이다
선언은 예고의 범위를 벗어난 일
어떤 이든 이러한 것을 예고로 인해 선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고는 창피함을 느낄 것이고 예고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험의 선언은 겸손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말을 듣는다
그는 기다리고 있다...이 세 명 중 누가 먼저 선언할 것인가
고빈드 싯타르는 대담한 겸손함을 증명했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그는 잠결에 보지 않았다...꿈결이 아니었다

크리쉬나 무르띠가 정확히 이 현상에 대비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고타마 붓다는 25세기 후 그가 나타날 것임을 약속했다
신 메트레야 로서...친구를 의미하는 메트레야

그분이 놀리듯이 말한다
고빈드 싯다르트의 어려움은 이를 비밀에 붙이지 못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비밀은 더욱이

그분이 다시 놀리며 말한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더 있다
만약 그들이 용기를 낸다면...그들의 질문은 나타날 것이다
만일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비밀의 짐을 짊어진 채 남으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식은 땀을 내며 얼어붙었다
그분은 내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나서길 바라는 것인가
이런 이상한 질문 형식의 선언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정신적 예고 여행의 시작

수밀라 밖으로 고빈드 싯다르따에게 물리는 산야신들이 보인다
그에게 존경의 절을
이는 아름다웠고 나 역시 달려가 절을하고 그의 통찰력을 인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의 무리
나는 그의 눈이 열려있음을 알았다...이 위대한 사건의 일부를 보았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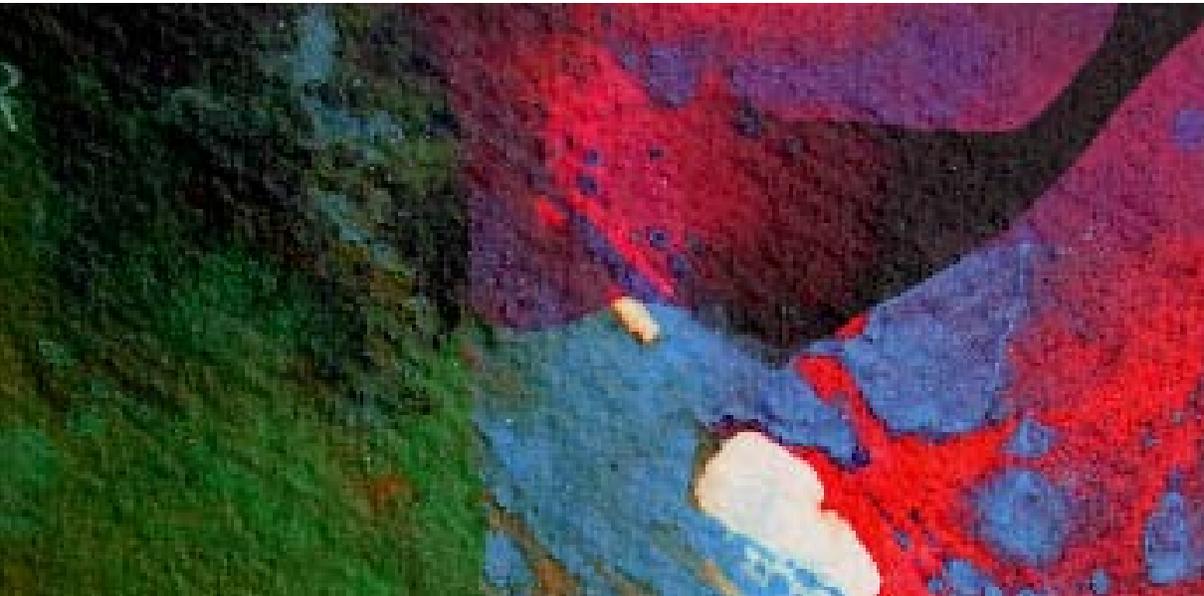
이러한 식으로 둘러싸이기를 원치 않았다
이는 단순히 나의 방식이 아니었다...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언제나 나의 자유를 보호하며...가치를 두는 온전한 홀로 있음
나는 사람들이 발에 존경을 표하고 절하는 것이 너무 싫다

바그완은 고빈드 싯다르따의 계몽지점에 도달함을
단지 언급한 한 것임이 명백했다
나의 이해에 따르면 이는 충분치 않았다
계몽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은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 시기에 개인적으로 고빈드 싯다르따에 관해 탐구 했을 때
정확히 같은 답을 얻었다

침묵에 머물렀다
그분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폭로들을 계속해서 쫓아간다
계속 되는 질문들...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간다
뿌네로 돌아감이 흥분되었지만 침묵했다
엄청난 새로운 움직임이 폭발의 직전에 있음을 알았다

나는 바그완이 곧 뿌네로 돌아오리라 예언한다
바그완이 그 고유의 유머로 나를 놀리고 있음을 안다





내 혈기 왕성함을 건드려 그의 뒷에 걸리는 지를 지켜본다
그리고 정말로 그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를
이는 내 진실한 의도를 증명할 것이다
그가 던진 도전장...내 영역에 들어온 공...이 미끼를 낚아챌 것인가

나의 작은 일견의 계몽보다 훨씬 큰 바그완을 향한 나의 사랑
고타마 붓다의 강림은 나로 인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비밀을 지켜가야 할지안다
나는 말했고 다시 반복한다...내가 마하카샤 이었을 것이다

슬프게도 몇달 후 바그완으로부터 듣는다
몇달 전 봄베이에서 고빈드 싯다르파는
고타마 붓다의 영이 강림할 몸을 찾고 있는 선견지명을 가졌고
그 속에서 바그완이 고타마 붓다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보게된다
그가 옳았다...하지만 이는 그의 불행이기도 했다
누군가 진실의 지점에 닿았다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다
바그완으로부터 그의 계몽이 발표됨으로 그를 사라지게 했다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으리...이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계몽을 찾아 해매왔고 그것을 발견했다 라고
바그완은 계몽은 오직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 했다
아주 근접했던 그는 이제 아주 멀리가 버렸다

우연히 고빈드 싯다르파가 스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 그의 예고는 더 깊은 뒷을 만들었고
심지어 그의 순진한 문하생들을 철저히 파괴했다

얼마나 슬픈 대 재앙인가
어마한 고통의 하루...동정...더 많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던 그



나는 이러한 덧에 빠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
만약 나에게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다음생을 기약하리라

계몽의 첫 경험은
다 차원 층들의 첫 열림을 허락함이고
이는 곧 이 층들의 첫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각 각의 층으로 깊이 빠져들어야 하므로
각 각의 특질을 흡수해야 하므로

이는 대 여섯번의 그러한 폭발이 따르거나
층층이 녹아 내리고 흡수되는 사마디의 단계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단계별로 완성해 나아가는 여행
그 속으로 완전한 용해

그저 깊이 깊이 가라 앉았다
내 일상은 깊은 변화들의 발견함을 계속했다
육체의 움직임과 단순한 일상은
좀 더 우아해져 가고 있었다
명상 하기를 멈추었고...명상적임이 나의 삶이 되었다
긴장을 풀고 알아차림으로 지켜보는 나의 모든 발걸음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 서는 방식 앉는 방식
설거지 하는 것 몸을 씻는 것 이를 닦는 것
선은 삶으로 체험하는 것...명상적으로 사는 것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오로지 존재하는 명상적임 뿐

단순한 일상의 활동 속으로 나의 모든 인식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잠을 잤다...칠혹같이 어두운 방안에서

내가 블랙홀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밤의 어두움과 친숙해 지기위해
나는 야경꾼이 된다

선으로 걸음과 선으로 앉음은
내 주위에 빛을 더하기 시작했다



이제 바그완과 비밀의 문을 관통했다
바그완은 영적으로 좀 더 자주 나를 방문한다
그분의 비밀스런 전달 방식
그분의 침묵 그리고 일의 비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내 육체에 대한 무한한 접근을 그분에게 허용했다
편히 들어와 나를 다룰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다

내가 빠져들어 육성하고 있던 또 하나의 비밀은
나의 걷는 방식에 있었다

전생의 위빠사나 경로와 길이 열려졌다
현존하는 어느 스승의 접근도 용이한 이 수직 터널
이 때문에 고타마 붓다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의 매개체로서 온당한 짝

바그완은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걸었다
그분의 쿤달리니는 나의것 보다 어마하게 높이 물결치며
움직였다
훨씬 넓고 광대하며 드넓고 깊디 깊은

바그완은 쉽게 나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다
그분의 수직 노선과 융합이 될 때면
더 깊은 물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 와 손을 마주 잡고
한걸음 한걸음...수직 물결에 의한 수직 물결
서서히 그분의 경로로 융합 되었다
드러내는 고귀함 위의 고귀함
내가 가지고 있는 눈부신 그분의 광채...나와 함께 춤을 추었다

이러한 신성한 순간들을 표현하기에 모자라는 눈물

신비스런 가르침의 향연이 나를 위해 열려 있었다
그분의 비밀스런 신비의 학교에 일부가 되어갔다



하늘이 쏟아 붓는다
다이아몬드를
보라 !!

하늘이 쏟아 붓는다
너의 위로 다이아몬드를 !

어제의 강우
빗발치는 감사함
침묵 속에
어제 비가 내렸다

침묵
침묵의 눈물 방울
감사함 속에
어제 다이아몬드가 내렸다

어제 비가 내렸다
보았는가 ?
너의 위로 내려오는 다이아몬드를
어제의 강우를 !!

1986 라즈니쉬 단시



피어 오르는 향기
깊어지는 침묵
사라진다!!

수평선 위를 비상하는 독수리
하늘 그 안에서
만개하는 꽃들

떠 다니는 발걸음 위의
부드러운 미소
손에 든 장미 !!
...용해된
그저 장미 한 송이
피어 오르는 향기 !!

라즈니쉬
07

나는 세상이 선언하는 첫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바그완 성명을 밝힌다

그분이 계몽을 넘어섰음을

이는 혁명적인 진술
바그완이 이러한 이례적인 선언을 입 밖에 내는 바로 그 첫 순간

사람들은 이를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했다
바그완에게 그런 시적 재능은 없다
이는 사실에 입각한 선언이었다
실제 발생한 사건

위대한 도박꾼 바그완...자신의 삶을 걸었다
언제나 하늘 높은 곳 면도날 위를 걷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현존하는 어떠한 깨달은 자도 일찍이 간 적 없는 그 곳으로

어떠한 깨달은 자도 그의 생 중에
그의 영체를 제자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영체의 전달을 위해
그분의 육체는 보호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다...상처 받기 쉬운
그분의 몸은 이미 매우 예민하고 허약했다
이 전이는 극도로 급진적이며 위험했다

나는 즉시 이를 이해했다
극진한 보호와 전력의 의식을 다해 그분을 모셨다

이 경험들은 너무나 방대하여 한 권의 책으로도 담아 낼 수가 없다
그것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가장 고귀하며 살아있는 경험들이고
더욱 더 깊고 광대한 의식의 영역으로 자라왔다

꿈쩍도 하지 않은채 봄베이에 그분을 보러도 가지 않았다
비밀리에 그분의 새로운 차원들 속으로 움직이고 있었기에
움직임이나 여행 따위로 몸을 상하게 할 수 없다
나는 뿌네에 침묵으로 머물러야 했다

그분이 뿌네로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는 곧 그리되었다

1987년 1월 4일 바그완 뿌네 아쉬람에 도착했다



우리 모두 그분의 호송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밤 중에 비밀리 봄베이로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산야신들은...입구를 지나 라우쭈 앞까지 줄을 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춤과 축제를
새벽 2시 그분이 차안에서 춤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도착했다

롤스로이스의 천국과 같은 뒷좌석
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나의 존경하는 스승의 뿌네로 귀환

바그완 또 다시 그분의 정점에 있다
매일 아침 그분의 방식으로 춤을 추며...완전히 그가 있어야 할 곳에서
폭발하듯 양팔을 펼친 그분을 볼 수 있다...저 높은 하늘로
눈 부신 비상의 장관이
창 트쭈 강당 전체를 덮어버린다

그 낮고 부드러운 킬킬거림
미소 짓는 그 눈 속의 비밀

더 높이 더 높이...더 높이 더 높이 바그완
그분의 도착에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으로 데려간다

밀려오는 파도 밀려오는 파도

황홀경에 빠져 있는 산야신들...그들은 다시 사랑에 빠졌다
눈은 감사와 기쁨으로 반짝이고
깨달은 자의 땅은 다시 불을 밝혔다
새로운 그 무언가가 대기에 존재했다

바그완은 이 땅으로의 새로운 사람의 도착을 알렸다
수평선 상의 새로운 사람

빛나는 미래...저항자...그 새로운 새벽
깨달은 자의 대지는 달아올랐다
새로운 사람의 탄생을 기다리며

나는 알았다...그리고 그분과 함께 춤을 추었다
누가 춤을 추는가...내가 춤을 추는가...아님 그분이 춤을 추는가
춤 추는 자가 사라지고 춤 만이 남아있다

바그완 라즈니쉬 스승 중의 스승 이상적인 마법사
새로운 사람...라즈니쉬...메트레야 친구...수평선상의

그분의 지혜와 나이
나의 젊음과 순진함
함께 하나로서 작용한다
나는 젊음으로 깨달은 자의 대지와 그분의 몸을 보호할 것이며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경험과 지혜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격정적인 이야기 인가

이는 내가 예지할 수 있는 가능한 현실이다
더욱 거대한 새로운 현상을 유발할 연쇄반응
많은 산야신들이 계몽할 것이다
여지 저기서 마구 솟아 날 것이다

우리는 백 명의 깨달은 자가 필요했다...간절하게
총체적 초의식을 빛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바그완은 그의 모든 측근 산야신들과 함께 도착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 읽어온 것이 전부였고
그들 중 많은 이가 비밀리에 계몽했으리라 상상하곤 했다

붓다와 같은 깨달은 자의 훌륭한 제자들에 관한
심장이 내려 앉는 듯한 비범한 이야기들을 읽었다

충명한 존재들을 보고 그들 사이를 걷는 꿈을 꾸어왔다
십이년 에서 십오년의 세월을 바그완 발 아래에 앉는
영광과 특권을 가진 축복받은 이 산야신들

나는 그들을 경외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절을 하며 그들의 곁을 지나갔다
실제로 그분 곁에서 머물 수 있는 그들의 행운을 나도 가져보았으면

나의 공경이 알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향하였고
그것이 그들을 화나게 했다...기괴한 나쁜 꿈 인가

그들에게 나의 사랑과 그분의 축복을 기원한다
그들이 언젠가는 깨달음으로 깨어나도록

나는 지켜봐 지고 있다
바그완에 의해
그리고 지금 모든 산야신들에 의해서도

천천히 아쉬람안을 걷는다
순진하게 그리고 무게감 없이
노력없이 미끄러지듯
기민하고 사랑스런 미소를 띤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질투와 예고
그들은 나에게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을 지어내기 시작했다
내 주위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들

모두로 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상태
말로 인해 감정적 공격으로 인해 그리고 행동에 의해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고 있는 나에게 대한 판단들

나는 스스로를 스승이라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가 계몽했다 생각한다
나는 깨달은 자 인체 한다
나는 스승을 모방하고 있다

나는 부정적이고 나쁜 에너지를 방출한다
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찌고 있다
나는 그들의 관심을 끌고자 애쓴다
나는 가장 위대한 위장자 이다
나는 바그완의 2인자를 꿈꾼다

나는 그들의 의혹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던 나...특별한 그 무언가를

내가 계몽했다...비밀리에 이미 나는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스승을 빗추고 있다...이것 역시 이해 할 수 있었다
내가 스승인척 모방하고 있다...그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나는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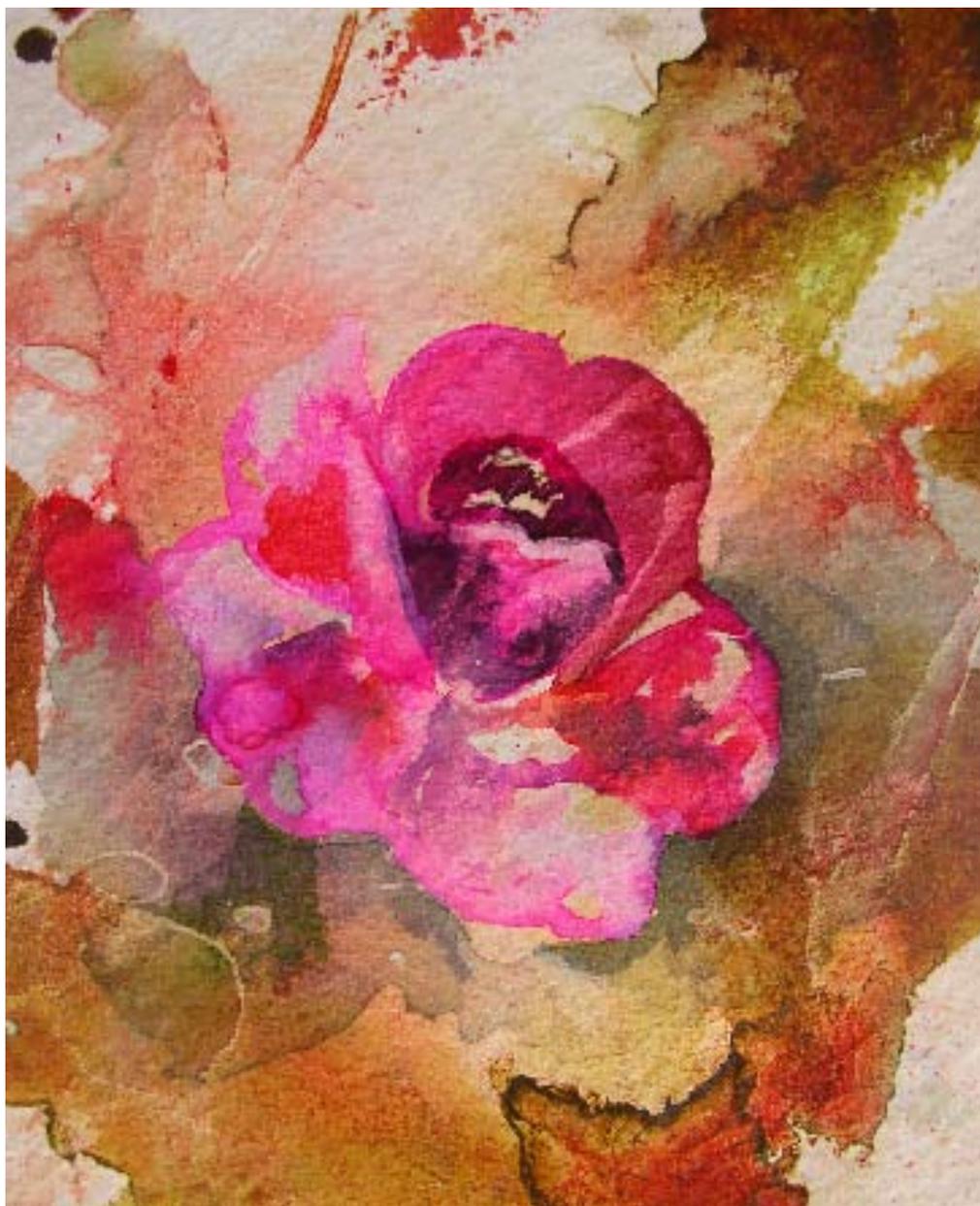
그들의 비판과 내 주위 모든 사람에게 마저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
그저 나를 경악케 했다
이는 내가 바른 길에 있다는 걸 재 보증 함이며
이는 증명서를 주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다

차분하고 편안히 산야신 친구들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그까짓 부정적인 화살은 쉽게 흡수해 버릴 수 있었다
나의 여행 동반자들에 대한 자애심이 가졌다

그들은 도달하지 못함에 고통스러워 함이 틀림없다...질투 유발
차분히 곁을 지나가는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들에게 커다란 동정심을 느꼈다

이 몇 달 동안 이 만 명 정도의 산야신이 나의 곁을 지나갔을 것이다
내가 걷는 방식을 흉내 내면서

날로 커져가는 나에게 대한 웅성거림...이 모든 것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았다
받아들임을 배우고 작은 교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그들이 심술궂은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않았더라면
이것 이야말로 나에게 큰 놀라움일 것이다
사실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들은 내 주위의 빛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처를 입는 그들의 예고
이는 간단한 문제이다...복잡한 계산이 필요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곧 이해할 것이다

나는 속으로 킁킁대며 웃었다
이것들로부터 유머감각을 얻기 시작하며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모든이에게 미소와 사랑을 담은 손을 흔들었다

어느 화창하던 날을 기억한다

여느 때와 같이 오후 2시 30분에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꼬리를 문 사십 명 정도의 산야신들이 나의 걸음을 훑내 내며 쫓아왔다
뒤를 바짝 붙어...나에게는 아주 유쾌한 일...그러나 그들에겐 심각한 일

그들은 나를 훑내 내라고...창피 주라고...위빠사나 선생의 지시를 받았다
모든 산야신들이 보는 앞에서 내 뒤를 느리게 따라 걸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화를 내거나 창피해 하거나 아니면 달아나거나
혹은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산야신들의 꼬리가 입구를 지나
권력자들이 앉아 지켜보는 크리슈나 사무실을 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너무 멋졌다...느리게 걷는 사십 여명의 산야신들을 보는 것이
그저 속으로 미소지으며 그들을 계속 무시했다
뒤에서 나의 주위를 끌기위해 거세게 숨을 몰아쉬는 그들
그들의 놀이를 알면서도 계속하여 걷는다...속으로 웃으며 완전 무시한 체
곧 폭포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내가 멈추어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안으로 되세기는 곳
눈을 감고 물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는 곳
슬슬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 그들은 아마도 움직였을 법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따르라 지시받았기에
모두 멈추어 고요히 섰다
나는 그들을 잡았음을 알았다...뒷에 걸렸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싶은 그 무엇이든 그들은 나를 따라해야만 했다

아...멋지다...선의 스승 라즈니쉬
선의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나의 행운의 날
육십 여명의 구경하러 모여든 산야신들
내 뒤로 멍청하게 보이는 사십 여명의 그들을 쳐다본다

이 순간 자각의 배틀을 즐기자
나는 멈춤으로 한동안 머무르자...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들
이 부분은 그들의 대본에도 없었다

그들의 패배를 보기 시작...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잘 따라 오도록 천천히 움직여 주기 시작했다
천천히 천천히 앞을 막다른 곳에 다를때 까지 앞으로 계속 향했다
폭포위 바위로 향하는 그 곳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아섰다...아주 좁은 길
모퉁이를 돌아선 나와 직면하게 되는 사십명 모두
너무 신난다...그들이 나의 뒷에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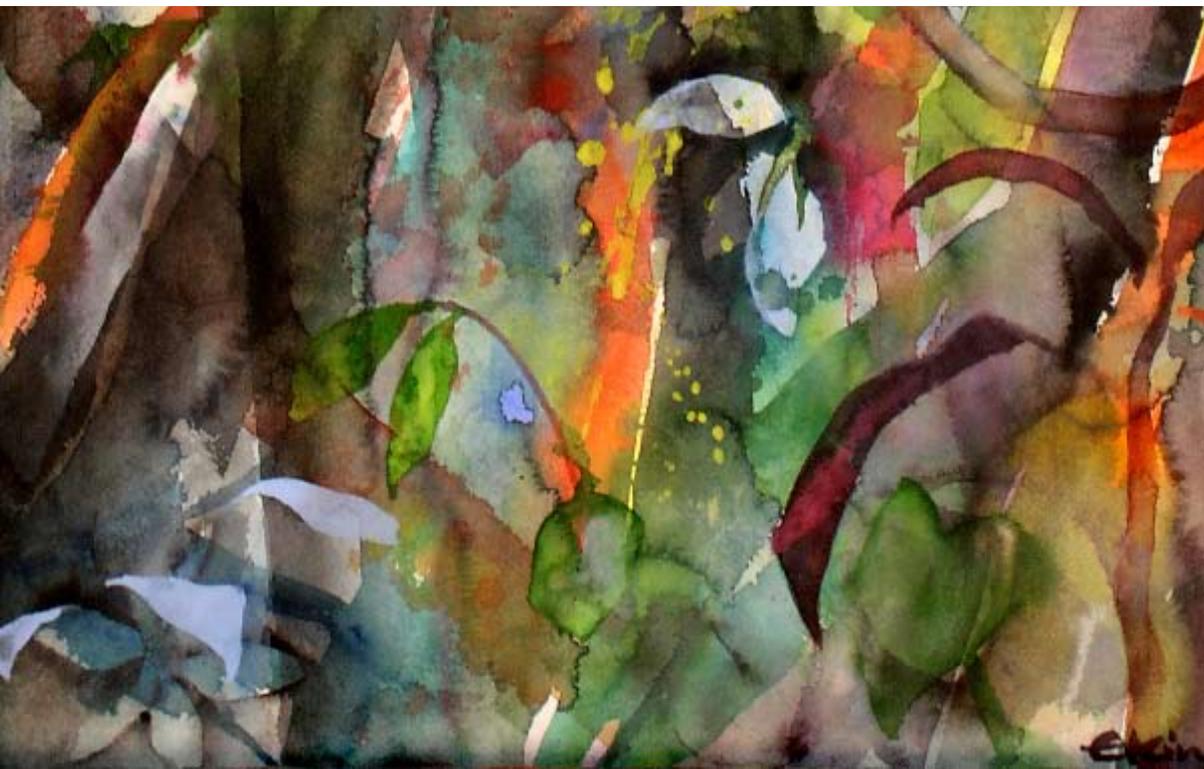
조용히 걷기를 계속했다...따라올지 말지 주저하는 그들을 보았다
앞서는 몇 명만이 계속해서 따라왔고
원숭이 무리같은 나머지는 따라 붙기에 질려 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그들로 만들어진 줄...좁은 통로
단 몇 명만이 움직일 만한 공간이었으므로
뒤의 사람들은 서로 부딪치고 있었다

아하 아하...이제 어쩔 셈이지
폭포위 바위에 올라섰다...아래에 늘어선 그들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이제 어떻게 할지 당황해 하며 서 있었다

나는 웃었다...이봐 원숭이들...지시 받은 대로 잘 따라와야지
정확히 내가 움직이는 대로...지나간 흔적을 쫓아 바위 위로 올라와야지

와...파리떼 처럼 사라지는 그들...서로를 쳐다보며
그리고 아쉬람 전체가 그들의 패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봐 왜그래 나는 알기쉽게 반복했어
덤벼 덤벼...그렇게 쉽게 포기하는게 어딤어
나 처럼 걸어봐...적어도 바르게 걸어보란 말이야
기다려...자 지금부터 내가 이끄는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기다려...어떻게 하면 나와 똑같이 걸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말겠어
기다려...기다려
그들 모두 도망쳤다



사십 대 일

위빠사나 선생 스스로 초래한 일...그녀 자신의 사람들에 의한 불명에

주위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나의 위빠사나 걸음
내가 온 바로 그 첫날부터
이 테라피스트는 언제나 나에게 대한 불만을 표하며 험담을 늘어놓았다

위빠사나 모임 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질문을 그녀에게 해댔다
그녀는 유명한 위빠사나 선생이었고 당연히 모든 대답을 가졌어야 했다
뿌나 아쉬람의 위빠사나 왕국의 절대적인 교황
그녀는 부도덕하게 내가 미쳐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사람일 뿐이라고 퍼트리고 다녔다
또한 나는 위빠사나의 상태가 아니라 그저 저속한 기운의 상태라고
그저 돌아다니는 죽어있는 좀비
성적으로 억압된 인도인
그리고 그녀가 규정짓기로 나는 완전히 얼어 있는 상태고
성적 장애로 느리게 걸을 수 밖에 없다 하였다

나 같은 사람은 나쁘고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흡혈귀 같이 다른 이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므로
나의 기운으로 부터 최대한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라고 일렀다

위빠사나를 배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눈길을 피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간 소문
나는 문둥병 환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버려진자

그녀의 비판들을 듣게된다
그 대단한 작은 스승 테라피스트들에게 전해지고
곧 뉴스 거리가 되는 나
이는 신참자들에게까지 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소문이 퍼져갔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는 소리쳐 나를 불러 세우고는
나는 미쳤으니 정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발 척 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걸으라고 했다

웃으며 어떻게 그녀는 내가 볼 때 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지 묻자
바그완으로부터 직접 위빠사나 가르칠 것을 위임받았음을 강조하며
빨리 걸을 때에나 심지어 땀 때에도 깨어 있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천천히 걷는 것은 단지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모든 것에 통달하면 그 방법을 버리고도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녀

그래서 농담하듯...바그완의 느린 걸음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라고 감히 바그완을 입에 담느냐며
아쉬움에서 추방당하도록 신고 할 것이라 했다

그녀 외에도 헛소문이 나오는 각 각의 출처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접근해 왔으므로

어느 날 부다홀의 이브닝 미팅을 위해 줄을 서 있었다
한 독일 여자가 공격적으로 다가와
그녀가 어디에 있든 그 근처로는 걸어다니지 말라 소리치며
인정 사정없이 내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훈계했다
내가 깨달은 자 대지의 정기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백명이 넘는 산야신들이 그 무자비한 언어 폭력을 듣고 있었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천천히 나를 피해 뒤로 물러났다

최소한 말로써 나를 해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그 즈음 뿌나에는 순박하고 연약한 안경을 낀 여자가 한명있었다
역시 느리게 걸음으로 난처한 일을 겪고 있던 그녀
그리고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나와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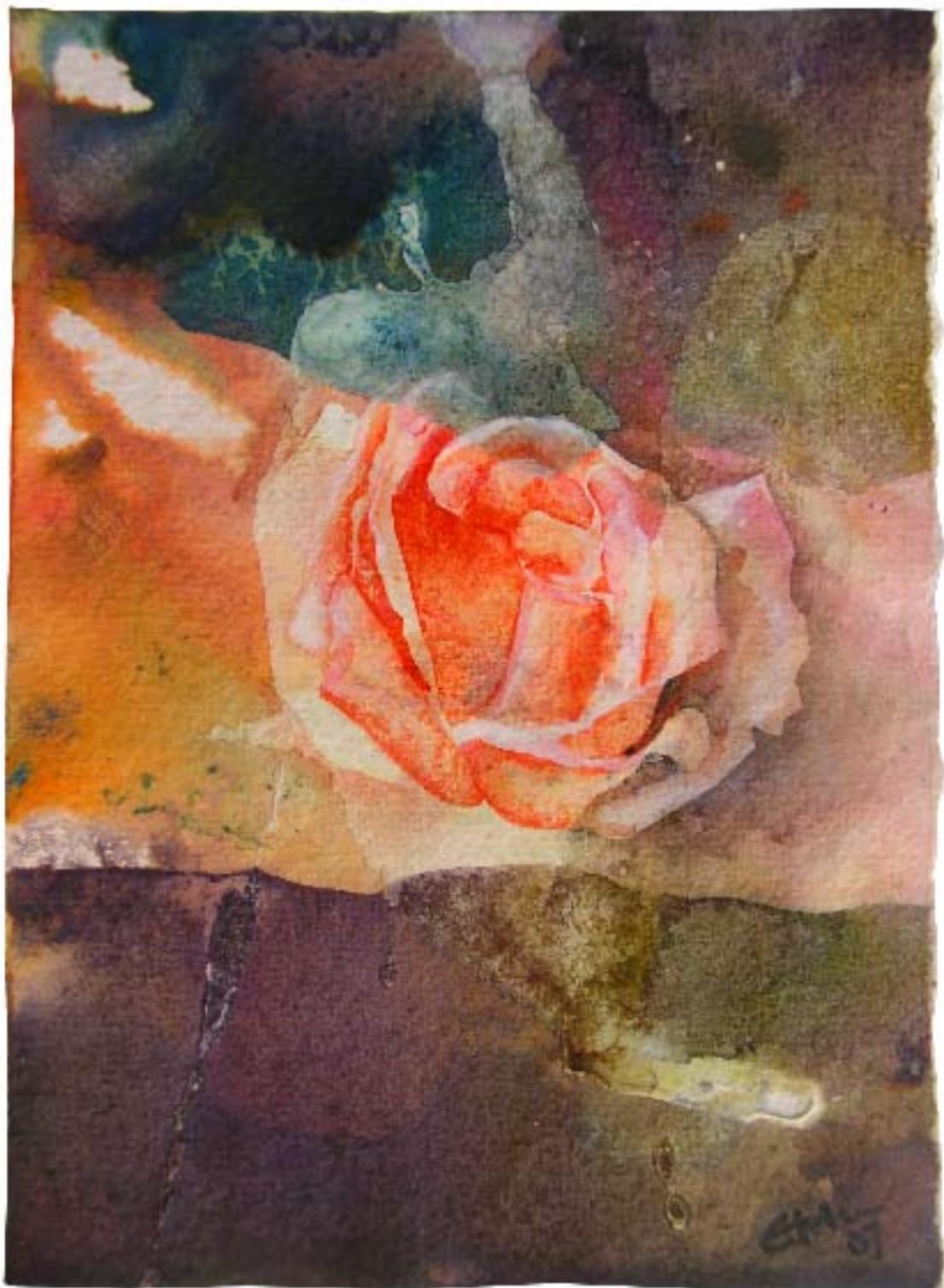
그 공격적인 독일 여자가 소리쳤다
나는 성적으로 억압된 인도인이며 나의 차크라를 체크해 본 결과
이 여자와 잠자리하면 딱이겠다고 한다...약하고 안경을 낀 여자
역시 느린 걸음을 걷는

모두가 웃고 있다...이는 그들에게 있어 대단한 즐길거리였다

처음으로 나는 슬픔을 느꼈다
그것은 스스로 쉽게 방어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향한 슬픔이 아니었다
이 순진한 여자를 공격해 오는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이었고
그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와의 거리를 최대한 멀찍이 유지했다

이것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다
매일 찾아오는 젊은 신참들은 즉시 나에게 매료되었다
나는 침묵에 머물고 나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충고 할 것이다
그들은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나에 대한 소문에 오염되
마치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라도 한 것처럼 욕할 것임을 알았기에

모두로부터 거리를 유지했다...산야신이든 아니든
내가 부서지길 원하는 그들로부터 고립했다
나의 날개를 묶으려는 사람들...나를 해하고 파괴하려는 사람들



이는 내게 있어 매일의 소식이었다...일용할 양식
천 명이 넘는 산야신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공격해 왔다
겨우 몇명의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도 곧 내 곁에 있음이 발각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머지않아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것이 뻔하므로

무척이나 고요한 나의 저녁식사 시간
내가 어떤 테이블로 향해 걸어가든 그곳은 순식간에 깨끗이 비워졌고
길 역시 내가 어디로 걸어가든 사람들이 사라졌다

나는 이 광경을 너무 즐겼다...그들은 황제를 위해 길을 비켜서고 있다

그 즈음 나에게 몇 번의 난폭한 신체적 공격이 가해왔다
나를 빨리 걷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밀쳐졌던 일
집어들여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일
머리를 맞으며 나는 선의 매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했던 일
수행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팔을 움켜쥐여 흔들려졌던 일
수영장으로 밀쳐진 일...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
이러한 공격들은 산야신들 사이에서 이야기꺼리가 되었고
더욱 더 나의 침묵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나를 재미있는 놀이감 정도로 여겼다...죽어있고 진지한 나
진지함은 바그완의 사전에서 병을 의미했다

그저 알아차림 속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나의 표정은 초탈한 알아차림의 하나였다

아쉬람 안의 연극 모임은 나에게 대한 코믹 풍자극을 만들었다
바그완을 흉내 내고 계몽한 체 느리게 걷는 사람에 대한 풍자극
수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관람했다...인생은 장난...인생은 웃음
그리고 심각하지 않는...나는 그들의 정신적 여흥을 위한 표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져 갔다...새로운 유언비어
매일 새로운 공격들...새로운 적들...이것은 나에게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나를 공격하고 싶다면 적어도 한번쯤은
나를 반대하는 근사한 토론이나 논쟁거리를 가져왔어야지
그들은 그저 다가와...무엇이든 내뺨고는...달아난다
심지어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에고...질투 그리고 이제 비겁함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음이 놀라운 것이 없다



나는 깨달은 자의 땅이 아닌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나를 극도로 깨어있게 만들므로 이 조차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강화된 조심성으로 움직이고 걸어야 했으며
내 기운의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기민해졌다
이는 나의 어린시절의 쿵후 훈련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그 멋진 쿵후 영화들도
한 스승이 진짜 날 검으로 제자에게
잠들어 있는 동안조차 깨어있는 훈련을 시켰던 것이 기억난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용되어야 했다
이는 알아차림을 위한 훈련
그들의 무료 교습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나는 긴 콧수염을 가졌다
몇몇 사람들은 나를 푸 맨추 라 부르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리고 선의 해학 같은 나의 쿵후를 알았다

그 고도의 자격을 갖춘 테라피스트
바그완의 수행을 알리고...진리를 찾는 수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수 천 달러를 모임에 부과하면서

확신에 찬 스승 축소판 테라피스트
바그완과 연결된 섬세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심성술사들
그들의 일치로 판독된 인도인으로써 억압된 나의 성

내 나이 열 아홉부터 바그완과 함께 해왔다
쉬운 성적대상 따위나 구하고자 바그완에게로 온 것이 아니다
성적 자유와 금기를 깨는 오용되고 있는 그의 비전

오직 순수 내적 성장만을 위해 이곳에서 바그완과 함께 했다
인간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그의 정렬적인 유인
그리고 그분을 향한 순수하고도 온전한 나의 사랑
오로지 그분을 향한 사랑만이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두었다
소위 말하는 성적 억압 조차 감수할 의지가 있었다
성적 유인을 멀리하고 더 높은 부름에 집중하며

나는 명성과 부를 안고 태어났으며 이를 십대 때 모두 버렸다
나의 어머니 비미 볼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명
나의 아버지 쉬브라즈 유복한 사업가 가문 출신

칠 십 년대의 볼리우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영화배우는 숭배 받는 반신 같은 존재였고
대중 매체에 의해 우상화 되었다
나의 모든 십대 친구는 영화 배우의 자식들이거나
명망 높은 사업가 집안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유명한 스타나 어떤 산업에서 명망이 높은 자들이다

내 십대 시절 장래가 촉망되는 영화배우들의 무리를 보고 자랐으며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이 우리들의 볼리우드 파티로 달려왔다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다...그 시기 보아온 성적 자유는
이곳의 서양친구들의 성적 생활 방식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줬었다

나는 언제나 유명했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나의 자유로운 영혼과 반항적 기질
거침없는 어른들에 대한 반항
그리고 이 이류 사회의 관습에 대한 완전한 경시
언제나 반항적인 영혼으로서 간주되었다
저항자 그 매력과 갈망을 느끼는 소녀들에 의해 붙여진 별명

나는 내면으로의 여행에 너무나 열중해 있었다
뿌네 아쉬람에서 누군가를 사귀기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한명의 미국 여인
나중에 뉴욕에 있는 포드 회사의 모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쉬람에 와 있었고...나의 느린 걸음을 보게되었다
여러날 나를 지켜보고는 인사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했다

그때 침묵 속에 있던 나
특히 매일같이 대면해야하는 산야신들의 괴롭힘 때문에
그녀를 못 본체 해야했다...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았고
어느 날 저녁 뒤를 쫓아 내가 선더반 호텔에 머무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내가 머무는 호텔로 옮겨와 두 달을 지냈다
언제나 발코니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그녀를 보았고
나와 대화하기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침묵중이며 명상에 깊이 빠져있다는 걸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쉬람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
항상 그곳에서 성적으로 농락당하고
모든 남자들이 그녀와 잠자리를 원하여 만나고 싶어 한다고
뉴욕에서 모텔이었던 그녀의 성적매력만을 원하던 남성들에게 질렸다고 했다
내가 그녀를 홀로 둔 유일한 남자였고
그녀는 내가 조용하고 예민한 남자로 인식하고 나와 가까워 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그녀의 이야기를 이해했고 솔직함에 고맙게 생각했다
재미있고 유머감각이 넘쳤으며
광범위한 여행과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 굉장히 지적였다
나와 가까이 지냄에 따라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걸었고
곧 어떤 새로운 공간이 그녀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녀를 따라다니던 아쉬람의 덩치 큰 사내들은 나에게 더욱 격분하게 되었고
이제 여자 친구까지 생긴것에 대해 충격에 휩싸였다

그 짧은 관계를 선사해 준 그녀에게 감사했다
이는 영적 순결과 금욕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인간적임과 전체성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 시기 동안에도 금욕을 하고 있었다
사실상 나의 상태는
금욕자라기 보다는 찬양자 였음을
전생의 티벳 탄트라 경험의 나를 다시 깨운다
그리고 많은 과거의 창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아쉬람은 선더반 호텔을 인수하길 시도하고 있었다
주인인 탈레라씨는 나를 무척이나 좋아하게 되었다
그가 여기에 올 때면 항상 나에게 인사 하기 위해 멈춰섰고
나를 특별하게 느끼며 언제나 나의 헌신적인 기질과
나의 행로에 대한 진지함을 보았다
나에게 한 달에 단 1200 루피만 받고 열 네 달 전에 방을 임대해 주었고
같은 가격에 계속 머물도록 해 주기도 했다
그 방들은 바그완이 돌아올때면 한 달에 9000 루피에 빌려주던 방이었다

탈레라가 아쉬람 경영진들이 제안한 가격에 호텔을 파는 것을 동의하지 않자
그들은 모든 산야신들이 이 호텔에 투숙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해두었다
나는 그들이 호텔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온다 들었었다
매우 소박한 탈레라...그는 이러한 재산을 몇개 더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제안해 왔고
탈레라가 건넨 제안에는 바로 거절해 버리며
그의 사업이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는 불량배들의 더러운 술책에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쉬람 경영진들은 그들 만의 방식으로 매입하기를 원했다

이 시기에 나는 아쉬람으로부터 알림을 받았다
그 날 호텔을 떠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쉬람에서 추방 당할 것이라 했다
몇 일 안에 다른 머물 곳을 찾겠노라 약속했고 이에 대해 그들은
나에게는 오직 하루가 주어질 것이고 그걸로 끝이며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자는 그곳에서 용납되지 않았다

다음 몇 일 동안 방을 구하러 여기 저기 돌아다녔다
산야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락시미 빌라의 방들은 인도인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강가 근처 다른 곳은 빈방이 없다고 이는 계속 반복되었다
인도인 산야신이 방을 빌려주는 작은 장소를 발견했지만
그들은 난폭한 말투로 내가 반갑지 않으며 나의 나쁜 기운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적어도 육일 동안 찾아 헤매었지만
다른 방을 구하지 못했기에 그 동안 선더반에 머물러야 했다

나는 정문에서 저지당하고 모임에 불려갔다
선더반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 했으므로 아쉬람으로부터 추방 당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난 육 일 동안 방을 찾아 다녔지만 구할 수 없었다고 사정했지만
그것은 나의 문제일 뿐이고
나는 바그완의 뜻과 희망에 어긋나니 다시 돌아오지 말라 전했다
기회는 주어졌었고 이는 이제 끝이 났다며

이 충격적인 대립들과 산야신들과의 겪었던
공포스런 경험들에만 관해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
특히 그분의 가장 측근들과의 경험들
나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절제한다
그들은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그들 스스로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자유
나에 관한 한 그들은 이 정도의 자유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를 파괴 할 수 있는 자유는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다른이의 신성한 불꽃과
내면의 영적 수행을 희생양으로 삼는 불법 침해이다

바그완은 아주 여러 번 반복해 왔다
그 어떤 이의 자유도 간섭 말고
그 어떤 이로 인해 너의 자유도 간섭 받지 말라

나는 두 번째의 언급이 오늘날 더욱 중요해짐을 안다
그 어떤 이로 인해 내 자유의 간섭을 허용하는 일은
곧 수동적으로 가담하는 것 다름 아니다
다른 이들이 순진한 이를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고 입을 다무는 것은
곧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 다름 아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권력은 완전히 타락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들을 추방하며 우세해지고
그 추방에 대한 두려움속에 살게하여 결국 복종하는 노예가 되게 만든다



산야신들을 추방하는 것은 공갈의 가장 더럽고 타락한 방식이다

무방비 상태의 산야신들

그저 바그완의 존재 곁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바그완을 향한 산야신들의 사랑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이를 도구로 삼아 그분을 그리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낮은 곳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추방당했고 블랙 리스트에 올랐으며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대립들에 질려 있었으므로 곧 뿌네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미 추방당한 나는 선더반에 계속 머물렀다
어느 날 아침 탈레라와 아쉬람 경영진과의
또 다른 모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호텔에 머무는 유일한 산야신이었던 나를 부른 탈레라는
의논을 했다...그는 지금 화가 난다고
호텔 수입을 막음으로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착각하는 그들은
지금 낮은 가격에 호텔을 인수 할 수 있어 한다고 덧 붙였다

내가 본 이 모든 것은 바그완과 그분의 자애로운 방식과는 어긋났다
이것은 공갈 과 협박
약한 자를 밀어내기 위해 이용하는 권력과 세력

비록 양 쪽으로부터 얻는 것은 없었지만
탈레라 손을 들었고 더러운 방법을 쓰는 아쉬람이 부끄러웠다

만약 탈레라를 밀어내기 위해 그들의 권력과 자금적 공갈을 이용한다면
미국 정치가들이 바그완을 밀어 냈던 때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똑 같은 더러운 정치이다

이것은 나의 눈에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깨달은 자는 절대 이러한 꼴 사나운 방식의 행동따위를 앎는다는 것을 안다
내 눈에 아쉬람 경영진들은 바그완의 얼굴과
그의 사랑 자애에 대한 메시지에 먹칠을 하고 있었다

탈레라와 의논을 했다
만남에서 만약 그들이 부드럽고 사려 깊게 나온다면 호텔을 팔 것이지만
그렇지않고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그는 거절 할 것이라고
이는 나와 탈레라만의 비밀스런 이해였다
우리는 기다렸고 지켜보았다
모든 거래는 이속에 숨겨져 있었다

도착한 다섯 명...탈레라와 앉아 있는 나를 보고 화를 냈다
그들은 그들의 불매 운동이 그가 더 응하게끔 돕는다고 느끼며
거만함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탈레라는 팔기를 거부했다...심지어 두 배의 가격에 조차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탈레라는 양보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호텔에 손님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호텔은 그의 재산으로 존재한다

나는 심지어 오늘까지도 스승의 얼굴을 받들어 왔다
나의 중재는 옳은 길에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해되어 지리라
반항적인 영혼...진리와 정의가 우선한다
나의 사람들과 싸워야 할 지라도...진리가 위에 있다

바그완은 나를 축복했고 나의 승리를 보았다
내가 그분의 광휘를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곧 대면할 헤아릴 수 없는 더한 거센 괴롭힘들에 대한
도전과 직면할 준비가 된 상태

권력이나 우위에 둘러 쌓이는 것을 한번도 중요시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사랑과 자애에만 절을 하고 몸을 내맡긴다

나는 수행의 길에 홀로 남을 것이며
평생 그의 열광적 추종자로 남으리라
는 메모와 함께 나의 산야스를 되돌려 주었다

그 후 몇 일뒤 심각한 위협을 당했다
밤에 아쉬람 거리를 걷고 있을때 한 남자 산야신이 달려와
칼을 들이대며 뿌네를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알아서 끝을 내주겠다고 위협했다
빠와...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지금 그들은 나의 영혼에 도전해 왔다
뿌네를 떠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나는 어떠한 협박에 의해서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 머물며 그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협박을 싫어했고 더욱이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바그완의 선택된 제자로서의 경우는 더 그러했다
이 지구상을 걸었던 깨달은 자들 중 가장 위대한 그분 바그완

내가 동시에 보고 있는 이 다른 두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끔찍하다...만약 이 단어가 묘사에 적절하다면

제이 크리슈나 무르띠의 깨어나는 세월들을 이미 책에서 읽었다
그러나 그의 접근에 관해서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였다

지금에야 제이 크리슈나 무르띠 그의 인생에 대해 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왜 깨친이들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들 사이에 대립이 생기는가에 관해
내가 그냥 스쳐지나 갔던 그 장이 다시 새롭게 펼쳐진다

나는 완전히 바그완과 함께 있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흔들지 못했다
그저 그분의 완전히 열린 접근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스승이나 스승의 부재이나
그리고 진실을 깨어있지 않는 인류에게 전달함이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

바그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알고있다
진실을 전파함에 있어 모든 반항을 그분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목표점 이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스승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균중 대와
한 개인의 그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바그완이 나의 성장을 가까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모든 업힘을 탐구하고 나의 이해로 더 흡수하기를 원함도 알았다

지금까지 나는 그분에게 어린아이 같이 굴었다
내 앞의 차분하고 균형잡힌 통찰과 함께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했다

제이 크리슈나 무르띠에 대한 감사를 더욱 더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절대적으로 예민한 관찰 감각 그리고 분석적인 접근

바그완은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일부라고 말해왔다
그분의 공동체는 그저 하나의 시도였고
절대 그분의 사람들이 계몽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 나머지가 그렇듯 깨어있지 않다고

무지가 축복인 나머지 세상
여기서는 축복이 무지가 아니다

세상과 그것의 방법은 간단하고도 다루기 쉽다
그저 일상의 생활과 결면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다치기 쉬운 이들이 점진적 에도지를 시도하고 있다
폭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상의 복잡한 내부 원리에 대해
높은 전압의 에너지 상태가 요구되어 지는 곳에서
경험과 조심스런 성장 그리고 안내
위대한 알아차림이 필요로 되어지는 어떤 이가 오른 높은 곳
행위에 있어 극도의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곳

우리는 불장난을 하고 있었다...수직으로 불 붙은 보이지 않는 실가닥들

산야신들은 계몽하지 않았다...이제 이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의 새로운 질문 왜 그들이 계몽하지 않았는가
도달할 수 있는 자도 파괴 될 수 있는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의 이 질문에 대한 초점
가장 긴급한 질문이 되어버리고
내가 이해해야 하는 하나의 방정식이 되었다

정확히 이것 때문에 제이 크리쉬나 무르띠가 맞서 싸웠던 것이다
언제나 개인을 파괴하는 군중
모든 조직체는 절음 발이 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을 파괴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크리슈나 무르띠가 굉장히 예리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고 전적으로 옳았다

반면에 바그완은 그의 열리고 자유로운 시각으로
깨달은 자의 대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리라 모험을 한다

바그완 역시 이런 한 새로운 현상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깊은 슬픔에 잠긴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실패하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분의 살아있는 시도...내 위를 떠있는 그분과 함께 걸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을 나 라는 거울을 통해 시험하고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모두가 읽고 알도록 선언하고 있다
바그완은 너희가 어떻게 깨달은 자에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분의 광휘를 수용하고 있는 그분의 깨달은 자
바그완 그분을 잉태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밝히는 것은 당신이 수행의 길을 걸음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나는 그저 빙상의 일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표현 할 수 있거나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어떠한 비밀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평선으로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많은 위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인식의 강렬한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산야신들은 그 깨달은 자의 대지 이 수직 불에 노출되어져 있다
이 힘들을 사용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미숙한 상태
이 불에 대하여 그리고 이의 작용에 대하여
침착하지도 그렇다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들

겁을 주고 싶진 않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지켜봐 왔다
이는 일어나기로 예정되었다...최악의 일이 일어나기로

추방당하여 선더반에 머물고 있었다
호텔담은 부다홀로부터 바로 몇 미터 뒤에 있었다
매일 밤 바그완이 황트쭈에서 강연을 했으므로
그의 목소리는 부다 홀로 생생히 퍼져갔고
담장 뒤에 앉아 있는 나에게 깨끗하게 들려왔다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매일 밤 그곳에 앉았다

나는 프레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내 걸음은 너무 느리기에
강연이 끝나기전 정해둔 시간에 일어나 천천히 프레임으로 향했다
이런 방법으로 강연 직후의 복적거림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그 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났다
평상시와 같이 식당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한 인도인 산야신이 나를 세웠다
그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타라고 억지를 썼다
나는 로브를 입고 앉기에 불편하므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싫어했다
그리고 강연 후 느리게 걷는 나의 걸음을 즐겼다
계속되는 그의 억지에 하는 수 없이 승락을 해버렸다
그는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고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나의 얼굴을 극도로 거세게 때렸고
땅 위에 널 부러진 나를 계속해서 구타했다

나의 오른쪽 턱으로 가해진 갑작스런 공격으로 목이 완전히 돌아갔다
두개골과 경추로부터 들려온 부서지는 소리
나는 뒤쪽으로 비스듬히 떨어져 나갔고 착지를 위해 왼손으로 바닥을 짚자
왼쪽 어깨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
쇄골이 목으로 들어갔고 왼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으스러져 탈구되었다
폐가 압착되어 몹시 고통스러워진 호흡
그는 나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며 교훈을 얻었나 묻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갔다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돌고 돌았다
일어 설 수가 없어 땅에 누워있었다

갑자기 강한 힘이 단번에 나를 일으켜 세움을 느꼈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서 서있는 나
나는 누가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는지 안다
그러나 이 공격은 엄청난 뒤엎킴과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호텔로 돌아왔고
바그완이 불가사의하게 강연 후 의자에서 일어서다 옆으로 떨어졌고
강연을 멈추었다고 듣게 되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었으나 위협이 바그완을 향해 드리웠음을 알았다
나에게는 끝난 일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나는 오래 살지 못하리라

회복하기 위해 선더반에서 두 달을 더 머물렀다
그러나 바그완과 나 둘 다 마비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복잡함을 덮쳐오는 복잡함

나는 바그완이 계몽을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후유증은 그분에게 치명적이었다
영체를 가두고 뒤엎키게 했고 함께 일그러져 갔다

그 공격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새로운 뒤엎힘을 불러일으켰다
나의 육체와 영체 모두 여러부분에 손상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내 몸 왼쪽 부분의 막대한 손상
나의 영체에 변화와 일그러 트림을 가져온
수직선은 나선형 모양으로 틀어졌고
마비 상태로 고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다와 핑갈라의 경로와
정수리로 향하는 수습나의 흐름을 막았다
나의 우주체는 이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옮겨 갔다
불균형과 전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손상된 이다
이는 서서히 핑갈라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이것은 슈습나의 열림 또한 천천히 닫기 시작했다

내 몸은 이 새로운 조건들에 역으로 적응하기 시작했다
차게 하는 영역은 닫혔고
몸은 계속해서 뜨거워져 갔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던 음의 기운은 멈추었고
호흡은 불안정해졌다

계속해서 멈추는 약하고 불규칙한 왼쪽 박동
멈추는 각 순간마다 심장을 죄어왔다
강해지고 빨라진 오른쪽 박동

왼쪽 눈은 늘 건조하고 가려웠다
오른쪽 눈은 빨강게 변했고 언제나 눈물을 흘렸다

왼쪽 귀는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나의 평형감각을 잃어 가고 있었다
오른쪽 귀는 청각을 잃은 채 막혔다

왼쪽으로 몸을 틀 때면 마비 상태로 빠져들었다

서서히 닫히기 시작한 제 삼의 눈
오른쪽 두뇌의 떨리는 고통과 함께

나는 수직 기둥의 경험을 잃었다





저러오기 시작한 왼팔

검은 반점들은 손톱이 검게 변할 때까지 손가락 위로 번져갔다
왼 다리의 어두운 멍들은 손상의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의 걸음의 중심도 오른쪽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모든 몸의 변화들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이 변화들과 진행들은 들어내기를 시작한다
공격이 있는 후 두 석 달 동안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바그완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전히 희망은 있었다
여덟 달 전에 이미 도달했었던 계몽의 시점
내 몸의 입구와 출구의 지점을 보았고 알고있다

바그완은 새로운 비상의 조취를 나에게 행하기 시작했다

하강을 저지하는 왼쪽 터널의 막힘
나선형 출입구는 몸 안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온전히 침묵에 머무르며 죽음의 센터로 잠수했다
각 각 단전으로 향한 잠수...죽음을 느끼는 몸
이는 즉시 축소되고 제 삼의 눈으로 재 진입을 시도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역으로 치유하고 몸 안으로 되돌아 들어오는 것은 가능했다

바그완은 무사
나는 투사

인생은 위험이다
나는 결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울부짖지 않는다
이미 일어났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역경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천성이고
이는 바꿀 수 없다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저 인내하며 깊은 치료를 하는 것...막힘은 해소될 수 있었다
쿤달리니를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는 치워졌다
그리고 통로는 다시 자유로워질 것 이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나에게
어느 날 밤 갑자기 빛의 구가 내려왔다
이제 크리슈나 무르띠를 존경하고 사랑할 만큼 성장했다
내 위에서 빛을 바라는 그의 동정의 존재
처음으로 그는 그 자신을 드러냈다
그는 내 위를 떠 있던 세 존재들 중 하나였다
칠월의 고타마 붓다의 강림
그는 나의 인도자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제 동정으로 도와주고 있다

위의 언급을 읽노라면 완전히 미치고 정신나간 소리로 들릴 것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 이것은 진리를 찾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폭로로 인한 나의 평판에는 각오가 되어있다
나는 혹독한 값을 치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험을 찾는 과거의 수행자들은
그들의 수행을 방해 없이 완성하고자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연약한 신체상태의 안전을 위해
계몽 후
육체 그리고 영체와 우주기운의 합병은 가느다란 실 빛 과 같다
몸과 마음의 연계가 위로 떠오르는 무상에
지배됨에 따라 신체는 더욱 더 약해진다

육체적 용기는 영체로 녹아 들고
영체는 우주의 기운으로 녹아든다
그리고 무한한 우주의 공백으로의 궁극적 용해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



나를 방문한 몇 몇의 스승 모두가 할 수 있는한 모든 방면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그 중 가장 놀라게 했던 한번의 방문
그와의 개인적 연계도 없었을 뿐더러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쉬르디 바바 그 우아함과 자애로움이 나를 축복하러 왔다
그에게 헌신하며 공손히 절을 한다
자이 신성한 스리 쉬르디 바바

식은 땀을 흘리며 잠 못이루던 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척이며
때때로 급격한 발작에 완전히 뒹굴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쿤달리니
몸은 단계별로 적응해 갔다

가장 심원한 방법은 가능한 한 깊은 곳에서 죽는 것
그리고 치유를 위해 블랙홀로 깊게 들어 가는 것

몸이 죽음으로 들어 설 때마다
제 삼의 눈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이는 갑작스런 충격의 육체를 다시 불러들여 보호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체를 살려 놓기 위해

죽음의 지점은 외부로 향하는 문 역할을 하고
제 삼의 눈은 내부로 향하는 문 역할을 한다
제 삼의 눈의 근육은 늦춰져 안으로 부터 열리고
원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 들어옴을 허락한다

죽음은 궁극적인 치유자
이것은 언제나 이다 경로를 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나는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두 달의 깊은 치유가 진행되었고
느리게 작업하다가 일년도 걸릴 수 있었다
내 우주 육체의 구의 태아 역시 점점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곧 열림이 생겨 나라라

나는 두 방법 모두로 작업하고 있었다
육체를 영체로 끌어올리고
우주적 기운을 영체를 통해 내린다

바그완은 나의 결의에 무척이나 놀라워 했고 나의 용기와 집중에 감동했다
이것은 나에게 충분한 선물이었다
그 열기는 나에게 도전했고 스승은 나의 열렬함을 경축하고 있었다
이는 계몽을 넘어선 그 어떠한 것이었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의 승리이다

나는 양쪽 모두에서 승리자였다
나는 잃었고 죽었다
바그완은 전투중 죽어간 전사로 알려진
나의 장례식을 치러주리라

7월의 기념일이 다가 오고 있었다
나의 첫번째 사마디
나에게는 상징적이고도 많은 의미를 갖는 날

새로운 부다 홀이 바그완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
그날 하루 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초라한 요청을 보냈다
스승의 날 1987년 7월 11일

나의 요청이 질책과 함께 단호히 거절 당한것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확실한 적...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정받은 미친자

그래서 나는 긍정적 측면을 보았다

바그완은 1987년 7월 7일 그 새로운 부다 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호텔 담장이 부다홀 바로 뒤에 있었으므로 나는 혼자 웃었고
내가 서있는 곳이 바로 바그완 뒤쪽이라는 것도 알게되었다
단 십 미터 정도의 거리

아마도 이것은 그분의 선물일 것임을
아쉬움 안으로 들어가려 애쓰던 어리석음에 웃음을 흘렸다
그분이 새로운 부다 홀로 나올 때면 나는 미친 듯이 찬양하고 춤을 춘다
그분의 뒤 단 몇미터 떨어진
그분에게 쏟아지는 수천명 산야신들의 모든 에너지들은
내가 춤추는 이 곳에서는 마치 해일과 같이 느껴졌다
내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감사를
물결에 물결을 이루는 그 물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환희에 춤을 추고 있는 바그완

나는 나의 앓을 그가 알고 있음을 안다
축제가 다가온다
그저 이 순간에 살고 그들 속으로 빠져들자
그분이 나타날 때 마다 사라지는 나의 고통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분의 강림을 찬양했다

고요해진 대기
바그완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잔디에 앉아 침묵으로 헤매며
모든 단어와 모든 침묵을 들이켰다
금세 떠내려 가는 시간

눈을 떠 화가난 몸짓들을 보았다
몇 명의 경비원들이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아쉬람 쪽의 담장 넘어에서

선더반 정원에 있는 나에게 거칠게 손가락 질을 해댔다
이 곳은 내가 사는 곳의 담장이고 나는 이 곳에 머무는 사람이었다

나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어이 거기서 비켜서...거기서 비켜서란 말이야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이곳은 그들의 사유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노예도 아닐 뿐더러 그들의 권력 하에 있지도 않았다

누구야 씨...도대체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허튼 수작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이 경비들이 내 호텔 정원에 있는 나를 협박하려 들고 있었다
말하기를 어이 거기서 비켜서...거기서 비켜서란 말이야

이는 해도 해도 너무해 한도를 넘고 있었다
단숨에 자리에서 일어나...깊은 숨을 들이키고...그들에게 퍼붓기 시작했다
최대한 크고 정확한 목소리로
부다 홀 전체 와 바그완이 나를 들을 수 있도록

니가 누구라고 지껄이는 거야
니가 세상을 다 소유라도 한거야
맨 앞 줄에 앉아 있는 권력을 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거나
아쉬람이 그들 사유 재산이나
그들이 이제 붓다를 사서 소유하기라도 한거나
부처가 그들에게 팔려갔기라도 한거나
바그완이 오로지 너희들의 일상 유희를 위한 꼭두각시라도 되었나

첫 줄의 권력 행사자들이 나의 표적이었다
그들은 나의 모든 말을 들었다
나는 바그완이 미소 짓고 있음을 알고 있다





아쉬람 경비원들이 담장을 뛰어 넘어와 곧 나를 붙잡았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안정된 호흡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르기를 긴장을 풀고 진정해
침착하고 즐겨
나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마친 상태
그리고 나의 황금 같은 말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해학과 호흡의 침착함을 알아 차릴 수 있었다
그들의 심각한 얼굴에 대고 웃음을 터트렸다
네 명의 건장한 경비원에 둘러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 모두 나를 빙 둘러싸고 앉았다...그때 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너무 바보처럼 보였다...사실은 유쾌한...나를 원으로 둘러싼 네 명의 경호원

그들에게 속삭였다
그래 차분하고 침묵해...너의 눈을 감고 안으로 들어가
나는 네 명의 개인 보디가드를 가졌다

이는 그들에게 기괴한 일이었다
나의 갑작스런 유머와 농담들을 보고는 불편해 했다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 제자가 된 듯함을 느꼈고
바보스럽게 보였는지 일어나 가버렸다
오직 한 명의 경호원만이 강연이 끝날 때까지 나의 곁에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침묵에 머무르며 바그완의 한 방울 한 방울을 마셨다

끝난 강연...시작된 춤...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경비원은 나를 보고 미소짓는다
나는 얼마나 미친 녀석인가
순진하고 미친

강연이 끝났다

수 백 명의 산야신들이 선더반 호텔을 지나간다

모든 이들이 내가 누군지 보기 위해 담장을 헐긋 거린다

오 소리치던 이자가 바로 바그완의 2인자를 꿈꾼다는 그 미친 녀석이군

경호원과 경영진이 가진 회의에 대해 듣게되었다

그 후 즉시 하나의 전갈이 내게로 왔고

출입이 허락 되었으며 추방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바그완 말했기를...그 사자의 포효

이 전갈을 건내준 경호원은 놀라워했다

내가 출입을 허가 받았다는 사실에...완전한 모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 많은 산야신들의 쳐다봄과 매일 같이 해대는 비판들은 받을 만큼 받아왔다

거두절미하고 바그완에게 깊은 절을 하고

가방을 싸서 그날 떠났다

이곳은 나의 장소도...나의 공간도 아니었다...너무 심한 통제

개인을 파괴하는 군중

나는 나아 갈 것이다...바그완이 있거나 없거나...진리이거나 아니거나

나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가 아니다

나는 허락한다고 해서 꼭두각시처럼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추방한다고 해서 꼭두각시처럼 입다물고 있지 않는다

나는 내 고유의 자유...고유의 천성...고유의 인생...고유의 생득권을 가졌다

그렇게 될 것 이었으면 그렇게 되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리라

될대로 되라

저 너머 저너머
내부로
왜 달을 보고 한숨 짓는가?

내부를 보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달을 너머 응시하라 !

어두운 구름들
땅거미로 드리워진
녹아 들어라 !

보름 달 밤
내려 앉는 어둠
은백색 위를 떠다니는 구름들

시간이 조용히 미끄러져 지나가는 듯
불로의 세월은 속삭인다
불멸함으로
이것이 유일한 진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침묵과 정적
피어나는 봉오리
이른 안개낀 아침의 이슬 안에서
순결
그 아름다움의
그것은 심홍빛 빨강
부드럽게 펼쳐온다

매혹적인
바로 그 심장
영원함



타이 항공은 내가 선호하는 항공사가 되었다
여성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그 난초꽃 만으로
나에게도 하나 가져다 줄 것을 늘 요구했고
그들은 언제나 아무 불만 없이 그리하였다

이 난초는 언제나 나를 감동시킨다
이는 나와 타이항공을 이어주었다
그 따뜻한 타이식 스와스티카 환영화 함께

난초와 비행기의 그 적갈색은 나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나는 뿌네를 떠났고 오렌지색 승복을 입는 산야신이 더 이상 아니다
전생에서 티베트인이던 나는 승려였다
정확히 같은 적갈색 옷을 입었던 곳
이제 적갈색 옷을 입을 것이며 티벳 구도자라 밝힐 것이다

홍콩에 다시 도착했다
적어도 지금은 어떤 정상적인 느낌을 갖는다
끊임없던 비판과 공격이 없는 세상
세상은 나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따뜻해 보인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긴 하지만 친절하고 호의적이다
많은 이들이 수행자로서의 나의 경험을 물어 댄다
그들의 질문은 솔직하고 캐물었지만 사려깊고 지극히 사랑이 넘쳤다

여동생 쇼나와 그녀의 남편 라메쉬를 만나 너무 행복하다
그의 타이와 인도의 기질이 섞인 온화함이 무척 좋다...그의 겸손함과 선량함
그리고 나의 동생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들과 갓 태어난 조카 투샤를 극진히 사랑한다

나무와 자연 청록이 그립다
이상한 느낌을 주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높은 건물들
나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걷는지를 잊어버렸다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도시의 속도와 긴박함
지나가는 각각의 차들은 마치 내가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했고
항상 현기증이나 중심을 잃었다

돈도 옷도 없이 그렇게 여기로 왔다
그저 한 별의 빛 바랜 얇은 승복...내 여동생이 싫어하는
몇일 후 그 옷이 없어진 걸 알아 챘다
내가 잠을 자는 사이 동생이 조용히 그것을 내다 버린 것이다
그녀에게 화가 났다
그 승복은 가격을 매길수 없는 나의 사마디 승복이었다
이는 나의 첫 번째 승복이었고 그것을 보물로 간직하려 했었다

어찌하겠는가...동생의 사랑...오직 좋은것 만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오빠를 사랑하는 그녀는 이런 나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이제 적갈색 승복을 입고 싶어 동생에게 말하자
그녀 역시 그 색이 좋다한다
적어도 적갈색을 입으면 이상해 보이진 않았다...홍콩에서 더 받아들여지는
힌두사제의 밝은 오렌지색 보다 훨씬 좋다며 그녀가 말한다
그래 좋아
우리는 네 별의 승복을 만들고 이것들이 나의 새로운 티베트의 승복이다

쇼나와 라메쉬가 나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앉았다
그들은 내가 세상에 정착하기를 돕고 싶어 한다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해 그들과 같이 아이를 가지라고

맘마 미아...내가 어디로 온거야...후라이 팬 속에서 나와 이제는 불 속으로

그들의 인생에 대한 순박한 관점을 이해하며 침묵했다
그들은 적어도 순수하게 나를 사랑한다....이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인간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느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여기에 있고 이것에 감사했다

나는 완전히 무능력함을 느낀다
나의 느린 움직임은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듯 보인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돈을 벌며 시간도 버는 방법을
조르바와 붓다의 균형과 이해

라메쉬와 쇼나는 매우 친절했고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사이 나의 삼개월 여행비자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 회사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도록 준비해 주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
폭행에 의해 손상된 머리 목 그리고 척추를 검사받기 위해
검사의 결과는 척추가 손상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상체의 견갑골의 전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간다
심각한 근육 조직의 뒤틀림과
왼 손목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이는 내가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만들었다

깊은 조직 마사지가 필요하단 걸 알았지만 홍콩에서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무술을 연마하기로 결심했다
스스로 몸을 치유해 나가기 위해
그리고 태극권의 부드러운 치유 움직임을 선택했다
스승 첸 주린에게 전화를 넣었고 그는
내가 그의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나 보자고 했다





예순 다섯 살인 스승 첸 주린은
베이징 대학에서 태극권을 가르쳤으며 지금은 유명한 대가이다

그는 나를 처음 본 순간
나에게 매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 있냐고 묻는다
즉시 그가 내 걸음의 깊이를 이해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
이는 태극권 스승의 느린 오리걸음 같은 것이었다
수직 높이의 알아차림과 완벽한 균형

어떠한 질문없이 미소 짓는 그
그리고는 개인 교습을 승낙했다
그것도 가든 도로의 에스토릴 코트 아파트 옆 공원에서
그가 할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비싼 개인 교습비를 대주기로 수락한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겪어온 경험들과
어떻게 이 완벽함에 도달했는지에 관해 그의 이해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태극권의 고대 양 108개 동작을 배울 것이었다

그가 가르쳐준 자연스러운 각 동작들을 잡아내는
나의 파악력과 이해력에 무척이나 놀라워했다
그가 흥미를 느낌에 따라 교습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태극권의 각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매우 겸손했고 나에게 굉장히 솔직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각 움직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번 웃으며 말하기를 나의 자세가 완벽했고
그는 자신의 자세를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언제나 말하기를...오래된 나쁜 습관...내 오래된 나쁜 습관
니가 정확해...거기서 니가 정확했어

내 동작들은 단전을 중심으로부터 외면으로 표출되었다
만드는 동작들은 완벽했고 흐름이 있었다
내면의 차륜은 원이다...그러므로 우아하다

노력이 없는 움직임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
힘들이지 않고 방해 받지 않는 부양

나는 배운 108개 자세로 하나씩 조정하고 있었다
열정으로 그 자세들을 함께 연결해 코스를 완성시키고
사십일 안에 끊임 없이 각 동작을 다 기억해냈다

매일 태극권 동작을 세 시간씩 연습하고
저녁 식사 후 한 시간 더
정원 길 공원과 이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다
그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와 빈 공간들
홍학과 색다른 새들 그리고 동물들

전 태극권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는 데는 사십 오분이 걸렸다
그리고 곧 중국 태극권 숙련자들과 그 지역의 중국인들이
나의 태극권 연마 모습을 보기 위해 외진 이 공원으로 몰려들었다
심지어 빌딩의 거주자들조차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그가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그를 도와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도왔다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쌓길 원하는 그의 배려였음을 알게되었다
항상 내 자신의 능력을 경시해 왔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하라고
나의 이해를 좀더 자유롭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해에 태극권은 아시안 게임에 등극되었고
그는 내가 시합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말하기를 매달은 내가 따 놓은거나 다름없다며
그의 이십 오년 가르침에 나처럼 뛰어난 제자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는 곧 가깝고 친해졌으며 그에대한 대단한 존경을 가졌다
그의 지혜와 완전한 꾸밈없는 정직함
그의 나이와 연륜이 나를 앞서듯이 마치 스승을 대하듯 그를 대하였다

우리는 곧 바그완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그는 쿤달리니와 나다브라흐마 명상을 하고
바그완의 도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 역시 그의 도교적 접근 중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경험으로 부터 나온 깊고도 명료한 설명들은
노자의 도덕경과 역경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었다

뿌네 공동체에서 산야신들과의 말썽들에 대해 의논했다
그는 웃으며 도교적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하였다
나는 불필요하게 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화살을 피하려고 노력한것이 오히려 내안에 불을 만들었음이니
이것이 바로 실수 였다고 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그들과 동화되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바로 그 시도가
그들에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 셈이었다



그는 부드러움의 힘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의 청명함과 지혜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옳았다
다음번에는 깨달은 자 대지의 전쟁에서 총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부드러워지고 전쟁터 그 자체를 흡수할 것 이다
스승 첸 주린에게 감사를
당신은 나의 시야를 열어 주었고 이에 절을 올립니다

나는 홍콩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의 태극권을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위대한 용기와 겸손함을 지녔다
한 인도인이 대단한 열정으로 그들의 운동을 배우고 즐긴다

쇼나와 라메쉬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아들 튜샤를 사랑했지만
홍콩에서의 시간은 곧 돈 이었으므로
이 태극권 휴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취업 허가 요청은 받아 들여졌다
나의 여권에 찍힌 1987년 10월 9일의 날짜의 인장

이제 사무실에서 나의 업무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수정 손목시계를 제조하는 회사
이곳에서 극도의 번거러움과 지루함을 보았다
둥글고 각진 시계들...조립 부품...포장과 발송
통풍도 되지않는 높은 층에 위치한 사무실들과 하루 종일 켜져 있는 에어컨

쇼나와 라메쉬에 대한 사랑과
태극권에 대한 새로운 흥미가 나를 계속 일하게 했다

중국 사람들과 그들의 음식 그리고 도교적 문화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다시 독서를 시작했다
대부분 도교의 스승들과 샤오린 절의 스님들에 관한 책들
이소령을 무척 좋아하여 홍콩에서의 그의 삶과
그리고 다른 형태의 우수와 무술에 관해 읽었다

빠져들게된 그들의 동양화
대나무 그림들과 심미적 방법들의 표현

사무라이와 일본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 일본의 단시와 이 고유의 세상에 매료 되었다

쿄도의 도교 절들 속으로 그 끝없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는 감수성과 창조적인 표현들의 온전한 새로운 세계였다

용을 알아차리다
이제 동쪽의 세계는 내게 큰 흥미를 가져다 준다
홍콩 중국 일본 한국 태국
이들은 바그완을 위한 미래의 새로운 영역이었다
그들은 그분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칠십 년대의 다른 모든 스승들이 그러했듯 그분이 큰 실수를 했다 느꼈다
막연한 아메리칸 드림의 거품
사람들은 물질주의의 걸 포장에 곧 싫증을 낼 것이고
그들의 정신적 갈망 위해 내면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다

서양은 단순히 무엇이 내부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심미적 가치들과
이의 심원한 문화와 지혜를 맛보지 못했었다

동양은 개발이 느렸고 무시 되었으며
서양은 선진국의 강함과 거만함을 지니고
그들의 가치 체계를 강렬하게 길들여 왔다

바그완은 제왕 일 수 있었다
그리고 동양에서 큰 이해로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드 넓게 퍼졌을 그분의 수행
그분의 불꽃은 밝게 빛이 나고 생생하게 유지되었을 것이다

토양은 이미 거기에 존재했다
동양은 현대적 붓다와
그분의 다이아몬드 같은 명료하며 최신화된 고대의 지혜가 필요했다
잠자고 있는 용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

동양에서는 제왕마저도 깨친 이에 앞드린다
서양에서는 선택된 대통령과 그의 권력에 앞드린다

수련을 위해서는 태극권 복을
일을 위해서는 적갈색 승복을 입고 있었다
이는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미국에 사는
라메쉬의 다른 형제들은 내심 눈살을 찌푸렸다

계속해서 적갈색 승복을 입고 출근했다
두 달을 태극권을 즐기며 일을 해 왔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동양의 문화를 읽고 흡수하고

곧 나의 승복은 문제거리가 되었다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에서 그의 형과 심각한 논쟁을 가졌다
정상복을 입든지 아니면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 취업허가는 같은 날인 1987년 12월 3일 마감되었다
그날 저녁 인도로 떠났다....내 승복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다

동생과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너무도 갑자기

이제서야 미안함을 느끼고 항상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나 곁에 있어 왔는데
불필요하게 이런식으로 행동해 버렸다

나는 이렇다
나는 그저 이렇게 만들어 졌다

그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다정스레 이야기 할 때마다
비위가 상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이해 되어질 만큼 얕단 말인가
아마 나의 존재 깊숙한 예고가 다쳤었나 보다

차리리 잘못 해석되어 지는 것이 좋았다
이편이 기분이 더 나았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리고 자처하는 홀로됨

머리를 땅에 박은채 생각한다
내 안의 반항기는 그저 수그러들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전투가 필요하다...새로운 도전...더욱 성장할





돈 한 푼없이 인도로 돌아왔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인도에 있는 일가 친척들은 그 얻기 힘들다는
홍콩취업 비자를 던진 사건을 전해 들었다
나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과 떠남
그들 모두 나를 안다...나의 갑작스런 폭발...그리고 거리를 유지해야 함

돌아갈 곳 없이 곤경에 처했다
항상 떠날 때 다리를 태워 버리는 나

혹시 태극권을 가르쳐 이 길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몇 명의 친구들은 내가 태극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달 안에 여섯명의 학생을 모아 매일 수업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빨리 돌았고 사람들 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왔다
그리하여 이십명의 학생을 모으게 된다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뉴델리에 있는 대사관에서 온 외교관들이었다
스페인 대사관의 수석 비서
멕시코 대사관의 문화 대서
폴란드 대사관의 수석 비서
이태리 대사관의 통역관
미국 대사관의 해병대원
그들의 호평과 찬사와 함께 명단은 점점 늘어났다
나는 곧 외교 정기 순회 행사에 올라
그들의 모든 파티와 야회에 까지 초대되었다

한 수업에 네 명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집중하며 가르침을 쏟고 싶었다
그리고 각 각 한 시간 삼십분 가량 하는
서너 개의 수업을 매일 하기 시작 한다

하루에 여섯 시간 씩 태극권 수업에 완전히 열중하면서
내 자신을 깊게 수련 시킬 수 있음에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퇴직한 대령의 대저택에 방하나 달려있는 개인 정원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이곳이 편리하고 편안하다

지금까지 내 몸을 경시해 왔으므로
그 다음 한해를 가르치고 내몸을 깊게 단련하며 보낸다
정기적인 깊은 조직 마사지를 받기 시작하여
견갑골 전이와 근육의 손상을 치유한다

나머지 돈 모두를 더 많은 책들을 사는데 쓰고 더 읽어 나아간다
대부분 불교정원 불교사원 동양적 삶의 방식과 무술에 관한
팔 백 권의 책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서재가 필요했다

그 폭력 사건 이후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집중해 왔다
천천히 가느다란 생명실을 연결하고
정수리를 통과하여 몸을 수직선으로 맞추어간다





태극권은 도교의 스승들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동작을 하는 동안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여
호흡이 안정되도록 두어 단전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균형 잡힌 움직임을 이용해 체중을 부드럽게 옮기고
호흡이 땅 속 깊이 관통 하도록 허락함이다

한편으로는
그 중심 단전을 통해 위로 끌어 올리고 그것을 외부로 표출 시키는 것

외부로부터 중심으로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외부로
그 두 가지 모두가 녹아 내려 하나가 될 때까지
몸 전체의 외면은 그 중심으로 채워진다

하나는 중력의 비밀을 사용하고 있음이다
중력은 언제나 수직 하강 하므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그저 존재하는 것
중력은 수직 실을 땅으로 단단히 죄고
쿤달리니를 하늘위로 오르도록 자유롭게 한다

인간은 정확히 나무와 같다

인간은 하나의 씨앗이고 옳은 토양에서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것이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는 더 높게 가지는 더 울창하게 자란다
무성한 잎과 과일이 맺히고 꽃들은 하늘로 만개할 것이다

태극권과 모든 명상 방법들은

뿌리를 깊게 하는 것

그 의미는 체중을 단전 아래로 가라앉혀

발을 통과하여 땅 속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

무게가 안정됨에 따라 호흡도 따라 안정 된다

하나는 발의 호흡을 위를 향한다...단전으로

나는 언제나 발바닥이 너의 영혼이라 말한다

쿤달리니를 하늘 높이 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

바보스럽기 그지없고 자만하며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저 중력의 중심을 낮추고 땅 속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하면 자연적으로 위로 향하는 힘이 생겨날 것이다

모든 힘은 그와 반대되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히 땅으로 가라 앉아라...하늘은 너의 선물과 상이 될 것이다

쿤달리니가 풀릴 것이니...너는 중력을 초월한다

인간은 중력을 이겨낼 수 없다

인간은 중력속으로 가라 앉아야만 한다

내면의 쿤달리니는 하늘 위로 알아서 그의 길을 찾아 풀릴 것이다

태극권과 위빠사나는 같은 내부 수직정렬을 이용하고 있다

중력을 도구로서 이용하며 땅으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는것

태극권은 108개의 자세를 사용하므로 더욱 복잡하다

중심을 원형으로 퍼트리고 단전을 팽창시키는 것

극도로 과학적인 위빠사나

이 수직 순간 속에 현재하는 존재로

단순한 한 발 자국에 관한 방법이다

단전을 땅 속으로 천천히 안정시키며 걷는 것

상체의 일곱 차크라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것

모두가 단 한번에...하나의 물결 같은 동작 안에서

위빠사나는 소위말해 외피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 이다

오직 매우 얇은 층

그리고 수직 물결은 몸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드러운 작업이다

좌선 안에서...정좌의 세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사실상 좌선에 있다
호흡이 단전 속으로 안정되고 이의 흐름이 발로 향함을 허락 하는 것
땅 속으로 너의 뿌리를 창조 하는 것

모든 방법들은 안으로 그리고 아래로 정착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의 메시지를 받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와
무념에서 상념으로의 경험을 연결시켰다

무념의 수직 경험의 끈은
천천히 마음을 통해 연결되고 말로 표현되었다

뿌내 아쉬람의 위험하고 역행적인 영향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경시 되는 곳
심지어 침묵으로 조차 계몽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 되는 곳

바그완 실험 전체가 자신에게 역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대신
보이지 않게 죄어오는 통제가 권력과 경영진 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거대하고 큰 경험을 표현하지 못함은 목 센터를 질식 시키고
아래로의 막힘을 야기시켜 심장 센터와 그 이하를 질식시킨다

그 의식의 폭발은 이러한 상승력을 창조하며
활기와 축복의 호우를 방출한다
작은 육체마음의 용기에
어떠한 형태의 표현도 금지시키는 것은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인간은 그물과 같다
다차원의 표현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채널들은 과부하 되고 짧은 순회를 한다

홍콩에서의 다섯 달
그리고 델리에서 지난 열 여섯 달을 보냈다
바그완과 뿌네로 부터 떨어져 지낸 긴 시간의 스물 한 달

바그완 첫 번째 새로운 명상
신비의 장미를 막 발표했음을 들었다
향수...깊은 그리움
나는 이의 진실된 출발을 안다
1986년 7월 바그완에 대한 나의 계시

바그완이 그림고 그분의 사랑스런 돌봄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더 깊은 수행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신체적으로 훨씬 강해졌다
더 깊이 깊이 자라난 뿌리 더 넓어지고 굽어진 줄기
더욱 커지고 넓어진 느낌이 든다
내 걸음은 느렸지만 존재의 무거운 감각의 중력이 내 주위에 내려 앉는다

뿌네 아쉬람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 발견한 자아를 소멸 시키는 도교적 접근과
강한 수련으로 이를 확신한다
나의 새로운 경험을 숙달시키고 시험해 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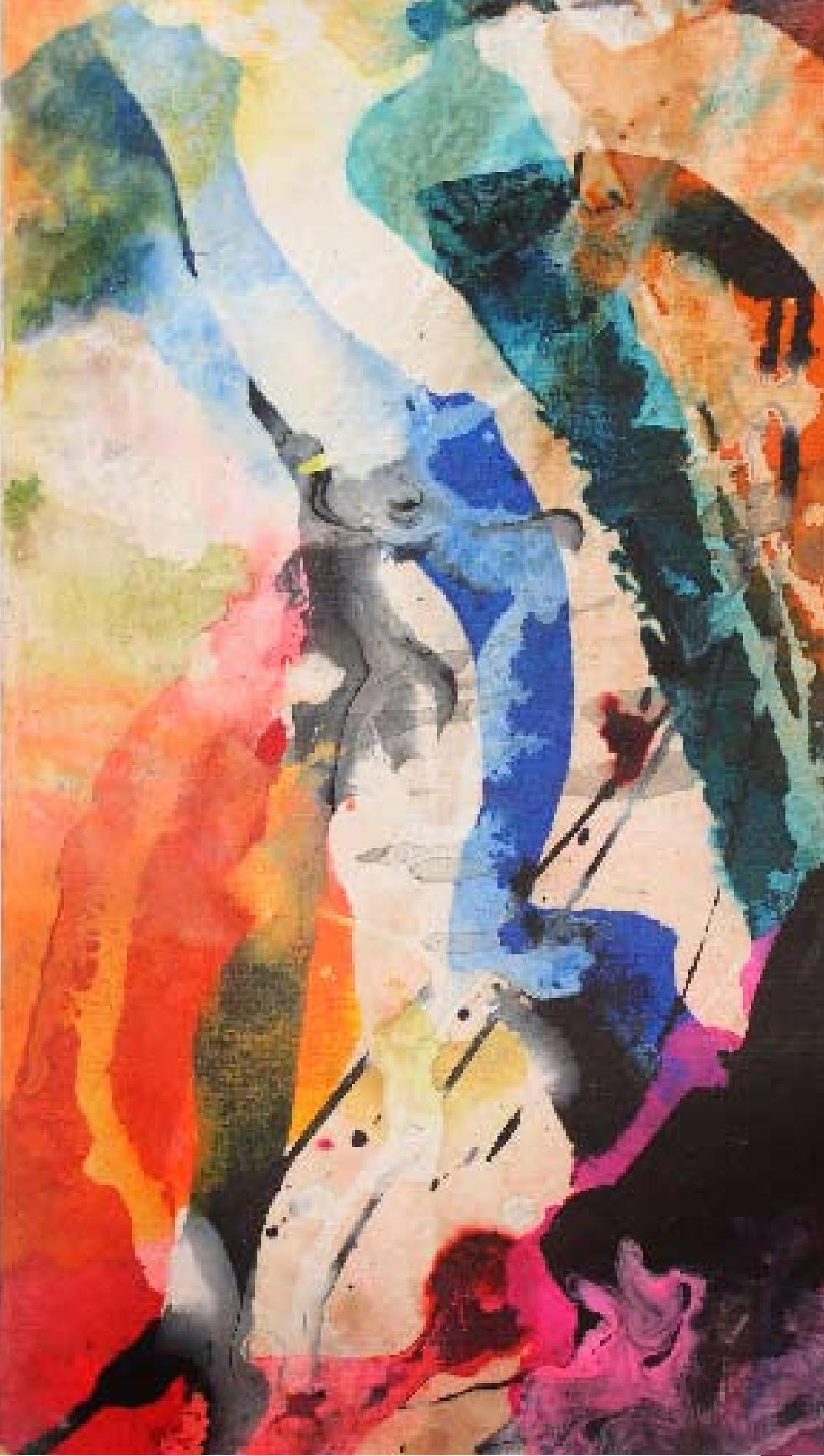
뿌네 아쉬람에는 나를 공격하는 많은 이들이 있으나
나를 사랑하는 이들 역시 존재하는 곳이 기도하다

그들은 조용한 소수 집단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지나가며 조용히 바라 보거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다가와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
비밀리에 나와 가까워 지고 나의 경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남들의 눈에 떨 것을 두려워했다

그 조용히 이해하는 산야신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졌다
침묵하고 이해하며
문제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는 것

그 권력을 가진 자들과 경영진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졌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 자신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며
시끄럽게 그들의 의견을 떠들고 다닌 다는것

나는 누가 독을 퍼트리고 다니는지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았다
나는 그들 모두를 알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들의 행위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1989년 4월 뿌네로 돌아간다
이 곳의 세상은 변했다
새로운 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환경
서양 스타일의 옷으로 사라져 버린 오렌지 승복
많이 안정되고 덜 흥분되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그저 하루 일과 명상을 받아 들이고 있다
열광의 공기는 열어지고 멀리 사라졌다

그들은 안정되어 있었고 계몽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그완과 함께 여기 있을 수 있음으로 만족한다

도착하여 호텔에 방을 잡자마자 상황을 탐색한다
누가 현 경영진에 속해 있는지 조용히 물으며
닐람 타타간 마누 자린 그리고 스와바브가
아직도 거기서 권력을 쥐고 있는지에 대해

그래요...그들은 여전해요 라고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뿌네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느리게 걷는 그 녀석이 돌아왔다...그들은 여기 저기에 염탐자를 두었다

몇일을 기다리며 지켜본 후 옷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알게 되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보게 되면 머리를 숙여 인사하리라 마음먹는다

존경을 표하고 새롭게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리라

나는 변했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한다

그들이 바그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므로

그들의 인생을 그분에게 바친 사람들 이므로

헐렁한 검정 쿵후복을 입은채

아쉬람의 문없는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자마자 경비원이 인사를 한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돌아 왔군...들어가서 면담을 하시오

마누를 만났고 겸손히 인사를 한다

그들을 만나서 기쁘고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준 것에 대한 감사한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전과 다른 사람 이라고 말했다

마누는 행복해 하며 나를 축복했고 내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저기 알렸다

고개를 숙이고 나무같이 구부리는 도교식 접근이 먹히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인다

그들은 그들의 예고를 갈고 닦는걸 무척이나 좋아한다

안으로 걸어 들어 가자 크리슈나 하우스 사무실에서

엄격한 얼굴로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닐람과 타타같이 보인다

그들은 나를 주시하리라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조용히 움직인다

나의 첫 번째 침묵한 내면의 절을 올리기 위해 라우쭈 문에 도착한다

구르디알 싱은 뿌네에 온 첫날부터 나의 절친한 친구였다

크게 웃으며 나에게 달려와 안으며

다시 보게 되어 너무 기뻐...항상 너를 기억했었어

부다 그루브 뒤 쪽을 거니느 너를 보았어

많은 밤 내 꿈 속에서

니가 돌아 왔으니 축하를 해야지

그는 하스키가 뿌네에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고 우리는 무척이나 가깝게 지냈다

그는 크리슈나 하우스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스키는 달려와 나를 포옹한다

오 라즈니쉬 내사랑 오 라즈니쉬 내사랑 돌아왔구나 너무 멋져
산책을 하자며 그녀는 내 손을 잡으 채 팔장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를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그녀가 이곳에 있어 정말 기뻐다

구르디알과 하스키 둘은 나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다

아쉬람에서 내가 겪은 시련을 잘 아는 그들은

내가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 준다

또 라니 다비드 그리고 요기에게 나에 대한 좋은 말을 해주려고 애를 썼고

그들의 선의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스키는 매우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개방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브라질 사람

그녀의 방식으로 반항적이고 격렬한 그녀

나는 다시 돌아왔다

언제나 농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웃기 시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웃는 부다 구르디알 싱을 위해

2005년 1월9일 그가 떠나는 길 크게 웃는 소리를 듣는다

한 젊은 수도자가 수도원에 도착한다

그는 다른 수도자들을 도와 오래된 법전을 손으로 복사하는 일에 배정 받았다

그는 수도자들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복사하고 있음을 알아 차렸다

그래서 대수도원장에게 찾아가

만약 첫번째 복사본을 만들었던 그 누군가가 작은 실수라도 했다면

결코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 할 것이고

그 실수는 이후의 복사본에서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 라고 했다

그 대수도원장은 “ 우리는 세기를 걸쳐 복사본을 복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너의 그 지적은 고려해 볼만해”

그는 공적으로 수백년 동안 공개되지 않고 보관되어온

원본 법전이 숨겨진 어두운 동굴 안으로 내려갔다

몇시간이 흘렀는데도 대수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내서 젊은 수도자는 걱정이되 그를 찾아 아래려 내려가자

울부짖으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있는 그를 발견한다

“우리는 R을 놓쳤어! 우리는 R을 놓쳤어! 우리는 R을 놓쳤어!”

그의 이마는 피로 물들어 상처를 입고 눈물은 그칠줄 몰랐다

젊은 수도자는 대수도원장에게 물었다

“무슨일 입니까?”

그러자 목이 메이는 소리로 대수도원장은 답한다

“그 단어는 CELEBRATE 축제였어!!

R이 빠진 CELEBATE 금욕이 아니였어!!”

바그완이 부다홀에서 강연을 한다
평상시와 같이 나는 줄을 서 기다린다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다른 이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부다홀로 들어간다

항상 이 자리를 택한다
그분의 의자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자리
뒤에 있는 붓다 대리석 상 근처

바그완이 들어오고 폭발하는 대기
나는 눈물 속으로 빠져든다
돌아온 마법같은 순간들
지금여기 그분은 빛을 발하며 존재한다

사랑이 녹아있는 대기
바로 그 순간 나는 모든 과거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모든 산야신들에게 감사를 느낀다
우리 모두는 이 함께 함에 있다
우리가 하나의 깨달음의 대지 이다

바로 그 몇 일 뒤 바그완은 결정했다
무기한의 침묵으로 들어가고 강연을 중단하기로

언제나 정확한 나만의 시간과 똑같은 일과를 가진다
오후 2시 30분에 라우쭈 문으로 향해 걸어 간다
첫 번째 내면의 절을 바그완에게 올리고
하얀 백조가 있는 연못으로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에 의해 잠시 멈춰 선다
그리고 아침 차를 위해 보디다르마로 향한다

며칠이 지나
나는 닐람과 타타갓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정문을 들어서 크리슈나 하우스를 지날 때 마다

걷는 길을 바꾸었다
문 없는 문에서 시작하여 부다 그루브를 향해
그리고 라우쭈 게이트로 향해 돌고 다시 돌아가
연못에 멈춰서고 다시 보디 다르마 카페로 돌아갔다
이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내 걸음의 운율을 깨고 아침 전체가 엉망이 되었다

며칠 후 타타갓을 멀티버시티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다
내가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고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것 이라고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았고
나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걸으라고 하였다

언제쯤이나 이 세상은 한 인간에게 그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허락 하려나
이 권력에 굶주린 개들은 높은 자리의 의자를 차지하는 데만 몰두한다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러나 공격은 준비한다

바그완이 나의 모든 생각들을 보고 듣고 있음을 안다
이러한 재앙을...내가 무엇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에 굶주린 게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아쉬람에 갔을 때 크리슈나 하우스가 폐쇄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바그완이 이를 혁신하라 명했다
모든 경영진들은 사무진들이 재 배치 될 때까지 휴가를 허락받았다

한가지 더 스와미 스와바브가 바그완의 인도 대사가 되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스물 한명으로 구성된 내부 조직이 새로이 결성 되었다고 했다
아쉬람의 매일의 일상적인 운영을 맡기기 위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이를 개를 가르치는 선 막대기라 부른다

바그완은 그의 호통치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의 선 막대기
굶주린 개들이 자신의 권력 게임에 정신없도록 만드는 도구
그들이 씹을 수 있는 큼지막한 뼈다귀를 던져 주어라

그리하면 힘이 강한 개는 더 강한 개에게 먹힌다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빨리 떨어 진다

이 방법으로 그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완벽히 채우고
그리하여 모든것을 잃고난 후에야 눈이 뜨여 계몽을 하거나
혹은 권력이 가져다 준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권력 모임 중 그분이 배치한 소수를 제외한다
그의 비밀 조커로서

그의 양날 검

불행히도 안면이 너무 두꺼운 이들

그들의 권력에 대한 환상을 사랑하여...그분의 지혜를 차마 보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조만간 그들은 무너질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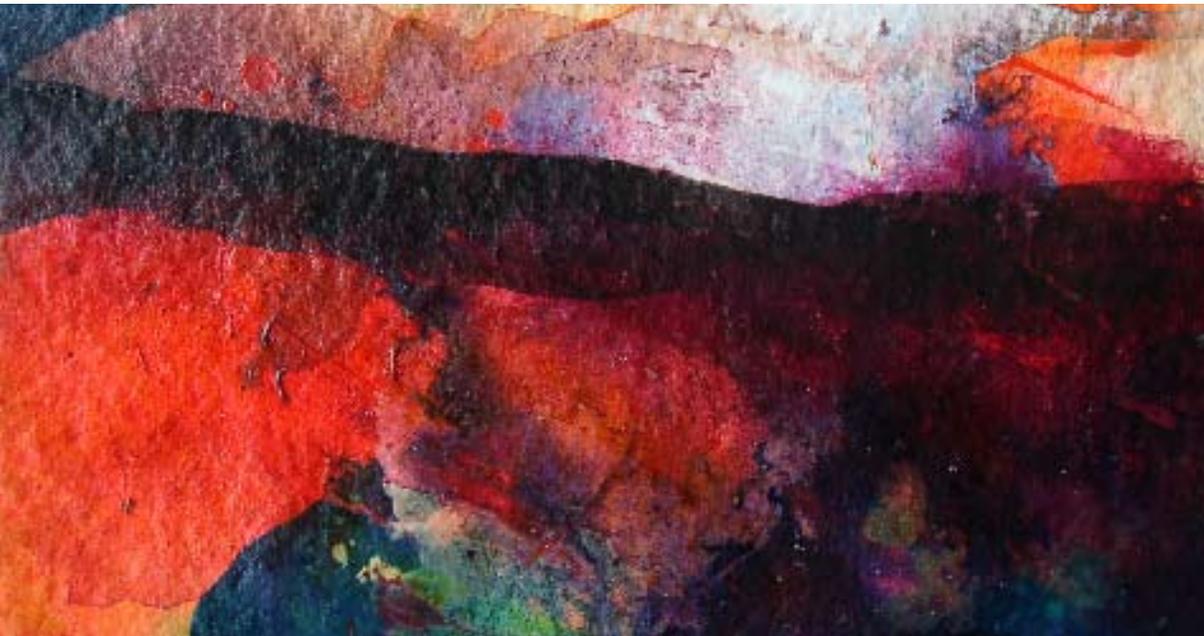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

힘이 더 센 어떤 개가 그들을 내쫓으리라

사람들이 말하길 모든 개들에게도 그만의 날이 있다 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다...끝이 없는

멍 멍...왈 왈



5월 19일 바그완이 공식 석상에서 말을 하지 않겠다 성명한다

실세들은 그들이 새로 발견한 밀려드는 권력에 바빠졌고

나는 돌아오는 석 달 동안 그들의 눈초리를 면하여 홀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 자세를 유지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태극권 수행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크리스탈 피라미드 곁의 백조 호수 근처에서

매일 좌선을 한다

오후 4시부터 저녁 강연 테잎이 끝나는 8시 30분 까지

그리고 저녁 식사 그리고 다시 아쉬람 문이 닫히는 11시 30분 까지

모여있는 나의 고요함들을 가능한 한 깊은 곳에서 채우고 싶다
바그완은 그의 대업에 새롭고 극적인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준비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나
그러니 잘 먹고...깊이 자고 그리고 연못 옆에서의 멈춤의 정좌를 한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왼쪽 귀의 들림을 균형잡기 위해
폭포 소리가 왼편에서 들리는 자리를 고르고
척추를 예민하게 하기위해 피라미드의 모서리를 등을 지고
라우쥬 게이트를 마주보는 자리를 선택했다
명상을 위한 완벽한 장소 발견
산야신들의 시야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장소
나의 주요 명상적인 위빠사나 걸음 수행을 멈추었다
그저 깊고 고요히 앉아...나의 연못을 채우는 것...나는 곧 이것이 필요하리라

몇몇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웃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언제나 그들 걸음 지날 테면 내가 게이 같다거나
동성애자의 과장된 몸짓을 한다 수근거린다
나 역시 내 걸음이 보기에 괴상하고 굉장히 경박함을 느낀다

나는 이 소문이 점점 커짐에 따라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음을 이해했다

바그완은 오렌지 색 승복이 뿌네 경찰의 시선을 끌고
회룡을 유인함을 이유로 이의 착용을 금지 했다

그러나 그는 대체할 승복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내 느린 걸음을 승복 뒤로 숨기기로 했다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청색 승복
수피들이 검정색을 입었지 않았는가
이는 시선을 끄는 오렌지 색이 아니었다

나는 두벌의 어두운 청색 승복을 마련해 이중 한 벌을 입고 아쉬움을 들어갔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
이는 요란하지도 않았고 비치지도 않았으며 내 걷는 방식을 감추어 주었다

화가난 타타갓이 나에게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다
멀티버시티 근처에서 어느날 밤 그가 나에게 소리쳤다
내가 느리게 걷지 말고 승복을 입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나
바그완에 의해 승복은 금지되었어

나는 부드럽게 미안하지만 나의 승복은 오렌지 색이 아니고
오렌지 승복이 금지 당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일주일 동안 이 승복을 입고 있었고 아무도 거기에 불만하지 않았다

타타갓에게는 인내심 같은 것은 없다
완전한 독재자 같은 말투로 어떠한 형태의 말대답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의 말들이 끝맺음 이라며
승복도 안되고 느리게 걷는 것도 안되
그는 내 태도를 바꿀 이들의 시간을 주었다



나는 완전히 유린 당했고 이제 정말 바그완에게 화가 났다
이것들에 질려 버렸다
언제나 똑같은 지루하고 바보같은 짓 그리고 이제 나를 파괴하고 있다
나는 할 만큼 했어...나는 아쉬람을 박차고 나왔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바그완에게 직접적으로 화가 나있었다
이제 이것은 명백한 그분 스스로의 잘못이었다
권력을 쥐도록 그분에 의해 선택된 모든 이들로 부터 박해 당하고 있었다

무엇이 내옷과 나의 정신적 수행을 상관한단 말인가
왜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간섭을 하는가
어디에 내 최소한의 자유가 있단 말인가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입는 소박한 자유

그날 밤 아쉬람을 나와 아무것도 먹지 않은채 잠을 잤다
화가 머리 꼭대기 까지 났고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
나는 다시 떠나기로 결정했다
산으로가 티벳 사람들과 명상을 하리라



1986년 6월 다음날 아침 일찍 나를 깨우는 룸메이트 니르말
그는 내가 언제나 오후 1시 30분 이나 2시까지 자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봐 라즈니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봐...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봐
오늘 아쉬람 정문에 붙어져 있는 새로운 홍보문에
모든 이들은 필수적으로 적갈색 승복을 입어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어
그 색깔은 너의 방에 걸려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색이었어
너의 적갈색 승복

그는 충격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미친 듯 웃으며 일어났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끝낸 후 곧장 아쉬람으로 향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오에 아쉬람에 도착했다
적갈색 승복을 입은 유일한 나

천천히 걸으며 타타갓을 찾았다
이제 다시 나에게 와봐...이 덩치 큰 골목대장아...하하하하
나는 승복을 입고 걷고 있다...적갈색 승복

이것은 기적 이었다
바그완은 이해하고 있고 나는 웃는다

라우쭈 게이트를 지나고...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감사해요 바그완...감사해요 바그완
당신의 메시지를 크고 명확하게 들었어요
당신의 비밀스런 메시지를 받았어요...나의 시간이 왔다
준비를 하고 최대한 깊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그는 자유의 편에 있다...진실은 승리할 것 이다
나는 자신감의 날개를 키웠다
나만의 방식으로 축하를 했다
가능한 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감사함을 향한 나의 표시

몇일 후 타타갓이 적갈색 승복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그가 음험이 내결을 지난다
감히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한채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안다...다시는 나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바그완은 새로운 신비의 학교 시설의 성립을 성명한다

그는 수평면 위로 떠오르는 새로운 이를 다시 보고있다
곧 수많은 이들이 몰려 오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부다 홀을 건립하여라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 피라미드 홀을 건립하여라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아쉬움을 팽창시켜라
창투쭈 강당에 침실을 만들어라

대기가 격양되고 있고 바그완이 말하기를
에너지가 새로워 지고 더 높음 으로 진보한다
새로운 시작이 깨달은 자의 대지로 하강하고 있다
대기는 새로운 흥분으로 격양되고 있다

라우쭈 게이트 맞은편 연못 옆의 나의 좌선은
잡담하기를 즐기는 집단의 관심을 끌어내기 시작한다
라우쭈의 중요한 거주자들 아난도 아미또 널람 묵따 그리고 그리스인 엘알
그들은 보통 라우쭈 게이트에서 저녁5시 반에서 6시 즈음 만나 어울렸다

테라피스트들이 늘 멀티버시티 근처를 뛰어 다니고 있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때로는 아무 이유없이 서성이거나
서류를 들고 바쁜척 중요한 일이라도 하는 척
그들의 불편함을 숨기기 위해 항상 미소를 지으며
그들 모두는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누가 더 많은 참여자를 모을 수 있는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어느 그룹이 가장 중요한지...따위에 대하여

나는 다시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오 그는 자기가 계몽했다고 생각해...아주 심각한 흉내만 내는 얼굴이
그들의 일과인 비판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테라피스트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은 그룹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퍼진다

연못 옆에 앉는 것이 어려워 졌다
그러나 나만의 장소가 된 이곳이 너무 좋다

나는 그들의 눈에 가시 그들의 악몽 같은 존재
단 한번도 그들의 테라피와 그룹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축복 속에서 앉아 있을 뿐

바그완은 어떠한 그룹도 해본적이 없다
크리슈나 무르띠 역시 라마나 마하리쉬 역시 부다 조차도 그러했다
사실상 어떠한 깨달은 자도 테라피나 그룹을 하지 않음에도
그들의 깨달음에 도달했다

바그완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테라피와 그룹은 명상을 위한 준비 과정에 필요하며
테라피는 무념의 상태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명상의 내면적 상태나 단순한 그 명상적임 과도
두 말할 필요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명상은 인식의 등불을 키우며
심신을 완전히 놓기를 요구한다

내부로 어떠한 정보도 더할 필요가 없다
그저 조용한 내부세계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하늘속으로 깊게 빠져 들어야 한다
이 존재 전체의 앎을 담고 있는 그 곳
그 스스로의 존재 속

서양 의식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한 변화에 집착한다
모든 테라피스트들은 더욱 더 색다른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매료된다

바그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라 요청한 적 없다
내면에서의 변화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전혀 다른 언어이다

변화는 수평적 움직임을 요구한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지식을 얻는것
이는 우리를 소위 말해 유식하게 만들어 준다

내면에서의 변화는 수직적 움직임을 요구한다
지식을 버리고 내면을 경험하고 앎 그 자체로 빠져드는 것
이는 우리를 알아차림의 상태로 인도한다

변화는 요구한다
1에서 2에서 3에서 4에서 5...이는 변하는 세상에서 끝없이 변한다
내면에서의 변화는 요구한다
1에서 2에서 3에서 4에서 5...이는 영원한 순간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변화는 테라피 그룹 그리고 정보를 필요로 한다
내면에서의 변화는 명상적임과 알아차림을 필요로 한다

서양 인식은 알아차림을
이것 저것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간다는 의미로 번역한다

동양의 지혜는 알아차림을
그 자체가 내포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변화는 수평적인 반면 내면적 변화는 수직적이다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변화를 요구한다
그저 저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면에서의 변화를 생겨나게 한다

명상하는 이는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상태를 가진다
낮은 진동 알파 상태에서
높은 진동 오메가 상태까지

무념의 거대한 황홀경의 상태...오메가 상태
성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아래쪽의 차크라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이는 격한 호흡을 일으켜 심장에서 팽창과 휴식으로 바뀌고
기쁨의 소리는 인후를 통해 흘러 나온다
이는 다시 제 삼의 눈에 있는 빛의 창에 도달하고
정수리에서 축복속 황홀경의 폭발을 맞이한다

그 무의 경험

사라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사라지는 사념
사라지는 너와 나
우주와의 하나됨

황홀경의 절정에서
사라졌으나 지속되는 경험
무념의 상태 그 무한한 존재감

모든 명상은 정확히 내면 에너지 상태 알파에서 오메가로
이와 같은 수직 변화를 경험 하도록 되어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상태의 내적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그룹을 만들고 테라피를 한다
이 고도의 절정 그리고 고도의 휴식 상태를 끌어내기 위해

테라피들은 이미 죽어 없어진 것들과 예고를
점점 더 비대하게 살찌운다
내가 더 많이 인지하는 잘못된 관념
내가 나의 상황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가장 위대한 궤변 그리고 완전한 넌센스





바그완의 메시지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오래된 마음과 이의 기억들을 요구하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저 투시이고 상상 일 뿐이다

그저 이 순간을 사는 것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것이 안정된 의식의 높은 절정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

언제나 훌륭한 해석을 맞이한다
나의 돈 후안 카사노바 산야신 친구 순니암

이 여자 친구에서 또 다른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리고 나서 여전히 또 다른 이
나는 그저 이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야...나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존재해
바그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했어...이 순간은 지나갔어

새로운 여자친구가 저 수평선에 떠오른다

그의 지혜 다운 굉장한 해석과 적용

행위하고 있는 것 과 행위 하지 않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과 존재하지 않는 것

행위는 언제나 더 많은 행위에 행위를 낳는다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지금여기 존재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지금여기 존재하는 상태에서 성장한다

그저 존재하는 것...순수하게 존재하는 것

더 많은 행위를 하는 것에 집착하는 서양 의식
휴식 없이 끊임없이 뛰고 있다
그냥 존재 안에 머물러 앉지를 못한다

하강하는 그 우아함...그저 존재하는 것으로...고요함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도한다

행위하는 것은 마음과 광기의 혼란을 이끌고
더 많은 혼란과 착각 그리고 너의 중심으로 부터의 멀어진다



알아차림은 수직적 고요함의 상태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의 무념의 상태
순수한 현존의 상태로 유도하는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게 된다

경험 하는 자와 경험이 경험하는 상태 속으로 녹아 내리는 것

그 관찰자와 그 관찰자가 순수 목격자와 하나가 되는 것

수 많은 테라피들과 유치한 그룹들에 집착하는
서양 의식에는 이러한 세계와 전달은 낯설은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마음을 놓는 것
바그완은 이를 수 천번도 넘게 말을 했다
마음을 놓아라
그러나 그 의미와 깊이는 완전히 왜곡되었다

보통의 사람은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저 구름같이 떠다니는 생각들을 지켜보라
그저 구름같이 떠다니는 생각들을 지켜보고 사심없는 관찰자로 존재하라

곧 틈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런 판단 없이 지나가는 그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라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는 생각은...마음이 끼어 들이고
단지 지켜보는 것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 주안점은 옮겨졌다

객관화된 증인으로 머물러라
공백이 점 점 커지기 시작할 것 이다

이것이 목격 하는것 이며 객관화의 힘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단순한 방법
사심없는 목격자

그런 다음 더 미세한 감정으로 움직여라
같은 초연함으로 그 감정을 관찰하라

초연함에 머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만약 너의 여자친구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겼다면

너의 감정에 증인으로 존재하라
아주 먼 거리에서
매의 눈으로

예민한 감정들로부터 초연함으로 목격자로 머무것
이 간단한 요령은 서서히 더 강하게 자랄 것이다

그런 다음 몸의 움직임과 몸 전체를 목격하라
이것은 행위의 진행을 느리게 할 것이다
그 목격은 더욱 더 강하게 자랄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방법은
순수한 목격자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는 곧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으로 부터 독립과 분리이다

이제 너의 에너지는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목격하는 것으로 향해 움직여 이를 풍성하게 한다

목격하는 것이 비법
목격하는 것이 열쇠
명상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과 이의 변화에
초연한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초연한 목격자

생각과 마음은 육신의 신분증 다름 아니다

마음을 놓는 것은 육신을 놓는 것이다
어떻게 육신을 놓을 수 있단 말인가...이것은 실존하는 것이다
오직 죽음의 순간에 육신은 쓰러지고 마음은 멈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그러나 목격자는 될 수 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몸 마음
이는 생각 감정 그리고 몸과의 동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너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하라
너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하라
너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하라

목격하는 것이 황금 열쇠

목격자가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의 일체감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목격하는 것이 황금 열쇠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가...애초부터 놓아버릴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마음은 목격이 면밀하게 이루어 짐에 따라 예민해 질 수 있다
목격하는것이 면밀해 짐에 따라 마음의 투명도는 증대한다

마음을 초월하는 것은...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음을 넘어서...무념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

무념의 상태에 도달하면
마음은 이슬처럼 사라진다...그저 그렇게 증발해 버린다
마음은 그저 그림자 였다...무지의 그림자

나는 크게 실망한 채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본다
멀티버시티 이것이 진실한 탐구라는 환영
테라피와 그룹이 진실한 것이라는 환영
시작하는 자에게 무념과 명상이란 어려운 것이라는 환영
그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이방인이다

자 테라피와 그룹을 시작해
거기에 얽매이는 거야

이는 사악한 순환...테라피스트들은 흥미를 부여한다
그들은 테라피스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한 만큼
그들의 투자를 거둘 필요가 있다
그들의 테라피를 바깥 세상으로 팔고
생계를 위해 돈을 번다

수월한 교환
수월한 생활방식
순진한 신참자들로 부터의 지대한 관심
만족하는 예고
작은 선생들과 경험 풍부한 모든 선생님들

말 그대로의 착취 그리고 그들은 곧 애초에 왜 여기에 왔는지 잇는다
명상을 위하여...명상 속 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장소는 정신병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너무 많은 판사들과 선생들이 모든 것을 아는 체 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수행자

바그완은 그저 저녁 기분전환 거리에 불과하는 그들의 자격증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변환중심의 테라피스트들 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자 오는
이 곳은 그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뿌네에서 몇 달 공식적으로 일하고는
서양으로 건너가는 비행기에 오른다
거기에는 순진하고 열정적인 이들이 그들의 그룹을 채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도...부자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뿌네
다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금여기 이 순간을 살며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아 나선다

지상의 파라다이스
테라피스트 들에게 돈이 쏟아져 내리는 이땅의 연꽃 파라다이스

나는 그들의 위험한 적이었다
돈을 받지도 않은채 위빠사나 견기를 하고 있다

신참자들은 내가 어떤 그룹을 했는지
어떤 테라피스트가 나를 이 내면의 공간에 빠져들게 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쉬람의 대기가 빠르게 충전되고 있었다
적갈색 승복은 깨달은 자의 대지에 일체감을 주었고
이 연합된 에너지는 이제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수 천명의 산야신들이 같은 색의 승복을 입은 것 만으로도
깨달은 자의 대지의 대기는 진동하고 있었다

그 적갈색은 그 고유의 의미를 지녔다
마치 고유의 빛을 띤 우리의 육체와 같이
우리가 입는 색깔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비껴나간다
그러므로 낮은 진동의 적색을 우리몸으로 흡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반사된 적색은 대기로 흘러가 열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더욱 열정적으로 되는 것을 돕는다

이 시기에 바그완은 나의 도착이 머지않음을 알아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7월 보름달 측면에
모든 산야신이 하얀색 승복을 입도록 지시한다

하얀색 승복은 밤에 수동적으로 변하는 에너지가
스스로 작용하고 활동적이 되도록 돕는다

바그완은 테라피스트들이 그의 에너지를 연결시키지는 않고
그룹을 지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그들을 위한 그분의 선택 검정색 승복
검정색은 에고를 사라지게 하고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그룹에 대한 영향을 부드럽게 낮추고자 했다

바그완은 자신의 완전한 관대함의 결과를 명백히 보았고
그가 잘못 이해되고 있음을 알았다

최근의 오레곤에서 일어났던 재앙과 함께
또 하나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었다

산야신들은 깨어나야 한다
그분이 독창적으로 창조한 간단한 명상으로
내면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분은 명상 캠프의 재도입을 발표한다
불꽃은 다시 피워져야 한다...지금이 그때이다

그는 처음으로 스승의 날 축연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얀색 승복을 입은 모든 산야신들이 새로운 동질감을 만끽한다

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 밤 낮으로 준비해 왔다
처음으로 그분의 발아래에서 맞이하는 스승의 날 축연
멀리 가장 뒷 자리에서 그분의 우아함에 춤을 춘다
나의 첫 번째 사마디를 회상하며
여기 그리고 지금 그분이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축복 받은 지상

바그완은 언제나 공동체와 깨달은 자의 대지는
살아있는 경험이라 주장해 왔다
산야신들은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와
신비의 학교 설립을 잊고 있었다

살아있는 경험이란
공간을 가득 채운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경험들에
완전히 깨어 있음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승은 그의 침실에 묶어둘 수 있는 육신이 아니다
스승은 순수 목격자이다
우리의 자그마한 움직임 까지 지켜보는
그리고 형태없이 떠다니는 그 스승은 목격자
제 삼의 눈으로 지켜보는 선각자

그분의 제자는 살아있는 시도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

그분의 비밀을 감지하였다
그분의 떠다니며 목격하는 영의 출현
인식의 광휘와 같이 조용히 내 위의 그분을 유지하고
나의 걸음이나 정좌 그리고 모든 행위의 수직적 의식에서
그의 신성한 존재가 나를 더욱 단단히 붙잡도록 허락한다

나는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
그분이 들어와 안주 할 수 있게 모든 잡스러운 것을 비웠다

바그완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에 놀라면서
그들은 한번도 평범한 제자로써 거울을 비춰보지 않았다

바그완 앞에서 특별한 가면을 쓰는 그들
나를 위한 가면은 없다
나는 그저 느리게 걷는 바보 라즈니쉬
인간으로서 간주되지도 않는...그저 짐승같은
그분은 그들의 진정한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이 모든 것을 앎
바그완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들의 무자비한 행위를 목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십년 동안 깊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인도해 온 바그완
그분에게 좌절이고...그분의 노력은 실패하였다
그분의 사람들이 그를 좌절시켰다
아마 자신의 사람들에게 너무 낙관적이고 부드러웠으리라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에게 한 짓에 비하면 미국 정부가 한 짓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그분이 돌아왔더라면 그들은 그분을 파괴하고
이 깨달은 자의 대지로부터 내쫓았을 것임을 그분은 훤히 내다 보았다

8월18일 부다홀에서의 성명
많은 이들에게는 놀라움이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바그완이 말한다...오직 몇 명 만이 나의 말을 이해했다

열기를 더해가는 명상 캠프
바그완이 침묵하는 번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는 여전히 경영진에 의해 지켜봐 지고 있다
혼자 살고 그 누구와도 사귀지 않는다
오후 2시 30분이 되어서야 도착해...정확히 같은 일과
정좌와 부다 그루브 뒤에서의 한 시간 걷기
그리고 저녁 강연 테잎을 듣기 위해 앉는다

특별한 단 하루 바그완을 보기 위해
한 달의 이십 구일을 깊은 정좌하는 나의 습관
보름달 밤의 만남
바그완이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음에도 계속하였다

나는 내면의 문제에 관한한 고집이 세고 완강했다

피라미드 옆에서 저녁 정좌를 하고 있을때였다
그들에 의하면
피라미드는 수정을 읽기 위한 테라피스트들을 위한 곳이며
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특별한 채하고 앉아 있는 나는
점순하게 라즈니쉬란 이름을 버려만 하며
사람들이 나를 라즈니쉬라 부르는걸 중지하라고 했다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공격해온다
그래서 웃으면 대꾸했다
나는 예고를 버릴려고 노력하는 명백한 예고를 지닌 보통의 제자에 지나지 않고
바그완은 버릴 만한 예고가 없는 나의 스승이니
그분의 이름 라즈니쉬를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름을 버리는것에 대해 아무런 반대의사가 없다

곧 나의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불만들이 바그완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들었고...나를 비난하는 많은 편지들도 그분 앞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바그완은 그저 미소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의 이름을 바꾸어라
이는 철자가 라즈니쉬로 잘못되었으니
라즈니쉬로 그의 이름을 바꿔

할렐루야

일요일의 산야신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부다홀로 들어섰을때
자린에 의해 발표되는 성명...바그완이 말했기를
라즈니쉬는 아쉬람의 산야신들의 본보기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불려나갔다

대기는 반항하는 기운으로 가득찼고 바그완은 참을 만큼 참았다



바그완은 불가사의하게 그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한다
1988년 12월 26일 바그완으로 다시는 부르지 않기를 명함
1988년 12월 27일 부다
1988년 12월 30일 스리 라즈니쉬 조르바 부다
1989년 1월 7일 스리 라즈니쉬
1989년 2월 29일 오쇼 라즈니쉬
1989년 9월 12일 오쇼

9월 12일 그는 또 하나의 성명을 보낸다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을 직면할 것이다
더 이상 라즈니쉬로 알려지지 않을 이
그는 그저 오쇼이다

이는 나에게 놀라운 선문이었다
곧 내가 지명되어 질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그가 그의 이름 라즈니쉬를 버리기 위한 방책이리라

어쨌든...이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내 이름 라즈니쉬는
나의 예고를 문제삼은 그들에게 더이상의 화제거리가 아니었다

나는 보디 다르마를 거쳐...라우쭈 게이트를 지나고 있었다
늘 그러하듯 바그완에게 안으로 깊은 절을 올리려 걸음을 천천히 늦추고 있었다
목따는 게이트 근처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고
천천히 걷고 있는 나를 보고는 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를 향해 물을 뿌려댄다

아난도와 닐람 그리고 밖에 앉아 잡담하고있던
라우쭈 그룹의 몇몇 여자들이 이 놀이에 참여하여 웃기 시작한다
나는 온 몸이 젖어 거기를 벗어나야 한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바보같은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았다...계몽한 체 하는 자

바그완에게 깊은 절을 올리고 있는 나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행위는 추함과 성마름 그 자체
그것도 너무도 무례하게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의 문 앞에서
그 농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들을 거세게 노려보고는...돌아선다

바그완은 이 대단한 제자들을 가져 마땅하다
이들이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사랑과 자애의 표상이 될 자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곳인가

다음날 듣게된다
바그완이 명하기를
모든 여자들은 짐을 싸 라우쭈를 떠나라

나에게 이것은 출발점 이었다
바그완으로 부터 보내어진 가장 강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

이제 누가 바그완을 돌볼까 궁금해졌다
부드럽고 자애로운 바그완
며칠 후 그들을 다시 라우쭈로 돌아오도록 허락한다

나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무언가가 그 거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저기 가득한 그 신호들

그가 특별히 디자인한 창트쭈의 침실은
바그완이 지내기로 되어있지 않았다

9월14일 바그완은
모두를 위해 위빠사나 통로를 개방했다
나는 신비의 학교 산야신을 만났다
그는 내가 위빠사나 통로를 첫 번째로 지나가게 되었다 한다
나는 바그완이 사는곳 그분과 같은곳에서 감히 숨조차 쉴 수 없기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매일 밤 깊이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잠을 자지 않고 매일 밤을 그렇게

쿤달리니가 활기를 띄며 그 스스로 강하게 자리잡는다
나는 이 현기증 나는 높이에 중심을 잃는다
오른 귀를 채우는 웅웅거리는 소리
오른팔과 왼 견갑골의 고통은 강렬했다

나는 수많은 밤을 땀을 흘리며 아낌없이 쓰고있다
더 이상 빛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중으로 쳐진 커튼으로 완전히 어두어진 나의 방에서
낮과 밤을 보낸다

햇빛을 보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기에
나는 더욱더 어두운 방에 머물 필요를 느낀다

이다는 완전히 막혀 있었다
이를 열려는 움직임은 아래로 향하는 나선형 이었다
위로 향하여 열려는 움직임의 시도는 이를 더욱더 막히게 하였다
나의 모든 열기위한 시도는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왔다

9월의 마지막 가을
이다의 활동을 돕고 내면의 호흡을 열기 위해
유칼리투스 증기를 매일 쬐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두 달을 방 안 어둠속에서 보낸다

방을 나서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와 유칼리 투스 증기가 숨을 쉬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항상 피곤하고 졸립고
열 여섯 시간에서 열 여덟시간의 잠을 자기 시작했다

나는 저녁식사와 춤을 위해서만 아쉬람을 갔다
대나무 숲에서 라띠한에 젖어들어 물결치듯 움직이는 나의 몸
바그완은 매일밤 11시 30분 까지 부다홀에서 춤을 출 것을 명한다
나의 저녁식사와 밤을 지내기에 완벽한 시간

십월의 어느날 새로운 신비
바그완은 공동체를 검정색으로 칠 할 것을 명한다
모든 벽 그리고 코너가...검정색으로 칠해졌다

완벽한 검정색
존재가 자라날 수 있는 자궁의 역할
이다 그 여성적인 나선형은 검정에 의해 지탱되어 진다
원편으로 기우는 깨달은 자의 대지
수용적인 여성성...깊고 고요한 창조적인 자궁

깨달은 자의 대지는 또다를 경사로 움직일 것이다
또 다른 수직적 축으로
선회부가 움직이고 있다
검정은 바그완의 새로운 국면이자 새로운 도구

모든 건물의 표기가 제거 되었다
아무런 의미없는 이 표지는 언제나 마음을 움직인다
사마디를 거친 사람은 누구나 이의 숨겨진 이유를 이해 할 수 있다
그 빈 상태는 그저 예숙의 숲이란 이름과 같다
예수의 숲은 예수의 숲을 예수의 숲에 올려퍼진다
이곳이 다른 이름을 가질 때까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곧 누군가가 사마디에 도달할 것이다
검정과 제거된 모든 표지들의 암시
단순한 지표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전 블랙홀에 빠져 들었던 나
이것은 훨씬 더 거대할 것이다

1989년 11월9일 바그완이 성명한다
그의 침묵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항의이다
위선적인 것들에 대한 항의
들으나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항의

도대체 누구인가 들으나 귀 기울이지 않는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만약 너라면...제발

나는 아쉬람의 거의 모든 여성들의 행동을 항상 지켜봐왔다
이들은 모두 부와 권력을 지닌 남성을 찾아 다닌다
권력을 가진 남성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여자들
이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 헤메는 권력을 가진 남성들

이 게임의 전부는 오로지 돈과 권력
그리고 아름다움의 매력

바그완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에 관해 말하여 왔다
여성은 자유를 가지지 못했고
수 세기를 남자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이는 완성되지 않은 절반의 이해를 주었다
요즘 시대에 내가 경험해온 것과 완전히 달랐다

나의 이해는
남성은 그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부와 권력을 찾고
여성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으로 부와 권력을 지닌 남성을 착취한다

이는 악의 순환이다...역행적 방향으로의 악 순환
그리하여 남성은 부와 권력을 끊임없이 쫓는다
여성을 만족 시키기 위해...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그들의 약점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스럽게 그의 플롯을 연주하는

예민하고 가난한 남자를 쫓는것을 본 적이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극도로 드문 일 일것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지배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분명한 것이었다
불쌍한 남성...그들이 여성으로 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

부와 권력을 존중하는 사회의 이 추한 가치구조는
여성이 그들의 가치를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에만 바뀔 수 있다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
남성은 사냥감을 찾는 공격적인 동물이 되었다
여성의 눈에 부드럽고 감수성이 예민한 남성은 패배자이다

바그완의 이십년 강연동안
이러한 관점으로는 들여다 보지않았다
바그완은 작은 마을 자발푸르 출신의 단순한 사람이고
그의 인생을 통틀어 여성 에게 존경과 예를 다했다
그리고 이 복잡다단한 여성과 남성의 지배관계를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 보았다...순수한 순진함

바그완은 나의 이해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명백함을 보고 기뻐했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통찰력이 완성되었다
나는 그의 지지를 얻었다

1989년 11월 28일
바그완은 남성 자유 운동을 펼친다

1989년 11월 28일
그분 인생에서 처음으로...갑자기 멀티버시티를 방문한다
천천히 각각의 그룹과 테라피 포스터를 본 뒤
놀라운 성명을 한다
더 이상의 긴 기간을 요하는 테라피는 없어야 한다

테라피는 보통 두 달에서 석 달의 코스로 진행 되었으나
이제 그들은 삼일 정도의 가볍고 재미로하는 테라피만을 허락 받았다

그리고 어떠한 그룹 참여에 앞서
바그완의 책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했다

이 갑작스런 변화와 출발은 무엇인가

바그완이 심각해 졌나
들으나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성명을 한다

나의 말에 집착하여 나를 놓치는 자들

사자는 포효하고 먹이감을 찾으러 나섰다





바그완은 새롭게 강화된 에너지를 위해
이제 깨달은 자의 대지 전체를 준비하고 있다

굉장한 존재가 탄생 할 것이다
복잡한 수술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바그완 그분은 고도로 세심한 외과의사
그의 마면체로 다음어진 다이아몬드 같은 손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조작되어지는 세심한 레이저와 같이
우리의 위로 그 깨달은 자 대지를 시술한다

우주의 초의식
총체적인 초의식
초의식
우주의 의식
총체적인 의식
개인의 의식

그리고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간다

개인의 무의식
총체적인 무의식
우주의 무의식

매우 난해한 재 정비가 필요하다
우주의 무의식에 깊은 상처가 베어있다
어떠한 스승에 의해서도 이러한 공개된 수술 집행이
어마한 깊이로 도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바그완 스승 중의 스승
그는 이제 그의 전체성과 그의 존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깊게 탐구하지 못했다

니베다노는 깨달은 자의 대지에 빠져들기 위한 준비를 한다
번갯불을 들어...높은 진동이 흐르는 울림

그분이 천천히 연단에 오르고있다
침묵을 내포하는 그 각각의 움직임
바다와 같은 깊은 사색
대기를 휘어잡는다

각각의 동작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재빨리 움직이고
초인적인 세밀함을 잃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것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

그의 최고의 수술 의자에 고요히 앉아 있다

침묵의 가장 깊은 상태에서
하늘 속을 향해 높이 솟구친 다음
다시 땅 속을 향해 깊이 내려간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방대한 손을 펼쳐 상처입은 왼쪽 날개를 치유한다
그리고 다시 하늘 속으로 향해 높이 오른 다음 땅 속으로 깊이 내려간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섬세하게 보이지 않는 빛의 실가닥을 이어간다
빛의 광선으로
실과 실을...실과 실을
그의 무한한 자애심으로

땅에서 하늘로
빛의 수술
높은 전압의 빛을 사용하여
이를 고요히 치유하여 침묵으로 이끈다

천국의 영원무궁한 존재가 놀라움으로 지켜본다
그 천국은 무엇이 위협에 처해 있는지 안다

역사적인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전쟁이 일어났다
하늘 속으로 높이...땅 속으로 깊이

나는 선언한다
초의식의 역하에서 이러한 난해한 수술은
결코 이행되어진 적이 없었다



한달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더 깊고 크게 상처를 패 내기 위해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

모든 입자가 이 천체전쟁에 필요하다
왼쪽 날개에 상처를 입은 깨달은 자의 대지
아쉬람의 검은 벽들은
치유를 위해 왼쪽으로 기대는 것을 도와준다

바그완은 니베다노와 그의 폭발하는 음악 그룹을 위해
음악 그룹 전체와 스피커들을 옮긴다
균형잡힌 부다홀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조화의
음향은 그가 여분의 중심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깨달은 자의 대지는 왼쪽으로 더 기울 필요가 있다
깨달은 자의 대지 전체가 깊이 듣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중심을 옮긴다

왼쪽 날개가 상처를 입었다
쿤달리니가 위협하게 오른쪽으로 굽어 지고 있다

압력이 증대되어 위험해 지고 있다
하늘 속으로 높이 오르고 땅 속으로 깊이 내려감이 긴급히 필요하다
빠를 갱신...반환시간의 연기 없이

오쇼 오쇼 오쇼
전체격이 오르고 내리고 있다

오쇼 오쇼 오쇼
위로 쏘아 올리고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

오쇼 오쇼 오쇼
바그완이 하늘 높이 매달린 외줄을 타듯 나타난다

오쇼 오쇼 오쇼
그래 그래 그래 그분은 그들이 대지에서 당기고 있음을 기억한다

오쇼 오쇼 오쇼
다이아몬드 같은 번개불이 하늘 속으로 가르고 있다

명상을 멈추어라

니베다노와 함께
그의 드럼의 진동은 높아지고
깨달은 자의 대지 전체는 크레센도를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준비한다

스승중의 스승 바그완의 도착
지진계 눈금이 진도 9를 가리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 할 수 없는
진실보다 더 광대한

드러난 비밀
스승이 상처 입은 쿤달리니를
치유하고 있다
깊은 땅속 중심 그 곳에서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
한번의 쓸어내림으로...땅과 하늘은 하나가 된다
수직 레이저 미사일

나는 바그완을 보고있다
진열된 다이아몬드 중의 최고의 진품
그 다면 각의 완벽함
단번에 백 만각으로 반사되어 영원한 빛을 내는

계몽된 세상은 언젠가 경외의 눈으로
이 전시된 가장 위대한 대작을 바라볼 것이다

하늘이 이를 증명하고
내가 보았다

아 내가 무엇을 드러 낼 수 있는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 밤들은 영원으로 늘어난다
밤은 그의 낮을 보았다...다시는 어두워 지지 않으리

나는 멍한 상태로 아쉬움을 둘러본다
장대한 규모
에베레스트 조차 이곳의 번쩍임에 비하면 피그미일 뿐이다
더욱 깊어지고 침묵에 빠져드는 나의 비밀

나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안다
바그완의 재빠른 동작 하나 하나
섬세한 손목의 경미한 움직임 하나 하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온화한 미소

고통을 숨기고 있는 그분의 웃음과 자애
이 전쟁은 가장 위대한 전쟁이다

이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운명 이었나 보다

패배는 또 다른 승리를 숨기고 있을지 도 모른다
패배는 그 유일한 승리 일지도 모른다

이는 쓰지만 앓을 머금은 달콤함
패배한 자가 가장 위대한 제왕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이 오직 합당한 묘비명이 될 것이다

싸우면서 죽다
미소를 지으며 패배에 영광을
자애
품위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초월한
혹은 불멸 일지도
새로운 그리고 드 높은 절정
하나 뿐인
바그완을 위해

내 나날은 끝을 향하고 있다
달의 어두운 면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휴식
또 하나의 생

아래의 세상에 살고있음은 그 어두움을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늘은 그토록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이것이 모두 위장 일 수도 있다
가짜 다이아몬드의 빛 같은
진품보다 더 밝게 빛을 발하는 채

누가 내가 보아온 것을 너에게 말해 줄 수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경험을 초월하고 초월하고 초월한다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춤추는 자
깊은 라띠한에 빠져
아마 두 시간이 흘렀을 것...아니 더 될지도 모르겠다

깊은 밤 속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텅빈 대나무

부다 그루브의 모든 움직임과 하나
모든 흔들림과 하나...모든 멈춤과 하나
깊은 밤으로 향하는 대나무들의 물결
그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갑자기 머리에서 갈라지는 소리
내 몸이 대나무 숲속으로 날아 간다
나는 다시 흠뻑 두들겨 맞는다

몸도 아닌 마음도 아닌
아무도 나를 들어 올릴 수도
다시 떨어뜨릴 수도 없다

암흑 암흑 암흑...영원한 암흑

없는 것이 이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가장 최고의 것을 보았다...바그완
가장 최고의 것을 경험했다...바그완

앞으로 펼쳐진 여정에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
갈 곳이 존재하지 않는...해야 할 것도 없는
지금여기 존재하는 것

존재는 이의 고유한 시간을 갖는다고 바그완이 농담조로 말한다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쉬울 수 없지
더 많은 것이 있다...더 많은 것이...더 많은 것이

깨어나라 나사로...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는 어떤 힘에 의해 들여져 걷는다
나는 다시 살아 돌아왔다
터널은 무척이나 깊었다

아마도 몇일 뒤 쯤 나는 다시 쓰러졌다
존재는 그 자신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인간은 그 기간을 좌지우지 하지 못한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칠 흙 같은 어둠으로
가야할 나의 시간이 왔다는 인식과 함께

나를 기억할 친구들에게 모든 소유물들을 나눠주고 싶다
내가 가진 모든 조각상들과 아름다운 책들의 명단을 만들어
한명 한명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
나에게 미소 지어준 어떤이
나에게 친절 했던 어떤이
내가 따돌림 당할때 지지해 주었던 어떤이
나를 감동시켰던 작은 언행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한 사람씩
나는 아쉬움으로 향한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게 나의 기념 선물을 건넨다
그들의 놀라움

주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요 그 짐을 더는 것
그들의 놀람과 사랑이 곧 보답이다



나는 새로이 태어났다

부드럽고 활기 넘치던 비베크가 떠난다
천사가 날개를 져어가듯 하늘 위로
아마도 무한한 천국에서 기다리는 위대한 이를 맞이하기 위함 이리라

스승과의 동행

땅으로 뺏어있는 생명의 나선을 잡는다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그분의 웃음을 위해

전쟁으로 닳아 헤어진 그 수직선 상의 실
그 신비를 남몰래 지키고 가까이 붙잡아왔다
그녀의 가슴속에

마 프레임 니르바노에 대한
사랑스런 기억
너무 이른 죽음을 맞이한 그녀
1949년 3월 19일 태어나
1989년 12월 9일에 세상을 떠나다

나는 그녀가 계몽에 도달함과 다름없다고 밝힌다
수직으로 뺏어난 길과 좁은 비밀통로를 인도하던 그녀

스승과의 동행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
이는 공유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미소로 나는 바그완의 가장 미친녀석이라 불렀다

계속되는 춤
삶과 죽음...단검과 같이 규형잡힌
인식의 양날이...그대를 깨운다

12월 11일 우리는 춤을 춘다
그 축복 받은 자 바그완의 탄생

그 길은 점점 높아지고
점점 좁아진다
가장 위대한 결정
그분은 비밀리에 그의 길을 안다

그분은 그의 길을 걸으리라
그리고
그의 길은
절대 끝나지 않으리라

바그완은 끊임없는 비행을 계획한다
부활 할 수 있는 죽음
마지막 호흡을 하는 육체...빛 속으로 폭발

불꽃은 꺼지기 전 가장 밝은 빛을 낸다
해탈 그 불꽃의 휴지
어둠의 비밀을 붙잡은채
빛으로 드러낸다

블랙홀은 밝음으로 드러난다
모든 것이 휴식하고 삶으로 다시 부활한다
새로운 그리고 청순한 눈을 위한 깊은 혼수 상태

신비로운 방법
바그완의 준비
새로운 자로
그의 도착



흑마술의 진동이 깨달은 자의 대지에 나타났다
대기에 흩뿌려진 만트라
경계를 하며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만트라의 진동을 찾기위해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바그완을 죽일 것이다

아이들은 문혀진 적 없는 보물을 찾아 여기 저기 뛰어다닌다
보물 찾기...시작된 탐색

진행된 계략

이것은 심각하다
만트라를 외는 사람을 찾아라
아니다 만트라를 외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만트라를 그분의 단점으로 목표하는 사람들의 무리이다

소식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실마리들은 바람에 흩날린다

몇 몇은 북쪽을 향하고...몇 몇은 남쪽을 향한다
몇 몇은 동쪽을 향하고...몇 몇은 서쪽을 향한다
북서 남동 북동 남서

매일같이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반전 새로운 비틀기
음모는 짙어지고 이 도구는 실제이다

깨달은 자의 대지 전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되었다
혹 마술 만트라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좋아...이번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전히 혹 마술 만트라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생기의 수직적 상태와 공간들은
비밀스런 전달을 균형 잡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돌아감
나선형 조화
완벽해

내가 드러내는 것은 전체 진실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
내가 밝히길 원하는 것 혹은 세상에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

나는 다양한 차원의 의문들을 의식하고 있다
나의 폭로로 인해 드러날 질문들

이것들이 이제 창조할 새로운 불가사의들
이것이 유도할 수많은 질문들...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것이다

나는 나의 여행 동반자들에게 빛을진 것 만을 밝혀낸다
바그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더 나아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 침묵으로 바라보는 살아있는 깨달은 자들에게

바그완은 그만의 선택을 했다...그의 완전한 선택의 자유
우리의 시대를 뛰어 넘는 그분의 통찰력과 지혜
완전히 깨어있는 그분의 의식

신비로운 성명은 매일같이 계속된다
그들은 누가 혹 마술사인지 알아내야 했다

혹 특수 진동 장치를 가진 미국 중앙 정보국 요원일까
혹 바그완을 파괴하기위한 특별 만트라를 외는 무리...혹 개인
아님 만트라를 외는 인도인 일까

바그완 생의 셀 수 없는 많은 출연중 처음으로
부다홀 바닥은 테잎을 사선으로 발라 갈라 놓아졌고
모든 인도인은 부다홀 왼편에
모든 외국인들은 오른편에 앉도록 인도되었다

바그완은 깊은 명상의 기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더욱 더 높이 움직이는 손
인도인 혹은 사람들을 지목한다
임명된 자의 어깨를 부드럽고 가볍게 치면
바그완으로 향해 걸어 가길 부드럽게 지시받는다
연단 옆의 계단으로 홀을 떠난다

바그완은 그의 신비스런 도구 준비한채 연단으로 도착했다

음악은 그분의 모든 손 움직임에 따라 흐른다

그분이 눈을 뜨고...한 인도인을 가리킨다
부드럽게 그분을 향하여 인도된 후 옆 계단으로 걸어나간다

계속되는 음악...더 빠르게...다른이가 지적된다
계속되는 음악 그분의 손은 더욱 더 높이...다른이가 지적된다
음악이 빨라지고 그의 손은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또 다른이가 지적된다
음악이 빨라 질 수록 더 높이 오르는 그분의 손...또 다른이가 지적된다

높게 상기된 깨달은 자의 대지
금실을 잡은채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
불사조의 날개는 중력 아래 단단히 묶어 두어야 한다
헤아릴 수 없는 협곡과 무한함의 갈라진 틈 위로의 광대한 도약

어떻게 그 위대한 도둑은 가장 큰 다이아몬드 코히누르를 훔칠까
빛이 충만한 대낮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걸려들은 미끼...아직 앉아있는 바그완의 표적
점점세계 속도를 북돋우는 음악...날아오르는 그분의 손

바그완 하늘 위의 매처럼 나를 쏘아본다...깊숙이 관통하는 눈빛
내 차례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선택되었고
나는 열었다

천천히 일어난다...부동...매우 천천히 앞으로 내딛는 한걸음
완전히 열어 한 발자욱 조차 내 딛을 수 없다
씻덩이처럼 무거운 한걸음 한걸음...한 걸음은 느리고 영원했다

그분이 나를 본다
보디 다르마와 같이 사납고 집중된 열린 그의 눈

하늘 전체가 내려 앉고 지구가 무겁게 끌어 당겨진다
그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오직 3미터...점점 가까워진다

느린 움직임으로 완전히 열어 붙어버린 시간
모든것이 깊은 침묵속에서 울리고 있다

나는 사라진다
내 위로 쏟아져 내리는 하늘
내 정수리 속으로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들
감지되지 않은 어둠안 에서...아직 충만한 햇살 안에 있다
밝혀지지 않은 역설은 잊혀질 것이다

가장 위대한 비밀은 살아있었다

신성한 광명의 비밀스런 이동



나는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
이것은 바그완의 기원이고...그분은 나의 스승이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나는 침묵에 머물렀다

1월 16일

바그완 마지막으로 명상을 하기위해 모습을 드러낸다
극도로 약해져 있고 깊은 명상을 위해 들어서는 도중
균형 조차 잃는다...힘 없는 몸가짐의 움직임

1월 17일

바그완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다
웃으며 반짝이는 그분의 눈...먼 거리의 수평선 바라본다
천천히 천천히 각 방향으로 영원을 위한 나마스떼
그분의 마지막 나마스떼인 것을

1월 18일

바그완 그의 방 안에서 깊은 사마디에 빠졌다

1990년 1월 19일

모두가 모인 부다 홀에서 바그완의 부고를 듣는다
그분의 육신은 부다 홀로 옮겨진 후
한시간 내 화장터로 옮겨질 것이다

오쇼로 알려진 바그완

말하기를

여기 나의 존재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를 더욱 더 느낄 것이라 전해라

그들은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절대 나를 과거형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마지막 춤

그분의 타오르는 사랑을 짊어진 춤을 추는 제자들의 행렬

내 얼굴을 흘러 넘치는 눈물

재 방문이란 없다...너무 늦어버렸다

가장 고귀한 백조는 날아갔다

충격 그리고 고통 그리고 눈물

어마한 충격 깊은 고통 눈물 위로 눈물

우리 모두는 화장터를 향해 춤을 춘다

바그완의 노래를 부르며...모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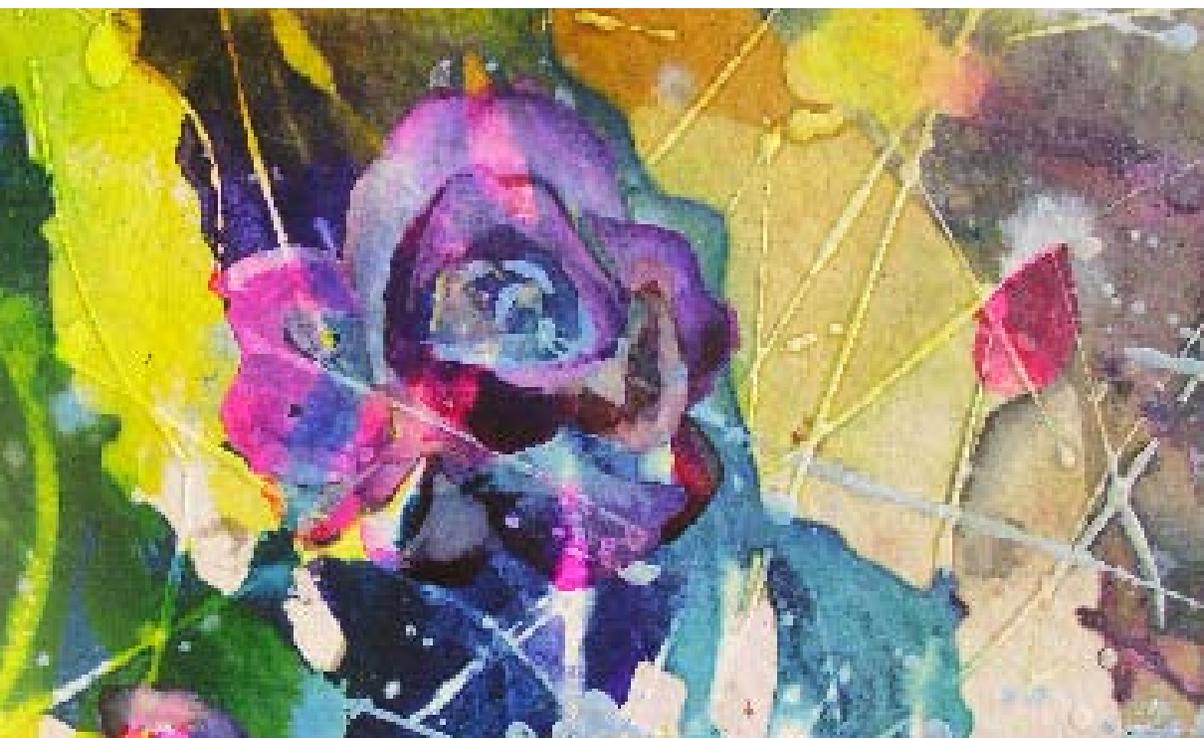
가장 거대한 전쟁 사이에
사랑이 더 튼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 소멸한다

타 올라가는 불꽃을 보는 이 어마한 고통
모여든 그분의 제자들의 불꽃
그분의 사랑하는 이들의 춤

전체속으로 퍼져가는 그분의 순수한 사랑의 불꽃

녹아버린다

사랑에 모든것을 거는 것은
더 위대한 사랑에 대한 행복
사랑 그것이 지닌
비밀



아마도 죽음이란
삶을 깨우는 것 이리라



붓다의 제자 마하카샤

언제나 침묵과 신비로움으로 머무른다
어느 아침 붓다가 미소지으며 장미 한송이를 쥐고 나타났다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알려지지 않은 마하카샤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모든 제자들이 마하카샤를 보기위해 여기 저기 둘러 본다
나무아래 앉아 있는...단 한번도 입을 열은적 없는 잊혀졌던 사람

붓다는 웃으며 그 장미를 마하카샤에게 건네주었다

아무도 아니던 이에게 전이된 그 신비함

나는 오쇼에 대해 질문 한번 한적 없고...해답 한번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오쇼를 만난 적이 없다

나는 알려지지 않은 제자

오직 한가지의 자질을 지닌

순수한 의식...완전한 정지...깊은 침묵

나는 홀로 선다...차분히 그리고 조용히

오쇼의 세상이 움직인다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이는 전적인 모순

충격을 숨긴채 선승 인체하는

순전한 표지...문 없는 문

언제나와 같은 가식

누구를 속이려 드는가

내가 가진 커다란 책임감을 완전히 인식한다

내가 본 그것의 광대함을 완전히 인식한다

눈물은 머금은채 그리고

완전히 낮이 나간채 걸음을 옮긴다

눈물이 얼굴을 흘러 내린다

매일과 매일을...밤과 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안고 어깨에 기대어 운다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 놓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

이 순간들은 영원히 남겨질 순간들

생애 생을 거쳐...우리의 심장에 영원히

커다란 충격속에있는 사랑스러운 산야신들...눈물과 함께
어둠에 휘청거리며...이겨낼 어떠한 방법을 찾기위해 바둥거린다

그들이 성명한다...오쇼 말했기를

나는 내 꿈을 너희에게 남긴다

그러나 그 꿈은 끝이 났다...너는 지금 깨어 있어야만 한다

누가 초월한 신비를 아는가
어디에 살아 있는 신비의 학교가 있는가

어디에 그의 신성한 영체가 있단 말인가
누가 알고 있는가

선과 같은 산야신들이여 그대들의 단단한 껍질안으로 숨어들어라
그리고 이 진짜의 현실로부터 그대를 숨겨라

스승 중의 스승 오쇼는 더 이상 육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뻗고 있는 우리의 펼쳐진 팔을 위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밤 우리를 안아주던 지혜의 언어들도 사랑의 노래들도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아마도 하얀 백조는 날아가 버렸나 보다

오쇼가 말했다
그의 비밀의 봉인과 궁극적 질문
보이지 않는것에 대한
영원한 진실이고 현재 존재하는 것

나를 과거형으로 말 하지 말라

그 자신을 외눈의 예언자로 드러냄
나는 그분의 하얀 날개를 그리고 우아한 날개짓을 본다
더 많은 것이 있다...더 많은 것이...움직여라...움직여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빠져라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오쇼의 어머니 마타지
나는 먼저 마타지가 걱정이 된다
이 신성한 기간동안 그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조용히 마타지의 방 옆을 지나갔고
그럴 때 마다 그녀의 울음 소리를 듣는다
그녀의 발에 존경을 표하고 상처받은 가슴을 치유해야 한다
나는 그녀의 발을 만지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가슴을 치유해야 한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한 어머니가 피를 흘린다...그녀의 심장에 깊은 상처
마타지 헌신자 그 신성한 어머니

그녀는 처음 나를 본 순간부터 늘 아껴주었다
내가 산야스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
언제나 겸손하고 우아한 그녀는
문 없는 문 앞 까지 리샤를 타고 다녔고
명상방석을 옆에 낀 채 천천히 걸어다녔다
흐르는 폭포수 같은 순수함...겸손함과 조용함
나무의 잎...그저 있는 그대로...거기에 순수하고 단순하게

오쇼의 가장 위대한 헌신자
가장 자애로운 모두의 어머니
깨어난 이의 궁극적 어머니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문을 두드린다
슬픔에 젖어있는 그녀 주위에 모여있는 가족들
그것을 이해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나를 바라보는 그녀
눈물...눈물이 나를 그녀에게로 인도한다
내 아들...내 아들 라즈니쉬...니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 라즈니쉬 니가 살아있었구나...내 아들...내아들

눈물이 눈앞을 가렸다
할 말을 잃은채...나는 그녀의 발을 만져 존경을 표한다

우아한 오쇼의 가족이 보고있다
그들은 조용히 사랑을 담아 그녀를 홀로 두기를 요청한다
마타지는 깊은 충격과 고통스런 슬픔에 빠져있다
그녀에게 나는 오쇼를 떠올렸고 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이 힘든 시간은 신성 불가침 이었다
절을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몇일이 지나갔다
소문이 다시 무성해 진다
나의 존재는 더욱 더 그들에게 오쇼를 상기시켰다
사람들이 깊은 사랑과 침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곁에 있고 싶어한다...아무런 이유없이...그저 가까워 지고파 한다

아쉬람의 경영진과 권력자들이 나를 가까이 지켜보고 있다
나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어디를 가든 늘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난다

한 여자가 다가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한다
너가 죽은걸 보았어...그들이 너의 몸을 부다홀로 가져가고 있었어
오쇼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 왔고 몸을 기울여 너의 이마를 만지자
갑자기 너가 사라지고 오쇼가 화장터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어

또 다른 사람은 강연 의자에 앉아있는 오쇼를 본다
그분의 얼굴이 나의 얼굴로 변한다...이런 기묘한 일이 있나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 일은 그를 매일 쫓아다녔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부다 그루브 뒤를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을 본다
한순간 그분의 기다랗고 하얀 수염과 함께...나 대신 걷고있는 오쇼

한 아이가 오쇼 오쇼를 외치며 나에게 달려온다
내 하얀 수염을 당기고 싶다고 조른다
오쇼 수염을 당겨 봐도 되요...오쇼 수염을 당겨 봐도 되요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
서둘러 여기저기 진실을 찾아
빠르게 더욱 빠르게 그들은 달린다...모든 방향으로 찾아 달린다

여행은 여기에서
지금여기로 이어진다

과거 현재 미래...모두 수식선 상에 존재
하늘 높이 그리고 땅속 깊이
이 영원 무궁한 현재의 순간

추구함이나...탐색이나...배움이나...행위는 아무의미가 없다

길 없는 길
심지어 한 발자국도 요구되거나 필요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집에 와있다

나는 정신병원에 있는 것이 어떤기분인지 안다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둘러 싸인채
협상 같은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곳...완전히 다른 관념의 세상

한편에 선 세상...다른 한편 기슭에 홀로 선 나

어디서 시작하지...무엇을 하지...어디로 가지...나는 정신병원에 있다

그저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의 사리 분별을 가리려 하지 말자
이 환상적인 부조리함을 즐기자
이 신비스럽고 깊은 홀로됨을 즐기자

유일하게 온건하던 나는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너무나 평범해 범상치 않은 사람
스스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새로운 날개가 자라게 해야한다

나는 일상의 명상속으로 돌아간다

저녁 크리슈나 하우스 근처에서 차를 마신다
여기 저기 흩어져 놓은 식당 테이블
그냥 침묵 속에서 혼자 차를 마신다

어디선가 갑자기...독일 산야신 한명이 나에게 달려들었고
아무런 경고없이 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한다

눈썹으로 부터 따뜻한 액체가 흘러 내리는 걸 느낀다
피로 범벅이 된 나의 눈
다시 그 똑같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공격
또 다른 하나의 문명인
그의 사랑과 명상을 표현하는 방법

사람들은 이 이유없는 공격을 혐오감과 놀람을 동시에 느끼며 지켜본다

그에게 산야신이 된지 얼마나 되느냐 물었다
이에 그는 십 이년 이라 답한다
대단해...이것이 니가 성취한 것이야
내면으로 들어가서 너 자신을 주의깊게 지켜봐
아주 훌륭한 산야신

앞에 있는 세면대 옆 거울로 나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 일어난다
눈썹 아래 피가 흐르는 큰 상처를 발견한다
얼굴 전체를 뒤덮으며 흐르는 피
누군가가 나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
크리슈나 하우스의 사무실로 가도록 도와준다

주위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앉아야 했다
그리고 의사 아미또와 자예쉬를 만나기위해

나는 아미또를 보며 말한다
눈썹 부위를 크게 다쳤으니 제발 상태가 어떤지 보아 주겠나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상처를 봉합해 주면 감사하겠네

즉시 그는 딱딱한 훈계 시작한다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너는 한번쯤 혼이 났어야 했어
너는 이 공격을 받아 마땅해
너는 사람들을 자극 시키고 있어
너 같은 사람은 아쉬람에서 추방당해야 해

거만한 자예쉬 조차...아미또의 행동에 놀람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아미또에게 부드럽게 나의 치료를 부탁한다

나는 공격당했다...아쉬람 내에서...바로 그들 앞에서 강습당했다
모든 목격자들이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고 있던 나를 보았고 안다
나는 그 자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

아미또는 상처 봉합을 거부했고...화를 내며 나가버린다
나는 그를 다시 불러 자예쉬 앞에서 말을 한다
너가 이 날을 기억할 것임을 장담하지
너는 어떠한 상처도 치료하겠다고 서약한 의사이고 아쉬람의 의사이기도 해
너가 이날을 꼭 기억하리라 장담하지

나는 소파에 누워졌다
얼음을 눈 두덩이에 얹은채...출혈이 멈추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봉합을 하기 위해 그날 밤 부드라니 병원으로 향한다

용서했지만 잊지는 않았다
나의 약속...나는 언제나 나의 약속을 지킨다

아미또는 사랑에 굶주렸고 오로지 응석 받아줄 사람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결심했다
그에게 기저귀 한 박스를 보내기로
그가 필요한 것은 바로 원초적인 훈련
아직도 항문기에 머무른채...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자 이것이 내가 너를 자극함이다
그저 쿨하게 유머 감각을 가져봐

아미또의 이해하기 힘든 논리...내가 피해자로 남길...내가 추방당하길
그리고는 나를 공격한 사람은 처벌 조차 면한다

아쉬람 경영진은 나에게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나는 신체적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한다

정상보다 훨씬 많은 잠을 자야 한다

그리고 열 네 시간에서 열 여섯 시간 까지 자기 시작했다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이다를 열어 호흡을 쉽게 하기 위해 에어컨을 산다

나의 새로운 삶이 된 잠자기

욕조를 준비해 굉장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궈둔다

매일 한시간 씩

뜨거운 물은 내 몸안의 고통을 누그러 트린다

나는 손상된 어깨를 치료해 줄 조직 마사지사를 찾아

한주에 두 번 치료를 받는다

낮에는 아쉬람에 출입 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몸을 낮추었다

저녁 식사때에만 아쉬람을 가서 식사를 하고

부다 그루브 뒤를 걸었다

그들은 내가 뿌네에 다섯달 동안 머물게 해주었다

내게는 아주 커다란 기적이었다

그 누가 기적의 존재를 알기 위해 더 이상의 기적을 바라는가

이는 충분히 증명한다



어느날 오후 나는 정문에서 들어가는 것을 저지 당했다
알콜 중독 권력계의 시비꾼...타타갓에 의해
그는 나를 쫓아낼 어떤 이유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게 발표한다

나는 느리게 걸음으로 아쉬람에서 출입을 금지 당했고
만약 다시 들어오길 원한다면 더 이상 느리게 걷는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나의 손짓 몸짓
오쇼를 흉내내는 모든 움직임을 바꿔야만 한다고 한다
내가 걷는 방식...손을 움직이는 방법...내 모습까지

나를 지켜주는 오쇼를 올려다 본다

이 신성한 아쉬람의 문없는 문 앞에서 모든 진실의 구도자들을 위해 맹세한다
그분의 날이 올 것이니...기다려라 나의 존경하는 친구여
기다려라...나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



매일같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지쳤다
나의 삶과 사는 방식을 정당화 해야함
여기에 남은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이 아쉬람에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산야신들
오쇼의 말만이 되풀이 되는 이곳

오쇼는 지구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 육백권의 책을 강의해왔다
양극의 입장에서...찬반양론을 포괄하며

산야신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기꺼이 혀를 놀려 오쇼의 말들을 왜곡시킨다

내가 책임 져야할 중요한 여정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

지금의 상태로는 아마 또 다른 팔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몸을 재 정비하고 치유 하는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몇 달 동안 나는
세계에 퍼져있는 많은 아쉬움으로부터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강연을 요청 받았다

내가 오쇼로 부터의 비밀스런 전이를 받았음을
많은 이들이 보았고 비밀리에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내가 겪은 첫 사마디를 인식했고
그것의 이해만으로도 나에게 대한 그들의 갈망은 충분했다
그때 나는 아차리야의 상태
진리를 알고 있었다
보는것이 존재하는 것
이제 순수한 존재가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나에게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내가 마지막 발걸음을 내 댈때 까지

미켈란 젤로는 그의 작품 다비드를 마지막 까지 숨겼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낸 그 명작

마지막 층이 얇아지고 투명해 지는 네 번째 사마디 전까지는
나는 그분의 대업을 시작하거나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위해 세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도록 운명지어 졌다면...그리 되기를
그렇게 되지 않을 운명이라면...그래도 그리 되기를

나의 환생이 일어난 것을 안다
내 위를 맴도는 그 위대한 전이
몸 밖에 떠다니는 이 태아는 이의 고유한 속도로 자라리라

알아차림으로 영양을 주고 기르자
존재가 나의 시기를 알리도록 두자

이것 역시 지나갈 것이니

개인의 계몽

가장 높은 봉우리에 이르기 위한 오르는 방법
그리고 집에 도착한다...우주 속으로 사라진다

광명의 전이

고개를 숙이고 스승에게 빨려 들어간다
그분의 존재로 녹아들고 사라지는 방법

궁극적인 것을 향하는 이 두 개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계몽...알아차림 그리고 오직 완전한 알아차림
광명의 전이...깊이 고개 숙임으로 완전한 알아차림

이 전이를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

제자는 적어도 한번의 사마디를 반드시 겪어야 한다
하늘로 수직 항행하는 정수리의 열림
스승은 존재는 이 수직 통로로 하강 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로 현존하게 되고 그분의 대업을 이어간다

인식의 지점인 제 삼의 눈

스승이 나타날 수 있는 곳 그러나 수직적 하강을 위해서는 부족한 곳

사마디는 광명의 전이에 필요한 기본 조건
그리고 스승이 택한다

스승은 완벽한 자각으로 이를 전달하고
제자는 자각하여 이를 받아 들여야만 한다

스승이 육체를 떠나기 전 양쪽 모두다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
의식적 전이...이미 알고 있는 양쪽
주는 자와 받는 자

존재는 나누어 질 수 없다

오직 한명 만이 이 전이를 받을 수 있다

오직 한명의 마하카샤 만이 존재할 수 있다



뿌네를 떠나기전 오쇼가 명한다
아래의 글자들을 식각 할 비밀 금속판을 만들어라
다가올 미래를 위해

오쇼

라즈니쉬

메트레야

가우트마

그

깨달은자

라즈니쉬는 일부러 라즈니쉬로 적혀졌다
사려깊은 자각의 행동으로 남겨진다
그리고 비밀로 간직한다
그분의 대업을 밝힐 그 때가 올 때 까지

이 금속판은 1990년 2월에 만들어 졌다

이는 이제 모두에게 그 모습을 드러 낸 채
세워져 있다



나는 뿌네를 떠나고 대기는 신선함으로 마구 넘쳐나는 듯 하다
호흡은 여유롭고 자유로와 지고
대기는 팽창되고 영양분이 넘쳐난다

대기속의 자유
끊임없던 비판들로 부터의 자유
마주하는 모든 이들과 필요로하는 조화로 부터의 자유

오쇼 산야신의 상태
그 소형국 만의 진한 대기
수용과 거부
지식과 판단
상과 별

깨달은 자의 대지는 스스로 정한 프로그램으로 엄한 조건이 지어져있다
이것이 새로이 자리잡은 조건
새로운 사회

그들과 그들의 규칙에 합당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만의 적합과 부적합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
진리를 찾는 장소라 하기에는 이상한 곳

자유라는 느낌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를 욕하고 아쉬람에서 추방을 시켜준 이들 모두에게 감사를
감사...감사...감사

드디어 나는 자유다
코히누르를 가진 최고의 도둑

그들의 다이아몬드 전체를 훔쳐 달아나진 않았다
그들이 나를 내쫓은 것이다
이제 더이상 그 누구에게도 답해야 할 책임이 없다

내버려 두고 떠나도 될 자유가 있다
모두에게 공개된 숨겨진 그 다이아몬드
내위로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며 떠있다



달아나고 있는 최고의 도둑

산위로 나의 티벳 친구들에게로 향한다
그 히말라야...다람살라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휴양이 되리라

자르고 다듬는 그 다면체의 다이아몬드
맞추어 자르기 위해 자르고
맞추어 면내기 위해 면을 내고
맞추어 광채내기 위해 광채를 내고
맞추어 크기내기 위해 크기를 내고

광명의 전이 속으로 빠져든다

앞서는 위대한 과업
홍분되는 다이아몬드의 갈고 닦는 준비

1990년 9월의 중순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 다람살라에 도착
나는 티벳의 모모와 투파 면을 엄청 좋아한다
그들에게서 상쾌한 산의 공기를 맡을 수 있다
그릇에 젓가락과 마늘 고추 양념
이런 종류의 음식이 그리웠고 작은 티벳 식당을 찾는다

이들은 따스하고 친절하 눈빛을 가졌다
지혜와 연민의 주름은 그들의 순수한 얼굴에 깊숙히 세겨있다

고난만을 알고 지내온 그들
외딴진 황량한 땅 티벳...이제 망명에 이른

티벳...파괴된 지상 최대의 시도
삶과 죽음...바르도...칼라차크라 그 블랙홀
계몽...광명의 전이
그들이 지닌 태고의 앎
그들의 피와 뼈 속그리고 중심부에 묻혀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심정이 어떠하랴 깊은 동정을 그들에게
티벳의 자유
이 순수한 영혼이 그들의 길로 숨겨진 보물을 향하게 허락하라
조용히 그들이 내면 여행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





더해지는 민감한 고통과 깊어지는 고통의 경험
함께하는 그 위대한 실현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티벳의 자유
그러나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그리고 표현한다

언제든 티벳인이 자신을 망명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때면
나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의 상실에 대고 즉시 말한다
다시는 너희 스스로를 망명자라 부르지 말아라

너의 안이 티벳의 땅이고
너의 안이 너의 영원한 땅이니
스스로를 자유로이하라 그리하면 티벳을 되찾을 것이다

나에게 티벳은 단지 땅일 뿐만 아니라 존재를 위한 내면의 공간이기도 하다

나에게는 모두가 망명자이다
그들은 안전한 그들만의 땅 안에서 안심하고 꿈을 꾸고 있을 뿐

안심할 수 있는 오직 한 곳...너의 내면의 땅 너의 내면의 하늘

나에게는 온 세상이 망명자이다
내 눈에는 단 한명의 티벳 망명자도 띄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길 위의 무사들
모든 방면으로 펼쳐는 영적인 무사들
오늘날 그들이 세상을 필요로 하는것 보다 세상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

내 친구 영국인 베로니카와 이탈리아 피에로를 찾는다
그들의 삶을 티벳인 운동에 헌신한 그들
그리고 만들어낸 오아시스 마하야나 명상원
그들이 나를 이해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도착한다
일년 동안 침묵의 휴양을 위해 내어주는 거처

도착한 마하야나 휴양원
나의 적갈색 승복은 모두에 의해 응시된다
그들에게 이상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그들만의 절로 반긴다

베로니카와 피에로는 거기에 없다
그 뚱뚱한 이탈리아 여자는 변한 표정으로 나를 사납게 쳐다보며
당신은 오쇼의 제자이죠
우리는 심각한 구석이란 없는 풀어져있는 당신들을 받을수 없어

나의 이유를 설명한다
오쇼의 사람들 조차 내가 너무 심각하여 싫어한다고
베로니카와 피에로와 친한 사이라고
베로니카는 나의 태극권 학생이었다고

불교의 색인 적갈색 승복을 입고 있고
오로지 비파사나 걸음과 정좌만을 하며
일 년동안 침묵으로 휴양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하루 한끼...채식주의...금연 금주
그리고 여자친구없이 혼자 산다고 했다
일 년치의 휴양비를 준비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그녀는 내가 재미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지만 아닌척 하며
라마에게 조언을 구할테니
내일 다시오면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굽은 길로 나서자
그들은 느리게 걷는 나의 걸음을 유심히 지켜본다

다음날 다시 찾은 그곳에서 그다지 기분좋지 않은 얼굴로 만난다
미안해요...우리는 오직 비파사나 학생만 허락해요
일년동안 정화와 기도문 의식을 행한자 말이예요

첫번째로 범구경을 읽고 배워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매일아침 5시 30분에 예배와 기도문을 외워야 하며
이 엄격한 교육은 높은 라마로 부터 내려오며
그들의 문을 통과한 후에야
지도없이 침묵의 휴양이 허락될 것이라 하였다

와...지구상 이땅에 다시 태어나 이곳에 다시 와야겠다

잘있어 잘있어 티벳의 권위여...엄격한 규범과 훈련
직접 보기 시작한 이 방침들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박수 호텔로 향해 내려간다
달라이 라마의 자택 근처에 다다른다
멀리서 부터 보이는 앞뜰과 늙은 여인 한명
그의 자택을 향해 계속하여 바닥에 엎드려 절을한다

가까이 다가가 수도승에게 묻는다
왜 그녀의 이마에 그토록 깊은 상처가 있느냐고

나이가 아주 많아 보이는 그녀...매우 성스러운
달라이 라마 그 신성에 바치는 백 만번도 넘는 절
달라이 라마 그 만물을 보고 또한 알며 태양을 뜨게하는
그의 온정에 찬 눈에서 더한 공적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나는 흐르는 눈물로 그녀를 바라본다
완전한 순수함

매일 매키로드 간지로 향하여 천천히 걸어간다
나의 한끼 모모와 투파를 위해

늙은 티벳 라마들의 무리를 가까이서 지켜봐왔다
지금 박수호텔로 향하는 나를 따라오는 그들
내뒤로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꼬리를 문 그들이 보인다
내 방에 도착해 차를 주문했다

정원을 향하는 발코니 문을 열자
여덟 명의 늙은 라마가 앉아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이 보인다
그들은 안내원에게 나의 방 번호를 물었었고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밤까지 명상하는 나의 일상을 알아냈다

매우 수줍어하며 단아한 그들은 다가와 나를 만날 수 있는지 묻는다
일주일 쯤 나를 지켜봐 왔다고
몰래 뒤를 따라왔다고



멀리 떨어진 라닥 그리고 레헤에서 왔다고 말한다
곧 돌아 가야 함도
그러나 요 몇일 동안 나에게 대한 미래상을 가졌으니
나와 함께 그들의 수도원으로 가기위해 여기 왔다고 한다

그들의 미래상인 나는 그들이 기다리던 라마
환생한 그 신성 라마 카르마파

모두가 기도문을 외우며 절을 하는데 몰두했다
그들이 본 것이 진실인지 묻는다
내가 세상으로 부터 숨어 있었다고
걱정하지 말고...나를 돌볼테니...그들과 함께 가자고 한다

너무나 진지한 고개숙인 인사와 절
너무나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를 대하는 그들
그 나이많은 여인이 눈 앞을 스쳤다

들어보세요 라고 나는 말한다
당신들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들 하고
차 한 잔씩 합시다

그들은 모두 나의 재치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평범했고 다가서기 쉬운 사람이었다
편안한

조용히 차를 마신다
공경으로 절을 하는 듯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

부탁이니 우리와 함께 갈 것을 승락해 주세요
그들은 간절히 다시 물어본다

네 네...네 네...진정하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수도원에 대해 말해봐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설 산에 있는 그들의 수도원에 대해 진지하게 그린다

나의 장난끼가 발동한다
첫번째 질문
현대식 뜨거운 물이 잘나오는 욕실과 욕조와 갖추었나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들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한다



두번째 질문을 한다...장난으로
서양식 변기를 갖추었나요
히말라야 기슭에서 서양식 변기라니 나도 참

곧 나의 장난을 눈치채고 안심하는 그들
그들은 그때부터 내가 말만 하면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
그러니 진정하고 지켜보세요
침묵과 정지를 즐기세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그때 가지요
다시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한참을 함께 앉아있었다
이 아름다운 늙은 라마들의 지혜와 넘치는 인정
웃음을 터트릴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나에게 남기고는
오쇼의 책을 꼭 읽어 볼 것과 나를 기억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

나는 매일 그들을 떠올린다
이 가엽고 순수한 수도승을 향하는 눈물과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 스스로를 망명자라 한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유일한 망명자
그 노아의 방주

언젠가는 티벳의 인종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이 인류의 미래이며 빛
그들 자신의 내면으로 부터 그들만의 티벳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인류의 자유를 도울지도

움 마니 밧메 흙
연꽃 잎 속의 다이아몬드

나는 다람살라를 떠난다

이 작은 산속의 마을은 너무 좁으며 단 몇 곳의 열린공간만이 있다

히말라야의 또다른 마을 꿀루와 마날리에 대하여 듣는다

오쇼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육 개월을 지냈던 곳

사람들을 입문시켜 그분의 최초 산야스 움직임이 일었던 곳

신들의 계곡 꿀루 마날리

산지 지만 넓고 부드러운 경사를 가진

위대한 현자들과 구도자들이 명상을 위해 생을 보내는 곳

완벽한 히말라야 산맥의 마을

적당한 가격의 여관들과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호텔들

나는 마날리에 도착하여 소나무 숲 속에 멋진 여관을 찾는다

겨울이 내려 앉으니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멀리 로망 길 너머 보이는 눈부신 설산 봉우리의 절경

비아스 강이 세차게 몰아 치는 소리와

키가 큰 히말라야 삼나무와 소나무의 방대한 펼쳐짐

강 근처의 공기는 상쾌하고 신선하기 그지없다

건기에 딱 좋은 잘 굽은 소나무 숲 속 길

나는 마날리에 반했다

그 신들의 계곡...이것이 나의 휴양이고 거처

오쇼가 1970년 왜 그의 산야스 움직임을 이곳에서 시작했는지 볼 수 있다

6년 동안 일 한번 하지않았으니 돈은 바닥이나 있었고

그나마 도움을 주던 고모와 여동생도 지쳐있었다

나의 태극권 학생이던 필란드에서 온 허벌트 닉쿠이스트

그는 나의 소식과 어려운 재정 상태를 듣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하여 명상인의 길을 걸으라는 편지를 보내

나를 놀래켰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월급에서 500달러의 수표를 보냈다

이 사람이 나의 구도자 행로에 도움을 준 첫번째 사람이 된다

그리고 다음 닉 달 동안 계속하여 돈을 보내 주었다

그의 사랑과 격려와 함께

나는 언제나 그에게 감사함으로 남을 것이다



다음 두 달 동안 강 가에 앉기 시작한다
물 흐르는 소리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낮에는 선명한 하늘과 곧장 내려찍는 산의 태양
소나무 숲으로 긴 걸음을 걸으며 모두를 안으로 들이 마신다
나의 몸은 잃었던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고 치유를 시작한다

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밤이 늦도록 밖에서 머문다
소나무 숲 옆에서 큰 장작 불을 지펴 새벽 3시까지

추운 겨울 날씨는 손상된 이다에 완벽하다
추위와 싸우는 호흡은 몸을 강화하고 내면의 경로를 연다

이 것들이 내 삶에서 가장 활기를 띤 날 들이다

그 탐색은 끝
완전한 휴식 속에서 그저 몸의 긴장을 풀고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찾도록 내버려 두자

깨어있을 때 걷고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고
걸을 때 걷고
앉을 때 앉고

도의 방식
선으로의 삶

지금여기 최선을 다해 산다
이 귀한 날들을 선사한 나의 사랑하는 친구 허벌트 감사해요

매일 오후 차를 마시며 정원에 앉았다
곧 아름답고 천사같은 미셸과 친해지게 된다
마날리를 지나던 히피 배낭여행자

저녁까지 나와 함께 앉기 시작한 그녀와
다음 몇 달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다

순수함과 생기넘치는 재치 그리고 전염성을 가진 친구
이것은 내가 새로이 발견한 자유 중 하나가 된다
아쉬람의 공격과 비판들로 부터 떨어져

이 순수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배낭여행자들을 보기 시작한다
히피 대열에 서서 인도로 온
신선하고 열린 눈을 가진 진정한 영혼들...열린 가슴...보살피는 영혼
방랑하는 진리의 구도자들

나의 심장은 터져 나가기 시작했고
나의 밤과 낮은 황홀감으로 나아간다
나의 내면 세상은 빛속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빛을 경험하고 무수한 사또리가 스쳐간다

광명의 전이는 몸 속으로 자리를 잡는다
신비스러운 오쇼의 전이는 하루 하루 선명해져 간다
더 한 성숙으로 나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진입하기 시작했다
더 넓게 그리고 더 광대하게...더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된다

이제 나를 이해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모든것을 비밀로 한다
어쨌든 이들은 꾸밈없는 사람들
오쇼와 그의 일과는 관련 없는
그저 나의 느린 명상적 방식의 삶을 바라본다
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말하기를 나에게서 독특한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

다음 6개월이 스쳐지나 간다...곧 만기를 다해가는 미셸의 비자

돈은 영원히 남아있질 않는다
직업 다운 직업을 찾고 돈 다운 돈을 벌어야 한다
다시 마날리에 돌아와 나의 과정을 마치리라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홍콩에 있는 여동생 쇼나에게 전화를 한다
돌아온 나를 반기는 그녀
홍콩 취업 허가증을 사용하지 않은채 떠나 있었는지 5년째

홍콩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걷는다
이는 더 평정을 찾고 더 깊어져 있다
더 빠르고 더 무질서 해 보이는 미친듯한 혼잡함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이 무질서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는다
선명한 대비
느린 움직임으로 쉽게 들어나고 투명해 진다

나는 속도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한다
적어도 멈추어 있는 자에게

모두가 이 광대한 기운의 연못에 기를 불러 일으킨다
자유로이 떠다니고 바람속으로 흩어지는 이 기운들

사람은 이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은 모든것을 끌어 당기고 변이시킨다

새롭고 드넓은 현실화로 눈 앞에 서 있다

오쇼는 몇 달 마다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
그 대비를 경험하기 위해

이제 세상이 나를 삼킬 수 없음을 안다
세상에 살되 그의 일부는 되지마라
마치 연꽃 앞에 맺힌 이슬 같이

없어서는 안될 조화로운 기운 음과 양
하는것 과 하지 않는것
하지 않고서 하는 것을 경험 하는것
무위라 부르는 너무나 위대한 스승 라우쥬

나는 깊이 스스로를 정지하고 이 혼잡한 세상을 흡수 할 수 있다
소용돌이의 그 중심
나의 수직 중심을 시험하는 것

여동생 쇼나와 그의 남편 라메쉬는
나의 갑작스럽고 혼돈되며 분별없던 행동에 경험이 있었기에
홍콩의 그들의 회사에 일하는 것을 윈치 않았고
그의 형과 일해 볼 것을 추천했다
나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로 그들의 시계 홍보일을 하러 가게된다



1992년 4월 만우절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나는 이 기막힌 상황에 웃음을 터트린다...도착날로 완벽한 날
내가 어리것은가 아님 세상이 너무도 어리석은 가
한달 겨우 400달러를 받고 일자리를 받게된다

나는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증명해 보일수 있었다
빨리 벌어서 나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마날리로 돌아가야한다
나의 목표 오만 달러를 달성 후

꿈을 꾸다 죽어도 계속 꾸어라...꿈꾸는 자는 결코 꿈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코로나에 있는 그들의 대저택에서는 지내고 싶지 않다
안전장치된 대문과 호화롭게 꾸며진 수영장
두대의 500sl 메르세데스 벤츠

다른 옷 한벌 없이 내가 가진 옷은 태극권복 뿐
그들의 사치스러운 부자 이웃들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다

월급은 700달러로 올리고 알아서 혼자 지낼 것이다
베니스 해변에 예술가들과 구도자들이 사는 작은 공동체를 찾는다
몇 몇은 오쇼와 연관된 듯 눈에 익었으나 대부분은 히피 또는 떠돌이들
완전 쿨하고 절충하며 사는 18명의 무리로 이루어진 이 곳

그들이 가진 다섯개의 방은 다 찾고
나는 하룻 밤에 10달러를 내고 빌려준 매트리스로
개조한 창고에서 다른 6명과 함께 지내게 된다

바보같이 짝이 없는 사무실 문 열고 닫기를 시작한 나의 일
베니스 해변에서 캘리포니아 마트 시내까지 가는데 버스로 두시간
돌아오는데 두시간
시내까지 대중버스로 통근은 웬찬았지만
돌아오는 매일 밤은 술취한 사람들과 떠돌이들로
버스는 떠들썩 해졌다...너무 했다

내 직업은 의미없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스케치 하기 시작한 시계 디자인 아이디어를
파카쉬와 그의 아내 루더스와 의논하자 놀람을 금치 못한다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업가인 그들은
즉시 내 디자인의 가치를 보고 시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몇 달안에 돌아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박람회
홍콩의 손목시계와 벽시계 박람회
이제 두 달째 그들의 회사를 위해 시계를 디자인 하는 나
다시 인상되는 월급 1200달러

색다른 과감함과 일반 적이지 않은 시계들의 전시
9월의 박람회에 나와 함께 버젓이 자리하고 주문을 받는다

새로운 소식은 나의 파격적인 디자인 모두 300000달러를 넘어선다
회사에 50퍼센트의 이윤
그리고 3퍼센트의 나의 디자인에 대한 로열티
한 주에 벌게 된 9000달러
제작과 수출만 하면 된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시계 디자이너로서 새롭게 시작한다
나의 성공은 더 파격적인 디자인 위탁을 거두고
새로운 디자인의 자유로운 창안과 홍콩에서 뺏어가는 여행을 한다

더이상 대중버스로 여행 할 필요가 없어졌다
달 결제 할부로 구입한 도요타 쉐리카 오픈카

감사합니다 오쇼...이 모든것은 당신을 위한 것 입니다

지붕이 열리는 오픈카로 누리는 로스앤젤레스의 자유
차가 사막의 낙타와도 같은 곳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배우고 방향을 잡는다

인상된 월급 1700 그리고 3퍼센트의 디자인과 판매
이제 세계 여행으로 보내진다
나의 디자인과 시계가 세계적인 소비자에게 공개

파카쉬와 루더스는 전 세계를 여행해 왔다
시계 사업차 꽤 자주 비행한 그들은 만 마일 탑승자
여행에 지쳐있었고 그들 일을 대신할 내가 있었다

전 세계 위를 일 년에 세 번 날게 된다
홍콩 스위스에서 열리는 큰 시계박람회인 두번의 짧은 여행까지

디자인 여행 판매...디자인 여행 판매...디자인 여행 판매
그들의 판매 시기와 제작 그리고 발송의 순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년 동안 널리 그리고 재빠르게 지구를 여행한다
남미 전체와 먼 극동 중동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미국
수출과 판매가 가능한 모든 나라들
그들은 최고의 특급 호텔과 500달러의 출장비용을 준비한다

나의 과거 흥미거리였던 의상과 디자인이 고개를 든다
여행하는 동안 수백권의 의상과 디자인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한다
나는 이들에 의해 매혹된다 폴 꼴띠에 이브생로랑
켈빈클라인 도나카란 아르마니 지안프란코 페레 미소니 크리지아
디오르 지아니베르사체 이세미야키 겐조

이 년간 누빈 세상

여전히 천천히 우아하게 걷는다

뮤닉의 공항 한가운데서 지목을 받는다
탑승을 위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중 맥주로 취해있는 산야신에 의해
이봐 라즈니쉬 당신 맞아...당신 여전히 천천히 걷는거야
맨하탄 건물에서...이봐 라즈니쉬 또다른 산야신이 소리친다
정말 여전히 천천히 걷는 당신이 맞아
영국의 캠번 타운...이봐 믿을수가 없군...라즈니쉬 여전히 천천히 걷는군
스위스의 바즐...세상에...이 사람 미쳤군 아직도 천천히 걷다니
그들은 아직도 나의 느린 걸음을 기억한다...일본 신주쿠 한복판에서도

완전히 대비되는 충격적인 나의 느낌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서도 단번에 다른것을 알아본다

이 이년간의 여행으로 평범함과 나 자신으로 있는 법을 배운다
깨어있음으로 주의깊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훌륭한 스승이다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 이세상은 연꽃의 천국
삶의 충만함으로 살고 이의 의미심장함을 이해하라

우리가 살고있는 걱정적이고도 창조적인 시간들
무한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바깥 세상의 경험하는 이 모두가 기쁨

여행은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한다
각기의 색깔과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는 지구위 각 나라들
각기 가진 멋과 의미
각기 완벽을 향해 노력하고 성장

공원을 산책중인 중년 남자...길거리의 구걸뱅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뜨게질 하는 여자...엄아와 아이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캔버스와 화가
공연을 하고 있는 무용가...음료를 나르는 웨이터
피곤한 승객을 돌보는 여승무원...조종실의 조종사
나를 내려 주는 뉴욕의 택시기사...허드렛일과 가게주인
밤세도록 파티를 하는 십대들...지하철 속 음악가
그들의 직업에서 승진하는 부모...가족의 안정

모든 영혼들은 더 나은 그들을 꿈꾼다...더 높이 안간힘을 다해
이 존재 전체의 춤...영원으로 향하는 영혼의 춤

이 것이 은하계의 가장 아름다운 별
무한한 은하수로 뻗어나가는...은하계 위 은하계
인류와 함께 살아있는 우리의 지구
별을 향해 도달한다

새로운 빛으로 이 드넓은 인류를 보기 시작한다
이 땅은 구도자들로 넘쳐난다...나에게는 모두가 구도자
그들의 평범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지나치는 모든 눈에 어린 진실...모두 더 받아 마땅하다
더 더욱더...더 더욱더

진리 그것은
모든 가슴 속에서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모든 숨 속에

자각의 알아차림으로 존재
오직 의식이 너를 대려갈 수 있다
너 자신의 진리로
불멸한 내면의 존재

로스앤젤레스 회사와 함께한 이년 후
홍콩의 큰 시계회사 그들의 사촌 디네쉬로부터 스카우트된다
이익을 나누고 월급 3000달러
또는 디자인 판매 총매출액에서 10퍼센트의 로열티
나의 소유권으로 된 어떠한 특허 등록된 디자인

나는 미국에서 항상 이방인...아시아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가깝다
이 움직임이 인도 마날리로 돌아 가고품을 재촉한다
명상을 위한 안정된 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던 일
그리고 홍콩회사에 일년만 더 일 할 것임을 분명히 해두었다

내가 창안하고 세계적으로 특허를 낸 가장 첫 디자인
국제적으로 알아주고 유명해진
전자 기타 모양
이 손목시계는 세계적으로 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매출액은 거의 3억달러에 달한다

시장은 음악 세계로 문이 열린다...록 스타의 팬 클럽
엘비스 프레슬리...그래스랜드...돌리 파튼...디즈니랜드...비틀즈
롤링 스톤...비엠지 뮤직...애틀랜틱 세계 모든 젊은 이들이 이를 사간다
메일 책자 주문과 고급상점부터 거대한 소매상
지비씨 홈쇼핑에서 월 마켓 같은 거대한 소매상 까지

이 인기 판매 디자인은 다음 연속 출판물 악기 디자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다른 인기 판매 오토바이 시계 라인

손목 시계 계에서 화재거리가 되고 전세계로 수많은 기사가 난다
판매자 수출업자에 의한 거대한 국제 판매 캠페인이 열린다
이 디자인을 소개하고 진출시키기위해 두번의 세계일주를 한다

약속했던 딱 일년 정확히 11월에 은퇴를 한다
1995년 1월 19일 전 마날리로 돌아가리 스스로 약속했었다

그저 돈을 버는데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것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었기에

나의 홍콩 가족들은 다시 한번 놀란다
그들은 내가 나의 회사를 만들어 키워나가며 지낼것이라 짐작했다
이제 알아주는 디자이너
일년에 거의 300000달러를 벌어들였고
뉴스에 오르며 이 물결을 타고 더한 파장을 일으킬

유명한 문구가 있다
어리석은 자는 돈을 오래 지니고 있지 못한다

인도인이 관여하는 외환환전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었다
나는 얼마의 돈을 사촌에게 보내
인도 화폐로 환전을 부탁하여
얼마는 투자하고 나의 인도 회사의 다른 투자를 위해 팔았다
수표로 이루어진 교환



다시...어리석은 자는 돈을 오재 지니고 있지 못한다

나의 인도 회사를 삼킨 개인
국제적으로 가짜 수표를 주었고
1995년 1월 침묵으로 들어가는 날 부도가 난다

나의 사촌은 내가 송금한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했고
이는 다른 투자에 눈덩이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세 번의 어마한 금액을 단 한 달만에 잃게 되었다

사만 달러의 가짜 수표
삼만 오천달러 송금에서 잃음
사만 오천달러 투자에서 잃음

내가 홍콩 회사를 떠날때 내 월급의 세배인
일년에 칠만 달러를 벌어들일 동업을 제안해 왔다
여동생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한다

400달러에서 시작해 300000달러
모두를 잃는다
그리고 만달러를 만드느냐
아님 빈손으로 돌아 서느냐 기로에 섰다

이제 뒤를 돌아 볼 수가 없고 낭비할 시간조차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게 얼마이든 이것으로 다음 사 오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희안한 행운이
거의 모든 돈을 잃고 텔리에서 지체하고 있을때
티베트인 양첸을 만난다
그녀는 나의 휴양을 위한 마날리 행에 함께하기로 하고 같이 살게된다

히말라야는 내가 정말 선호하는 여유로운 삶을 선사한다
허리까지 머리가 기르도록 내버려두고...수염도 기르게 내버려두고
간단한 룡기...허리를 둘러감는 천조각을 걸치고
아무것도 입지않은 상체에 외출할 때만 걸치는 솔

눈으로 뿔낸 히말라야에 명상하는 요기에게 완벽한 삶
여기 단순히 감아놓은 룡기패션이
첨단 유행과 빠르게 변해가는 패션에 출전한다

고요속으로 빠져들기위해 돌아온 마날리
다시 돌아온 내면 여행

인도로 실고온 나의 토요타 쉐리카를 타고 마날리로 향한다
새벽2시 대사 호텔 바이스스트로 향하여 위로 운전한다

올라가는 길 희미한 달빛에 비춰진 작고 하얀 별장
나를 끌어당기는 이곳까지 단숨에 운전해 간판을 본다
하얀 구름 별장
위를 향해 더 나아가자 나타나는 아름다운 티베트 절
흐르는 비아스 강의 개곡사이로 펼쳐진 광대한 절경

이 순간 이것이 징조임을 알았다
이 곳을 나의 휴양지로 삼고 살 것임을

다음날 별장 주인을 만나기위해 티베트 절에서 온 주인을 만난다
이 별장은 하루 하루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있었다
일년치의 가격 흥정을 한 뒤...지불하고 들어와 살게된다

십 이월의 첫 주 내리는 눈
오쇼의 생일을 순백의 하얀눈으로 맞이한다

완전한 고요함이 배여있는 마날리 개곡
모든것이 순결한 흰색
고요함과 정지

장작불을 쬐며 방을 데웠다
우리는 겨울 휴양에 만반의 준비되었고
안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일년동안 침묵속으로 들어갔다

나의 회사를 삼킨 개인은 내가 침묵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다
정확히 일월 제일 처음으로 반환되어온 수표

침묵으로 향하고 있는 산야신인 나에게
이 마날리 산 속에서 법정까지가 싸우고 할 시간이 어디있단 말인가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과 요구할 서류와
협의 가능한 방법을 살펴보게 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하고 내면으로 향하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변호사들과 법정에 시달려
계속해서 법정에 드나들게 된다

인도 법정과 법률의 허점 그리고 명확하지 않는 기일
재판의 지연과 타고난 부패는 또다른 문제
범죄자는 벗어나고 정당성을 찾는 이가 범죄자가 된다
이 썩어빠진 운영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이 죄이니
여기에 맞지 않는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고 전혀 놀랍지 않았다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기에는 충분히 보아와서 안다
물질적 세상...정신적 세상...모든 것이 뒤죽 박죽



이 생의 귀중한 순간들을 내면으로 깊이 움직이기 위해 아껴야만 한다
이 내면의 움직임은 시급함과 충체를 요한다
내면의 잠수 시작

다음 두 해를 내면여행의 깊이를 더 하는데 보낸다
수평선으로 닿을테면 또다른 수평선 속으로 희미해져 가는 수평선

목표가 되는 여행...목표의 부재...단순한 여행...한걸음 한걸음

각각의 우주는 또다른 우주로 이끌고
또다른 우주 속의 지각과 새로운 이해
벗겨지는 양파와 같다...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름다운 티베트인 양첸에 의해 돌봐진다
조용하고 평온한 천성을 지닌 그녀
집에서 작고 간단한 일상에 완전히 수용한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서든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길들이고 영적 성장을 강요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사는 것 만으로도 그녀에게 벌써 어마한 변화가 일었다
그녀만의 속도로
아무런 이유없이 육식을 멈추고
사람들 만나기를 줄이며 스스로 고요히 남기를 원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완전히 수용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열혈한 그녀의 천성 완벽했다

끊없는 인내의 요구
그러나 단 한번의 빛을 본 이에게 이 한해의 연기는 매우 귀했다
그 하강한 위대한 고결함의 폭발
육체는 변이할 시간과 더 깊은 층을 위한 준비를 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게을러 지고 완전히 수용한다
하루가 지나 갈 수록...급한것 없이
서두르지 말고 찾아해매지 말고 더 갈망하지 않고

방향과 차원이 변해버린 여행
수직의 상승은 수평의 확장으로
즐기는 더욱 더 폭이 넓어지고
뿌리는 더욱 더 깊이를 더하고
무성한 잎은 더 넓게 뻗어간다

밖으로 부터 탐색하고 움직이며
내면으로 부터 허락하고 휴식한다

한해는 작은 극적인 변화와 함께 흐르고
그저 평범함이 되어간다

그리고는 갑자기
조금의 기대도 할 수 없을 때 가해오는 뜻밖의 일격

내려앉는 7월의 장마
이제 산속의 공기는 폐의 호흡을 확장하고
초록은 더한 초록빛을 띤다

1997년 느닷없이
알림도 없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쿤달리니
그러나 제어되는 정지와 거대한 힘들의 모임
밤과 낮은 하나가 된다

다시 하늘 속으로 옮겨지는 나
저 높은 대기속으로
구름위를 떠 다니다 비가되어 내린다

마술과 같은 우주는 다시금 그 비밀을 쏟아 붓는다
나는 훨씬 강해졌고 정지하며 조용히 지켜본다
다음 몇 달 동안 그것의 폭로가 인다

똑같은 창문이 열리고...똑같은 축복의 폭발이 인다
그러나 정지함과 깊은 침착과 함께하는

나의 별장에서 떨어져 있기 위해 숲속의 여관으로 온다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주변을 찾아
움직임으로 나의 존재는 생기를 회복하는 듯 하다

숲속의 작은 휴식처
방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세차게 흘러가는 강
독을 넘쳐흐르는 억수 같은 비에 젖어 든다

공간 속 전체에 스며있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의 진동
노래하는 강 음...음...음...음...음

음...음...음...음...음...대기 속으로 터져오르는 축복

폭발이 일었다
이것이 나의 세번째 폭발

양첸은 나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내심으로 알아차렸다
여자들이 가진 직감과 적은 말수
그녀는 이 기간동안 나에게 딱맞는 짝이었다

그저 말없이 알아차림과 침묵으로
나를 돌보기 위해 있어준다

이것이 티베트인의 방식... 적은 말과 조용히 남아 지켜보는

고마워요 양첸 이 날들에 나를 돌보아 주어서

나의 삶은 참으로 축복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늘 나에게 축복이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최고의 사람들이 곁에 한다



마주보는 두 나선형이 힘을 가해 엇갈리며 움직이는 쿤달리니
이다 그 여성의 힘
핑갈라 그 남성의 힘
둘다 중심의 수직인 강력한 전기의 푸른빛 수습마에서 만난다

그 위대한 대립 이다 그리고 핑갈라
그 위대한 유인 그리고 중심을 향해 끌어 당기는 수습마

대립의 조화
긍정과 부정 양극의 대립
삶의 원천 수습마를 위해 서로 보완한다

이 조화가 열쇠
이다와 핑갈라 사이 그 조화의 원천
음과 양의 사이 그 조화의 원천

완벽한 균형과 대립으로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는
이 대립의 유인을 잡아 끌어
삶의 원천 수습마의 교차점 속으로 바로 융합된다

수습마의 교차점에서의 만남은 격정적이며 강력하다
위대한 균형과 방대한 대립
위대한 폭발이 각 중심에서의 만남
차크라의 빛속으로 발산한다

높고 높은 제 일곱번째 센터는 하모니로 터져오른다
각각이 가진 그만의 빛의 주파
빨강 오렌지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모두가 흡수되고 순백의 흰 빛속에서 만난다

사토리는 어떤 하나의 차크라에서 강력한 폭발
그 차크라는 어마한 넘쳐 흐름을 경험하고
육체마음 형태의 한계를 넘어 도달한다
그 열린 하늘과 하나됨

사마디는 푸른 선 수습마에서 강력한 폭발
재빠른 수직의 강력한 폭발 속에 만나는 몇개의 차크라에 의해 당겨지는 방아쇠
육체마음 형태의 한계를 넘어 경험한다
그 열린 하늘과 하나됨

여기 다른 것이 있다

사토리 초월함으로의 엿보기
사토리 그 영향은 일주일 남짓 계속된다

사마디 초월함으로 폭발
사마디 그 영향은 한달 남짓 계속된다

사토리 그 작은 분량의 경험
한차원의 하나의 차크라

사마디 그 짙수 없는 경험
다차원의 여러개의 차크라

사마디 뒤엎을 수 없는 경험과 하늘속으로 향하는 높은 수직의 열림
중력의 상승과 무중력의 하강이 채우는 진공

중력의 교체가 만들어 내는 내면의 진공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존재
중력의 교체로
무중력이 자리를 잡는다

명상에서 무의 첫 경험은
가득찬 듯한 무중력과 존재로 채워진다

비우는 사념...중력
채우는 무념...무 중력

하늘 속으로 헤어난 그 초의식
육체는 이를 보호하고자 천천히 되돌려 놓으려 그것을 잡아 안으로 당긴다
각각의 사마디는 중심을 키워나가고 몸이 이를 다시 받아들일 것을 요한다



나는 늘 양자 물리학과 원자 과학에 관심이 있었다
내가 형성하는 해에 프리소프 카프라 책을 읽고 있었다
이 해에 양자 물리학 대한 이해의 성장을 발견한다

수 천만의 터져오르며 춤추는 세포들의 내면경험
드넓은 내면의 빈 공간
깃털 같이 부드러운 블랙홀에 깊이 빠져들고 둘러 쌓여
영양을 주고 화이트홀을 만들어 낸다

삶이 가진 역동적임과 내면의 상호작용
양쪽 모두 서로 의존하며
살기위해 죽고 죽기위해 산다
죽음으로 향하는 삶...죽음은 더한 삶을 창조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춤...계속...계속
큰 원...그 담마의 바퀴...완벽한 원으로 돌때까지

나는 강가 휴식처에서 돌아와
별장위에 있는 티베트 절로 향한다
그들의 나이드신 승려가 말하기를 그 하얀 구름 별장은
1970년 오쇼 그분의 첫 18명에게 산야스를 주었던 정원의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딱 20미터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고 했다
그분은 이 경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의 경치와
굽어진 산길을 걷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했다

이게 무슨 놀라움과 큰 기쁨이다...너무 신기하다
일 년전 이 지점까지 단숨에 운전해 왔었는데
그것도 한 밤중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과 과수원이 있는 험준 별장으로 이사한다
이곳에서 4년을 더 보낸다
고요함 속에 살며 수풀진 산속으로 걸으며
소나무와 강가에 둘러 쌓인채

곧 가진돈이 바닥이 난다
대부분을 법정 일로 계속해서 싸운 변호사들에게 썼다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힘들어지고
2000년 2월 그 5년의 세월뒤 양첸과 함께 홍콩으로 돌아간다





언제나 나를 반기는 쇼나와 라메쉬
그들은 못본지 오년이나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다섯명의 자녀를 두었다
첫째 아들 튜샤르 네 명의 딸 나타샤 라모나 트리나 웨리나
그들 한명 한명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들 모두를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모든 아이들이 양첸을 좋아했다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과 구성의 이 세상을 좋아한다
깨달음을 향한 여행이나 성취에는 관심따위 없는
그저 요란떨지 않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이 세상

나는 아이가 없다...쇼나가 우리 가족모두를 위해 일을 마쳤기에

라메쉬는 아주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인도인 아버지...타이의 어머니...버마에서 태어났다
타이의 문화를 엿보이는 그의 우아함

나는 그를 대단히 사랑하고 내 여동생을 깊이 사랑함을 알았다
내 동생을 매우 열정적이며 극도로 단순한 마치 아이와 같다
순수하며 오직 다섯 자식들을 돌보는데 정성을 다한다
그들이 결혼한지 17년째

라메쉬는 내가 그들의 회사를 위해 일할때가 되었다고 결심하고
시간 창조라는 성공한 그의 큰 회사에서 제작될
나의 디자인을 위해 쿨타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든다
나는 적어도 3년은 홍콩에서 지내며 일 할것을 약속한다

쿨타임을 위한 나의 제일 첫 디자인
오 차원의 수직 손목시계 꼬깔은 출판되고
2000홍콩 무역 개발 디자인 상을 타게된다

나의 쿨 손목시계는 다시 전 시계 무역 시장에서 뉴스가 된다
엄청난 반응과 함께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
다시 점령하는 사업...전세계적으로 시장 캠페인을 한다

쿨 디자인 손목시계는 전세계로 판매된다
칼스타드 넥커맨 구엘 하크 마노르 크리스트 주웰러
지비씨 홈쇼핑 월마트 플렉스 아트 모마
끝없는 목록

현대적이고 최신의 예술을 손목시계로 착용 한다
홍콩의 산업 연합의 시선을 사로잡고
나는 2001산업 소비자 상품 디자인 상을 타게된다

상은 국제적으로 나의 이름을 만들고
명성있는 스위스 저널 유로파에 기사가 실린다
선과 예술적 시계의 제작

나의 월급과 벌어들이는 돈은 일년에 300000달러
그리고 상은 세계로 향한 새로운 문을 나에게 열어준다

나의 관심은 디자인 세계와 소비자 상품 디자인에 있다
삶의 방식...인테리어...가구...현대 건축
훌륭한 상징적 디자이너들은 나를 깊이 읽고 공부하게 이끌었다
필립 스타크...테렌스 코란...마크 뉴손...에릭 막누센
미셸 그라브스...자콥 진손...론 아랍...자하 하디드
아이 엠 페이...프랑크 오 게리...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이것이 나에게서 현대적 천재이고 바깥세상의 선 스승이다
창조의 표현에서 이루어지는 그 스스로의 개선과 완성
시각 예술이 제시하는 대담한 삶의 방식
이 인류가 선천적으로 지닌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하고
그들이 선택한 완벽한 공간에서 대단한 훈련을 요구한다
순수한 선禪의 표현

나는 고객들과 만나기 위해 세계여행을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편안함과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삶의 방식에 감사하기 시작하며

나는 20년 동안 신문을 읽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어떤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16년 동안 영화도 보지 않았다
컴퓨터나 인터넷 이메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나머지 세상을 따라 잡았고
모든 곳에 펼쳐져 있는 창조의 힘에 놀랐다
색깔있고 활력있는 이 세상
나는 모든것을 정지함으로 주의깊게 보아왔다

선禪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는다
그 선의 경험은 모든것에 깊은 감사를 허락한다
인생은 춤을 추는 무지개 빛





샷트암 쉬밤 순더람...진리...미덕...아름다움

바깥세상의 창조의 경험과 여행

선의 눈으로 이 아름다움이 걸러져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 내면의 세상을 미적 감각으로서 확장한다

나는 새롭게 찾은 모든 자유의 순간들을 즐겼다
다시 경험하고 배우는 바깥세상

양첸은 거의 모든 여행을 함께했다

그녀는 내 의지로는 절대 가지않을 곳들을 방문하게 만들었다

디즈니랜드 라스베거스 카지노 마이애미 해변

샌 프란시스토 베이 뉴욕 마차타고 헤데 공원 알로하에서 저녁

하와이의 섬마린 물 아래 마다메 투사드 왁스 박물관을 갔고

세상에 관광객이 들르는 우스꽝스러운 모든 곳을 다 갔다

미국에서 영국 스위스 프랑스 내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태국 발리 싱가포르 상하이 뉴질랜드까지

내면의 세상과 바깥의 세상의 조화

조르바 그 깨달은 자의 세상



3년이란 약속했던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나는 다시 마날리로 떠날 계획을 한다...나의 여행을 완성하기 위해

양첸 인도 히말라야 북쪽의 작은 마을 아루나찰에서 온 티베트인
세상과 물질적 풍족 살아있는 삶의 방식과 세계 여행에 빠져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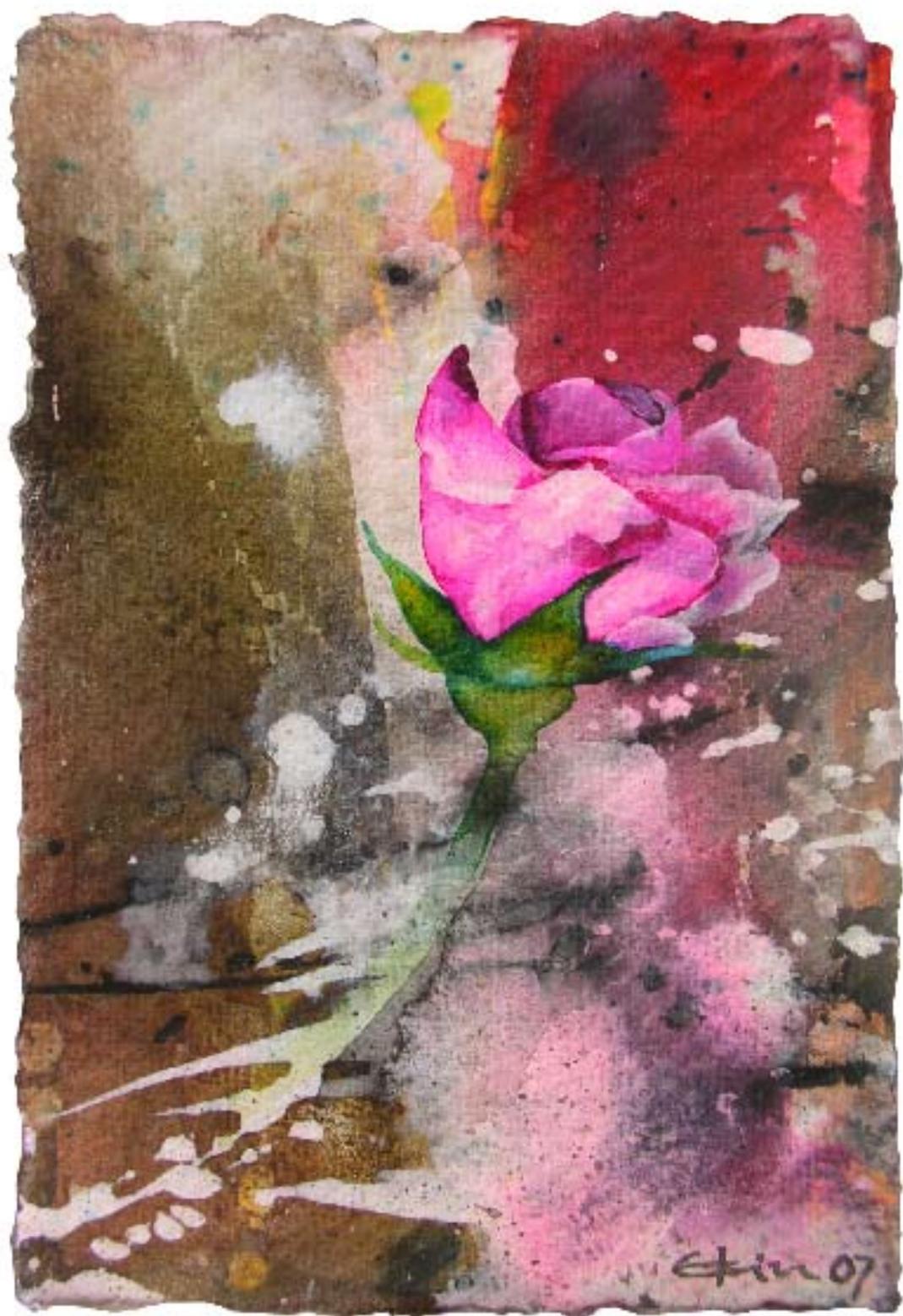
그녀는 아직 26살 모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어린나이
막 세계 여행을 시작했고 홍콩에 살기를 원한다
이제 지루해 보이기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히말라야의 삶

인도로 돌아감에 그녀의 저항이 보인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위해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모든 티베트인들의 희망인 그들의 꿈의 땅 미국에서 정착과 삶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를 정착시킨다
나의 모든 사랑과 그 자신을 표현하는 길에 지지를 보내고
그녀가 꿈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도움도 줄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에 늘 감사함으로 남는다
사랑은 수직...여기지금...항상 살아있다

이 방대한 우주에서의 이상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나눔의 경험이고 사랑의 깊은 이해이다

우리는 이 방대한 우주에서 친구이자 여행자
우리는 혼자오고 혼자간다





삼년이 흘렀고 나는 2004년 1월 15일 마날리로 돌아온다

나의 사과 과수원이 있는 문위터 별장
눈 덮인 로망 산을 마주한다

어마한 강설
폭설의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눈송이
순백의 희고 고요한 1월의 19일
내 앞에서 강렬히 타오르는 장작불

나는 홀로있음의 축복과 충만 속에 있으니

오쇼가 문을 두들기고 내가 연다
부드럽게 내려앉는 떠다니던 순수한 별의 가루

오쇼 불과 얼음
그분의 연민의 차가운 불이 나의 위로 내려온다

시간이 오고있다...나는 마지막 여행속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 끝없는 길이 요하는 비약적 도약
또 다른 무한한 여정의 시작 속으로

이른 아침 동틀녘 나는 깨어 있다
무지의 축복으로 잠들어있는 세상



세상을 향해 돌아다 볼 시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들끼리 서두르며 스쳐가는 사람들...눈치채지 못한채 삶을 보낸다

미친듯 급변하는 세상 속으로 잉태되고
삶 이라는 여행속으로 밀쳐져
어린나이서 부터 교육의 세상에 선다
4살에서 5살 유치원...6살에서 16살 학교
17살에서 20 대학...21살에서 23살 대학원
젊음의 활기 전체를 낭비한다

교육제도 전체는 범죄이며 순수한 아이들을 파괴한다
선택권이 없어 주어진 모든것을 그저 믿고 따라야만 하는 아이들

가장 첫 날 유치원에서 부터
교육 전체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장치역활을 한다
경쟁과 공격 그리고 질투와 판단으로 나아가며

이 사실은 간단하고 명료한 이해이다
어느 부모나 그들의 사랑하는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짐을 원치 않듯
모두가 자기 자식 먼저...최고가 되길...항상 앞서기를 원한다

한 교실에서 모두가 일등이 되는것은 불가능하다
이 계산법의 훈련은 심지어 가여운 알버트 아인슈타인까지 좌절시켰다
단 한명의 아이만이 일등이 될 수 있다...이등...그리고 삼등
어느 아이가 삼등을 원하는가...원하는 사람
어느 아이가 꼴찌가 됨을 축하하겠는가

바보 같은 날짜나 숫자따위를 기억하는 의미없는 지식을 지닌
시시한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떤 아이든지 일등이 된다
교육은 그저 기억력을 시험할 뿐 그 어떠한 면에서도 총명함은 없다

그 주제들의 가르침은 가여운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심각한 선생들과 학교에서 잘 하라는 부모들의 압박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진한 아이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가득 채운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의 쓰레기통 혹은 문제를 지니기 위해 있다

가여운 아이들은 가르쳐진다
알렉산더...징기스 칸...타몰란...이반 더 테러블...히틀러
위대한 전쟁과 세계대전...파괴 그리고 파괴
알랜산더의 무엇이 그리도 위대하단 말인가
그저 그의 자만으로 정복하는 정신이상자
살인자에 있어서 훌륭한 정복자



역사학

공지와 함께 기억되는 어리석은 우리의 과거

지리학

우리의 한 지구가 분리된 국가들로 나누어진 그 이유

생물학

모든것들에 한하지만 우리들 자신과 자연속의 우리의 공간을 제외한
화학

모든것들에 한하지만 두려움과 화의 화학적인 호르몬은 어쩔것인가
수학

우리의 실제 세상의 썸에는 맞지않는 일 더하기 일

언어

그저 말과 말 그리고 대화의 의미가 없는 침묵의 언어

교육전체는보통의 무리를 위해 뒤죽박죽 설치되었다

모든 과목과 개요 그리고 시험이 정확히 수만명의

다른 사회 문화 종교의 배경으로 부터 온 각기 다른 아이들에게 맞단 말인가
조금의 변동없이 단 하나의 시험 방침으로

마치 플라스틱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복사본 같은 아이들
한 치의 오차없는...모두 똑같은 바비 인형의 미소를 띤

우리는 순전히 통제할 수 있는 로봇트를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조건에 맞게 편하고 쉽게 조종하고

사회집단이 정신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속에 꼭 맞아 떨어지도록

인간이란 동물이 혼란속에 있음이 놀랍지 않다

자신을 조각내고 쪼개며 망가뜨리고...언제나 전쟁속으로 스스로 몰아넣는

그 어떤 아이도 스스로를 사랑하지도...만족하지도...스스로가 되지도 못한다

어떤 아이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부서지고 있는 아이들

교육이란 제도도 밀어 떨어져 그들의 천성과 어긋나려 발버둥친다

잘하고 의미없는 학위에 대한 보상인 취직을 위해

모든 아이들은 자신이 똑똑하지 못하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길들여 졌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생긴 그대로의 그들 자신은 부족하다고

노력과 안간힘 없이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어린시절 부터 가식적인 미소를 배우고 미워함을 배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사랑스런 부모 선생 어른들 사회와 국가를
만족시키는데 몰입하여 스스로를 미워한다
그들의 천성을 그르치며 밀어 부쳐대는 부모와 어른들을 미워함을 배운다
주위 모두가 미소짓고 있다...안으로는 괴로워하며...그것이 미소의 대가

어떤 아이도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로 부터 밀쳐지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의미없는 어리석은 이유들
심각해 보이고 중요한척 하는 모자라는 어른들로 부터
사내답게 울지마...사회를 위해 살아라...남들을 고려해라...스스로를
희생해라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 싸워라

어떤 아이도 자신 그대로 남을 수 없다
이것이 되거나 저것이 되거나...권력있는 대통령이 되거나
유명한 의사가 되거나 중요한 정부의 고위 인사가 되거나
할 수 있는 뭐든지...그러나 너 자신 그대로는 머물지 마라

삶에서 가장 첫번째 훈련...단 몇가지의 가치있는 배운것을 잇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자신을 받아들이고...자신 그 자체로 존재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미세한 고요와 망가지기 쉬운 기운은
내면으로부터 분산되고 조각나며 보이지 않는 암세포 처럼 급격히 자란다
다른 이를 사랑하지 마라...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자애는 내면의 건강이며 성장의 길이다
이 사랑은 일곱개 내면의 빛의 기둥을 통과하여 성장하고 꽃을 피우리라
사랑은 강화되며 곧 스스로 다른이와 조화하며 퍼져 나간다

자신을 받아들여라
만일 모든 인간이 똑같다면 그 무슨 지루한 세상에 살게 된단 말인가
자신 그대로를 수용하는 법을 배워라
존재는 생명을 주었고 조건없이 너를 받아 들인다
너는 숨을 쉬고 살아 있음으로 살아있다...그 자체로의 신기함
개개 모두가 이 드넓은 우주에서 독특하며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다
너의 가장 아름다움은 그 유일함의 서명으로 남는것

자신 그대로 존재하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흉내내고 노력해 보아라
누군가 처럼 되고 남의 이름을 사칭하며 사는 불가능한 삶
오직 한 가지의 방법만이 있으니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함이다
무엇이든지 그저 그 자체로서 편안히 긴장을 늦추어라
그 자체로 존재함이 무한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풀어놓으며
네 주위 사방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라...자신을 받아들여라...자신 그 자체로 존재하라

이 품격은 처음으로

개개의 나눌 수 없는 내면의 불꽃을 창조할 것이다
너를 둘러싸고 모여들 위대한 기운의 연못

너의 안으로부터 피어오를 내면의 신뢰

내면의 신뢰

내면의 신뢰의 정착은 우리를 드넓고 친근한 우주의 집으로 안내한다
듣기위해 조용히 정지하여 기다리고있는 내면의 존재를 가지는 개개
내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침묵으로 안내하는 목소리를 잊고 있었듯 깊은 경청이 필요하다

내면의 목소리와 참 안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존재는 매순간 너를 지지할 것이다

모든 숨으로 그 모든 축복을 뿌릴것이니

이 축복이 삶을 증명함이다

안으로 들어가라...안으로...깊은 사랑과 깊은 신뢰속으로

내면에대한 신뢰는 너의 내면의 예민함과 존재를 확장할 것이다

너는 빛의존재...너의 지각을 확장하고 더한 존재로 살아라

너의 내면의 불꽃이 작을지라도...그것은 너의 내면의 불꽃이니

어느 선생이나 스승으로 부터도 빌려오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것도 줄 수가 없다

삶은 너의 최심부의 절로부터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달할 수 없으나 오직 너만이 가능한
그곳이 너의 내면의 성스러운 장소...그곳에서 스승은 너 자신이니
오직 너만이 불을 밝히고 도달할 수 있다

그 진정한 스승
그 만이 가장 너를 자극할 수 있다
너의 존재로 삶며...너의 빛으로 살며

개개의 성장은 결합된 연민을 향해 성장하고
결합된 연민은 우주의 신성함을 향해 성장한다

그 여행은 간단하다
많은 조각으로 부터...개개로...우주 전체로

삶을 살고...삶을 사랑하고...삶을 웃음과 기쁨으로 맞이하라
삶은 너의 순수 축제...너의 존재의 축제





이 우주 우아함속의 매 순간에 살아있음으로 존재하라

탐색을 시작하기 전
너의 내면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재발견 할 것이다

너는 이 우주의 영원한 표현
너의 존재 속에 이 우주 모든 경험들을 지너라
인간은 초소형 우주
네가 가진 모든 미세한 세포는 이 창조의 원천이고
마치 전체와 같이 각 단계의 혁명을 거쳐왔다

너 스스로 지너라
그 씨앗과 꽃 그리고 그 존재 전체의 앞

오감은 모두 외부로 향하는 바깥세상의 지각
육감은 안으로 향하는 새로운 지각
외부보다 훨씬 방대한 내면의 하늘 속으로
마치 이제 지각하는 경험자 그 자신이 된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란
밖으로 끄집어 내는것...내면의 지식의 우물로 부터
이모든 보물들을 간직한 내면의 하늘

네가 더 배우기 이전에
이미 가진 보물들의 이해와 경험속으로 빠져들어라
네가 곧 우주임을

과학은 외부 과학자의 탐험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외부 과학자
그들의 오감을 수단으로

명상은 내면 과학자의 탐험
내부 세계를 탐험하는 내부 과학자
그의 육감을 식견으로

과학자는 아무것도 아닌 모든 면에 대하여 더욱 더 알아가고
신비한자는 그 무엇도 아닌 모든 면에서 점점 줄여가며 알아간다

과학자는 존재의 외부 막힘을 찾는다
외부 과학...지식...단 그것이 문제

신비한자는 존재의 내면 공간을 탐색한다
내면 명상...앎...그 무엇이 문제

이제 그 의미없는 교육을 마쳤다

아이는 이제 성장했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재발견 한다 21살에서 24살
직장을 구하고...열심히 일하며...돈을 벌고...애인을 찾는데 25살에서 32살
결혼하고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으면 32살에서 40살
아이들을 키우는데 대한 책임감이 가져오는 40살에서 45살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는 45살에서 50살
진리를 찾는 구도자나 희망자가 되는 50살에서 60살
의미없는 삶을 발견하고...무덤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할렐루야...할렐루야 천국으로 환영하는 천사들의 노래...그 지름길

거의 필연적인 이 방침은 이 확립된 사회에 완벽하게 작용한다
그들의 세를 지불할 건강한 재생 건본을 찾았고

일을 대신할 그들을 남겨 놓는다...그리하여 계속해서 사회가 돌아가도록

가족제도는 적들을 만들어 내는데 책임이 있다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나의 핏줄
재들은 남의 아이들...다른 핏줄

한 나라 내의 위대한 나눔이 시작된다

아이들이 나뉘고...가족이 나뉘고..이웃이 나뉘고
국가 나뉘고...국토가 나뉘고...민족이 나뉘고....종교가 나뉘고

부모가 아이들을 나눈다...가족이란 이름으로
정치가 이 지구 땅을 나눈다...국가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상상의 하늘의 땅을 나눈다...천국의 왕국이란 이름으로

모든것이 나뉘여 진다
남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그 사랑은 하나가 된다고
대단한 위선

인간의 마음이 가지는 탐욕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뒤죽 박죽이 된 우리의 가치

누구는 살기위해 먹고 누구는 먹기위해 살고
누구는 살기위해 벌고 누구는 벌기위해 산다

동냥그릇 찬 거지의 뺨친손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가진 것 없이 밤 깊이 잠을 이룬다

그득한 그릇을 찬 억만장자는 더 많을 것을 찾아 헤매이고
가난한 내면은 밤 깊도록 휴식을 이루지 못한다

죽은자는 비옥한 땅에 묻혀지고
살은자는 살아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맨다

낙원을 소유한 신들과 금으로 만든 절에 수억원을 받치는 동안
가난한 자에게는 낙원의 희망이 주어진다

주는자는 줌으로서 그의 예고로 추락하고...받는자는 받음으로 그의 절을 올린다

멀리서 답을 찾아 헤매는 자

머나먼 우주 화성과 달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존재속 침묵에는 달하지 못한다

외계의 지혜라며 주파와 파장을 듣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숨쉬는 그 순간에는 귀기울이지 않는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존재안을 오르기를 두려워 한다

궁극의 가장 지혜로움은 자신의 배꼽 내에 자리하니
상념과 무념 그 내면의 작업은 미개척으로 남는다
이상한 우주에 살고있는 우리...그 위대한 개척과 모험

부단한 전쟁의 상태에 살고있는 이 인류
대지위의 전쟁터
하늘에서의 전쟁터

난관에 있는 거울의 구멍...내면의 혼란상태

종교가 종교를 반대하는 하늘에서 치뤄지는 심리적 전쟁
가장 위대하게 치뤄진 전쟁은 자신과 치뤄지는 내면의 전쟁
내면의 어두움과 깨닫지 못함의 버둥거림

거울의 구멍에 있는 난관....우리 외부의 혼란상태

만일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의 정치가를 신뢰하라
힘을 가진 자를 일깨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국가의 법으로 보호받는 다는 명목아래
그들을 전문 암살자를 전쟁터로 보낸다

핵전쟁

그 축복을 뿌리기 위해 이 신성한 존재에 대한 우리가 준비한 상

핵전쟁

동물 자연 나무 바다로 넘쳐나는 이 지구에 대한 우리가 표하는 감사

핵전쟁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연민이며 인종의 위대함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기억하라

우리모두는 무덤을 파는 자...이 세기의 묘지로 향하여 이끌려진다

우리가 세상이며...이 모두는 우리의 책임이다...우리 모두 다

딱 한 방울

이 방대한 신성한 존재를 반영한다

순수 영원의 한 방울

우리 모두의 한 방울

사랑의 눈물 방울...기쁨의 눈물 방울

모든 개인의 책임

한 방울 한방울...하나의 대양이 되는 우리

한 방울 씩...한 방울 씩...한 방울 씩

우리의 대양은 기쁨으로 가득찬 순수 사랑이 된다



깊어지는 침묵과 반영 속에 한해가 흐른다

다음 비약적도약을 위해 준비를 위해
삼일에 한번씩 깊은 조직 마사지를 받는다
모든 조직과 근육이 열리도록
모든 숨쉬는 근육속으로 기운이 흘러 나오도록
호흡과 근육의 조직이 균형을 잡도록

뜨거운 치유오일과 고유 아유르베딕 오일목욕을 하고
뜨거운 허브를 잘게 부수어 채운 주머니로 깊은 마사지를 한다
이 년동안의 깊은 마사지로 준비한다

간단한 음식과 주스 그리고 과일로 정해진 다이어트를 한다

깜깜한 방에서 잠을 자고
한 시간씩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근다



숲속을 걷고
강가에 앉고
깊숙히 숨을 쉬어 폐를 확장 시키고
독소제거와 몸의 완전한 정화



몸은 깊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자각의 격정적인 열림
방대한 공간의 확장을 요하고
몸은 완벽하게 긴장을 늦추고 열려있어야만 한다
모든 근육은 스펀지 같이 구멍이 나고 흡수력이 향상되며
호흡은 확장한다...한 호흡



어마한 힘의 정적이 모여들고
내면의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니
또 한번의 사마디로 향해 내파함을 감지한다

보름달이 오기 한주전
파라다이스인 히말라야의 휴양지 스펠 리조트로 간다
고급스러운 작은 별장과 강을 끼는 산책길
오쇼가 인도로 돌아왔을 때 지내던 곳
그분이 지내던 방에서 머물기에는 너무 겁이 나서
옆방을 택한다



이 날들은 터져나오는 빛과 신선함으로 가득차고
몸은 다시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중력에 의해 들어 올려지고 나의 걸음은 다시 날개를 키워 나간다
얇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몸



오랫동안 음악을 듣지 않았고
춤도 추지 않았다
늘 몇 시간씩이고 춤을 춰 왔었는데

삶의 일부가 된 음악과 춤은
지난 이십년 동안의 가장 깊은 나의 친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창조적인은 존재들
기타로 듀터 카루네쉬 프레임 죠쉬아
카말 아누가마 사스트로 하리 그파사드 자키르 후산
오마 파룩 패트릭 오 힘 야니 야마시로구미
그들의 열정과 인류의 내적 성장을 향상하는 어마한 공헌에
나는 깊은 박수를 보낸다

다시 나의 춤추는 나날들을 시작한다

또 다른 정상으로 더 더욱 가까워 지고 있다
강물이 흐르고 낮 익지않은 숲속으로 가고싶다
기운이 왕성하고 인간의 사념과 동요가 없는 곳

산속 또 다른 장소의 발견
산속 호수 마을 리워설에 도착한다
티베트의 훌륭한 스승 파드마삼바바가 태어나고
명상하며 그의 동굴 밖으로 잡념을 없앴던 곳
히말라야 지역에 자리하는 백여개의 동굴들
기운이 정상을 향하고 거대한 고요함이 주위를 둘러싼다
중심의 호수같은 연못
하나의 거대한 그릇과 같이 울리는 소리는 리워설의 밤으로 퍼져난다
수백명의 티베트 승려들의 모여진 기운들이 모여
이 산 속으로 명상을 하니 거대한 깨달은 자의 대지를 이룬다

티베트인 수도원에서 기도문을 외는 승려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다
수 백개의 스승과 부다의 상을 향해
수 천개의 향과 등불을 밝힌다

수도원 내 멋진 휴양소를 발견하고
몇 일을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동굴에서 보낸다

위로 향하는 긴 계단을 올라
수분으로 습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동굴을 찾는다

들어서는 순간 정수리로 부터 수천개의 실들이 잡아 당겨짐을 느껴
정지한 상태로 앉아야만 했다...동굴의 강하고 힘있는 압력
동굴에서 내 몸으로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
몇 시간이 흐른다...깊은 침묵
온 사방으로 부터 나를 강하게 죄여온다
거센 힘과 함께 육체는 위를 향해 당겨올려진고
깊숙한 왼쪽에서 날카롭게 오른쪽으로 나의 척추는 비틀려진다
스승 파드마삼바바는 내 등의 문혀있던 커다란 묶임을 풀어주었다
몸은 막대한 힘의 구를 내보낸다
나는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한다
순간 너무 작게 느껴지고 숨을 죄여오는 이 동굴
이제 강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있는 숲을 필요로 한다

그 연꽃의 발아래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린다...스승 파드마삼바바

더 깊고 더 조용한 숲속으로 가야함을 알고
빠르바티 개곡 근처를 향해 움직인다
왕의 쉬바와 빠르바티가 살았던 곳
빠르바티 강의 신비한 숲속 마을 카솔
키르 강가로 부터 마니카란을 질러 세차게 몰아 흐르는
산트 바바 구루 나낙 데브 지와 마르다나가 지나갔던 곳



간소한 알파인 여관을 찾는다
빠르바티 강물의 소리가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울리는

이곳임을 알았다
이곳에서 그것이 한번 더 나의 위로 하강할 것이다

다시 천국에 와 있다...투명하게 맑은 공기
충만한 강물의 춤추는 미세한 입자들로 가득찬

세차게 내몰아 쳐 가는 달콤한 강물소리와 함께
한달이 지나도록 깊은 정좌를 마셔대고 젖어 듣다

황홀경 속으로 퍼져나가는 나
천국같은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여섯에서 여덟시간 깊은 밤을 지나 동이 틀때까지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의 순수 불꽃속에서
그 춤을 추는 자 그리고 춤을 잃는다

그 춤으로 매일밤을 맞이하고
그 음악으로 황홀경을 맞이하며 춤을 퍼트린다

모여드는 축복

강물이 나를 이끌고...숲이 나를 이끌고
하늘이 나를 이끌고...침묵이 나를 이끌고
나는 모든 방향으로 점 점 팽창해간다

모여드는 축복의 폭발함

강물이 춤을 추고...숲이 춤을 추고
하늘이 춤을 추고...침묵이 춤을추고
계속되는 춤...계속해서 계속되는 춤

안으로 폭발하는 내면의 공간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이는 강물 빛...세차게 흐르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이 빛을 내는 숲...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쏟아 붓는 하늘...비처럼 내리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내려 보내는 침묵...떠다니는 다이아몬드



쏟아지는 하늘아래 홀로 추는 춤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빛...온통 하얀...순백의 빛

나의 위로 하강하는 순수 아름다움 순수 축복 순수 침묵
더 욱더 깊이 깊이 자라나는 침묵

강과 소나무들 그리고 눈 덮인 산 위
파란 하늘 속으로 옮겨지는 나

내 앞에 펼쳐진 완전한 아름다움...앞서는 위대한 삶의 비전
신비로운 놀라움으로 가득차 있는 나...열려있는 나의 눈...나는 깨어있다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냥 기다리고있다

이 놀랄만한 장관이 눈앞으로 떠있다
이 자각의 다이아몬드 같은 정상의 천국과 같은 장대함



홀로 섰다
하나의 대다수

삿 칫 아난다
궁극적 진리...궁극적 자각...궁극적 축복

나는 침묵속으로 녹아든다
음 음 음 음 음
우주가 녹아든다
음 음 음 음 음
공간 전체가 진동한다

나는 잃었었고
나는 찾았다

녹아들고

나는 다시 잃었다

나는 누구인가

순결한 빈 공간속을 떠다니는 다이아몬드
나를 위를 올려다본다

하강한다

오쇼 오쇼 오쇼

신비한 장미의 눈물

끝없는 감사함으로 절을 올린다

나는 무한한 감사함으로 절을 올린다

오쇼 스승들의 스승

붓다 영원한 동정의 스승

크리슈나무르띠 자신의 스승으로 존재하는 스승

오쇼

태어나지않고
죽지않는
오직 이 별을
방문한

1931년 12월 11일 - 1980년 1월19일

라즈니쉬

1961년 1월 20일 태어나
1990년 1월 19일 죽고
1990년 1월 19일 다시 태어난다

결코 죽지 않을

친구 라즈니쉬



라즈니쉬



신비한 장미의 눈물은
구도의 길을 걷는 모든 여행자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메세지입니다

신비한 장미의 눈물은
디자인 출판 광고에 드는 비용과 나무의 낭용을 막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받아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어떠한 작은 행동이나 기부 또는 기증은
값지고 크나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도움을 주실분과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oshorajneesh.net &
www.oshorajneesh.com

황금 접시

처음에 라즈니쉬는 몇 일의 저녁 모임을 정하여 이야기 꺼내려 가리라 했다
2007년 11월 20일에 시작하여 오쇼의 생일인 12월 11일 까지

만물이 변하듯이

어느날 저녁 그의 노트북에 써내려 가기 시작한
계획에도 없던 글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86시간 181 페이지 24일의 소비

그가 처음으로 시도한 글... 손질없는 초본 그대로의 글

그의 스승의 지혜로운 단어들을 빌리지 않고
꾸미지 않은 순수한 그만의 표현기법을 썼다
정제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남기고자 했던 그

그가 밝히는 신비스러운 여행기는 많은 구도자들에게 자극이 될 것이다

신비한 장미의 눈물
2007년 12월 11일 출판에 들어가
2008년 1월 19일 펼친다

옛적의 달	2
불뚱	14
천국으로의 전환	20
정신적 무전여행	30
사슬에 감긴 연꽃	41
깊다랗 공으로 잠수	44
블랙홀로 하강	60
해성의 꼬리	72
신비로운 장미의 비밀	78
그분의 눈 속으로 빠져들	91
2500년 후 마이트레야의 강림	106
오 위대한 흰 백조	115
장미와 가시	126
사자의 표효	133
기묘한 우주의 잔물결	148
고치의 진영	157
숨어있는 성단	164
적갈색 승복의 소문	172
지혜의 달 초승달	185
번개 불 다이아몬드	194
지진계 9진도	204
22 대도(大盜)의 역설	212
무사의 망명	226
가난에서 부에서 가난	237
카멜레온 달	245
조개속 진주	254
공시적 무	260
우주의 방울	272
황금 집시	284



번역

한승화

강민정

jjung2030@hotmail.com



그림

에킨

www.ekinart.com

ekinart@yahoo.com



그래픽

소마

www.walkingonthinice.net

soma@diptica.com

www.oshorajneesh.net

이북

오쇼 라즈니쉬 뉴 맨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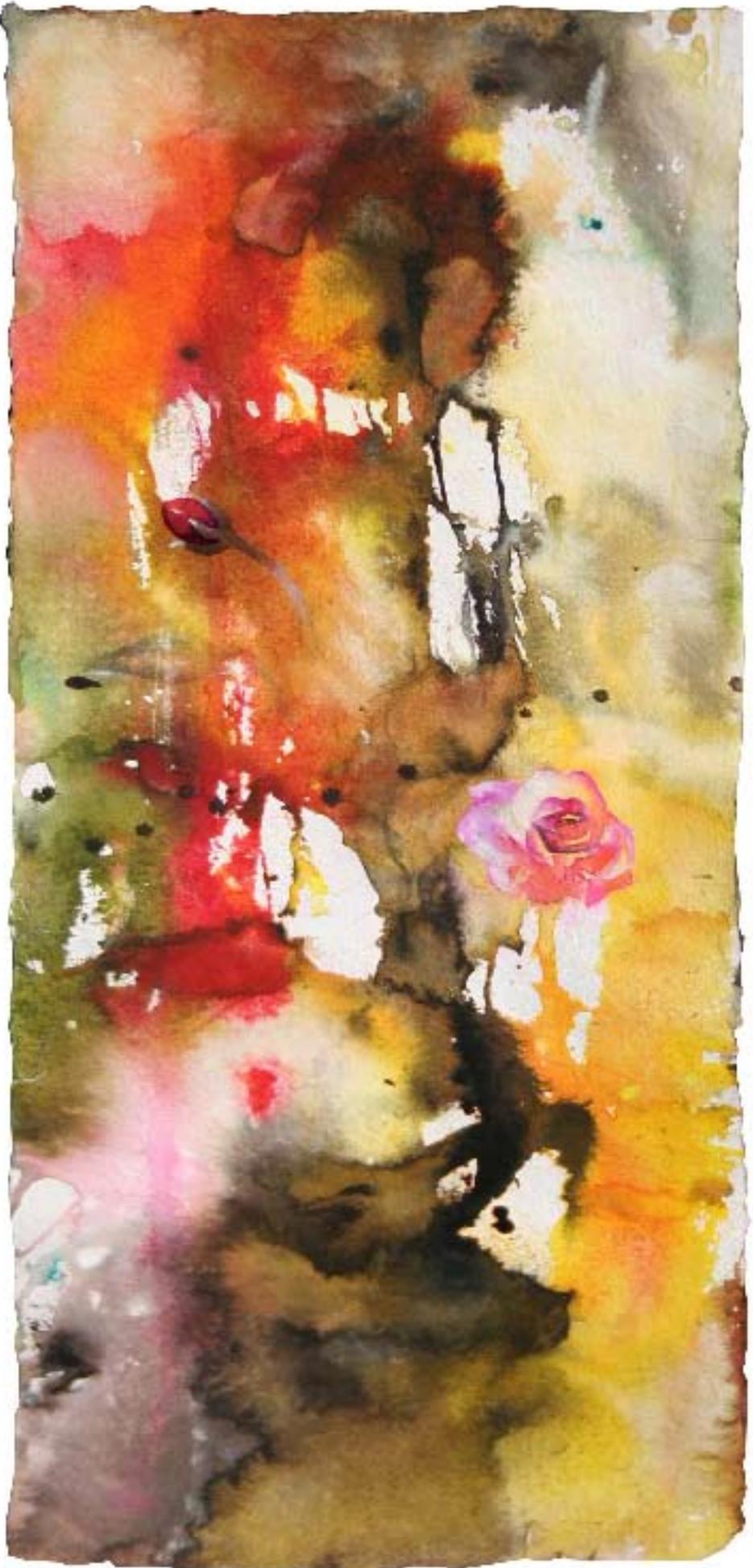
6 d estoril court two 55 garden road hongkong



v i s i o n

all rights given freely for anyone to use
without any authorized permission of the author
except for commercial publishing

www.oshorajneesh.net





지진계 눈금 9 진도

번개불 같은 다이아몬드

라즈니쉬가 밝히는 요쇼
신비로운 사랑이야기